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
"10년 후 내다보는 안목
불교 미래 좌우하죠"
16 · 17면


#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2월 22일) · 주간

제976호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집요송경〉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한다.

# 한국불교는 '세종시 시대' 준비 중

## 조계종·천태종, 세종시에 총무원 분소·전승관 건립

한국불교 주요 종단인 조계종과 천태종이 종무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총무원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분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33대 집행부의 성과인 토지처분금을 목적사업에 활용해 신도시 사찰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종시 신도시에 조계종 사찰을 건립하고 총무원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세종시 총무원 분소 설치는 현 임기 내 가능한 일"이라며 "3000여 평 규모의 사찰과 청사를 구상하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전법도량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이 준비하고 있는 사찰은 2012년 서울 일선 사찰이 소유한 세종시 종교 용지를 양도 받은 것으로 부지 선정에 있어 1순위를 배정받은 것이다.

조계종 신도시 종책 특보 허운 스님은 "현 집행부는 시작부터 신도시 포교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며 "직장직능단체 중 가장 주요한 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행정수도인 만큼 중앙종무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역 '랜드마크'로 자라매김할 수 있는 사찰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태종은 세종시 인근에 전통문화전승관을 세운다는 계획을 내놨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1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천태종 사찰인 대전 유성 광수사 옆에 천태문화전승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새 총무원이 들어설 전통문화전승관은 세종시에서 자동차로 15분에서 2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은 현 총무원장 도정 스님이 대전 광수사 주지로 있을 때 매입한 부지 3만평에 자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예산 등 총 40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 2017년까지 이전 불사를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도정 스님은 총무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총무원 이전은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가 앞으로 대전지역이 한국불교의 중심지로 큰 역할을 할 곳이어서 총무원은 대전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바 있다"며 "대조사의 뜻을 받들어 종단 스님들도 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며 신도시 포교와 종단의 행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대전에 전통문화전승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 스님은 "조계종과 태고종, 진각종 등이 앞서서 전통문화전승관 불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기에 벤치마킹해 천태종의 특징을 잘 반영할 불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요 종단들의 잇단 세종시 총무원 분소 설치 등의 발표에 불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대전 인근은 새로운 인구 밀집지역으로 신도시 포교가 가장 절실한 곳"이라며 "주요 종단 총무원의 청사와 분소가 건립될 경우 지역 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응 스님은 "포교적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초기 단계부터 명확하고 누수없는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충남 권역 포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연대 모임인 3자연대(무량 · 무차 · 백상도량)는 1월 15일 성명서에서 "세종시에 총무원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역포교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정부조직을 흉내낸 전시행정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세종시에 포교당을 세우는 것은 마땅히 이뤄져야 할 불사이긴 하나, 이 역시 지역 교구본사에 위임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일 · 신중일 기자

**조계종**
**협의양도 종교 부지에**
**도량 건립해 분소 활용**
**공무원 포교 전진기지**

**천태종**
**유성 광수사 옆 부지에**
**2018년까지 전승관 건립**
**종단 행정 홍보 역할 예정**



**"우짜라고 외치며 당당히 경기를"** 국민멘토 혜민 스님과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선수들이 소치 동계올림픽과 인천아시안게임의 선전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혜민 스님은 1월 14일 태릉선수촌을 찾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마음치유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300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해 스님과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졌다. 혜민 스님은 이 자리에서 '그래! 우짜라고! 열등감을 버리자' 등 6가지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올림픽 선전을 기원했다. 〈관련기사 5면〉 태릉=노덕현 기자


976호 INDEX

新사찰 건축 - 동국대 대각전 13



종합 2·3
주요종단 수장 신년 기자회견
국제선센터 임산부 템플스테이
한마음 촛불제 열린다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청계사 108선원 순례 12
의성 고운사, 안동 봉정사 등

불교로 읽는 古典- 맹자 24

갤러리 색즉시공 28







## 백련재단 "돈점논쟁과 군부 비교 억지"
## 서명원 "절대화 벗어나 다양한 해석을"

### 백련 · 서명원 측 성철 스님 논문 논란

서명원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사진 · 천주교 예수회 신부)가 성철 스님을 주제로 쓴 논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명원 교수는 〈가야산 호랑이의 체취를 맡았다-퇴옹성철, 이 뭣고?(서강대출판부 발행)〉을 펴냈다.

그동안 성철 스님의 선 사상에 천착해 온 서 교수가 20여 년 동안 성철 스님을 연구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 중 6편을 추려 모은 책이다.

논란의 논문은 이 책 중 마지막 편에 실린 '20세기 한국사와 퇴옹 성철의 사자후-깨달음과 역사인가, 역사와 깨달음인가?'로 2012년 6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영문학술지인 서울저널(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에 투고한 것이다.

서 교수는 논문에서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통해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를 비판하고 돈오돈수를 강하게 드러낸 것을 불교사상적 쿠데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불교계 역량을 모은 방식과 당시 정권이 쿠데타와 이후 북한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결집을 이끌어낸 방식이 6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성철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700여 년 만에 보조 스님의 돈오점수를 비판한 스님의 돈오돈수는 학계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불교계의 사상적 쿠데타라고 하는 말이나 5 · 16 쿠데타, 전두환 정권과 맥락이 닿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백련 "불량한 주장 유감"
### 서 교수 "건전한 비판 당부"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이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돈오돈수는 1940년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 평생 동안 견지했던 지론으로 1967년 해인사에서 설한 '백일법문'에서 돈오점수를 비판한 것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백련문화재단은 특히 "전두환의 고향이 합천이기에 합천 해인사에 주석한 성철 스님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더불어 박정희, 전두환, 성철 스님이 경상도 사람이라는 표현은 지역감정 구도로 학자로서 선량해 보이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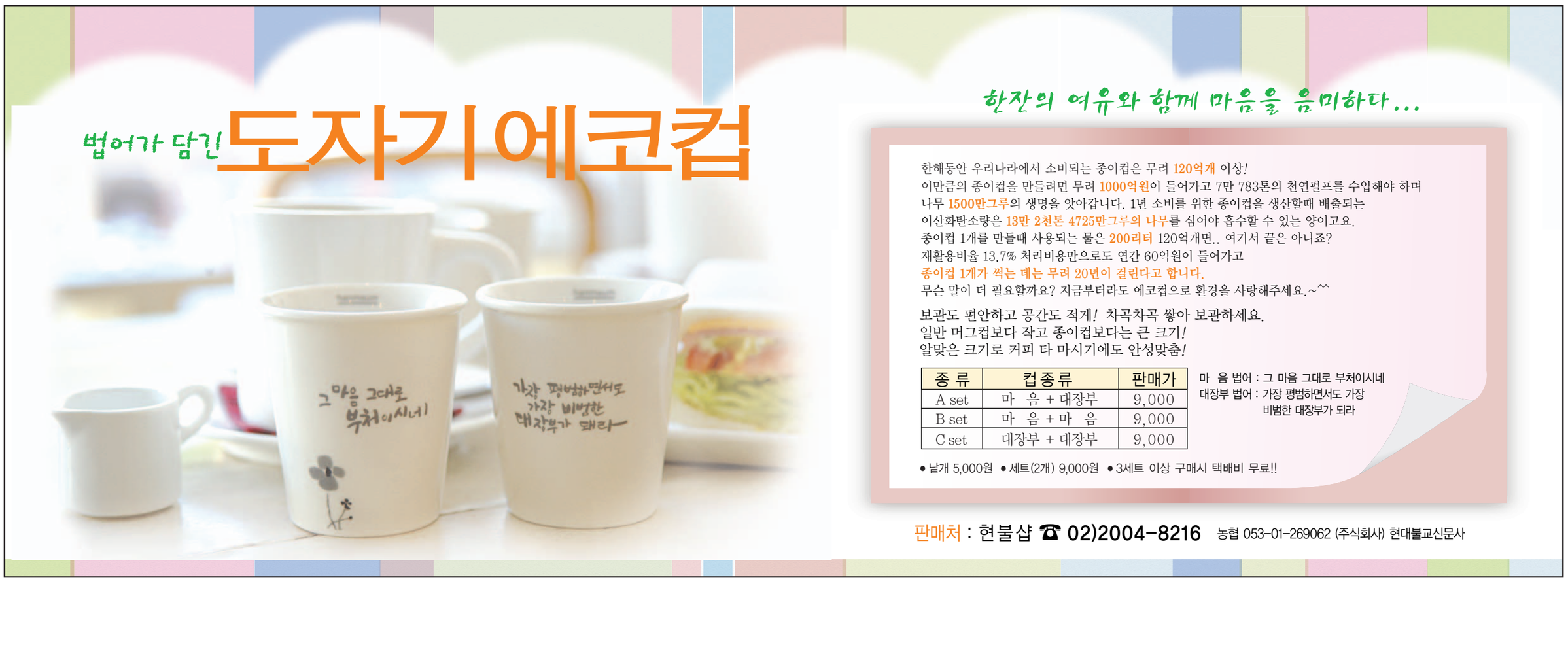
이에 대해 서명원 교수는 "성철 스님이 돈오돈수를 견지한 것이 오랜 지론이었다고 하지만 독수좌로서 지론을 갖고 있는 것과 1960년대 공생화를 시작한 것은 차원이 다르며 이는 한국불교사상 큰 사건"이라며 "불교를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학자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비구 · 대처 간 싸움에서 쑥대밭이 된 한국불교의 밑바탕을 다지기 위해 백일법문을 하셨다. 조계종이 탄생한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다"며 "성철 스님께서는 돈점논쟁을 통해 기강을 잡을 수 있었다. 수행법에 대해서도 이리저리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아주 튼튼한 기반을 세워주신 것이다. 이제는 그 위에 다양성을 존중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박정희 정권 또한 당시 한국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리며 결국 정치적 요구도 올라가게 했다. 사람들이 먹고살기 편해지자 민주주의가 발전됐고 그에 따라 당시 독재에도 긍정과 부정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역사 속에서 지나친 절대화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감정에 치우친 비판보다는 건전한 학문적 비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교수는 "오히려 성철 스님의 불교를 절대화하지 않고 수많은 해석이 형성될 수 있을 때, 그 분의 사상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승가복지 전면시행·교구 중심제 도입 추진”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신년 기자회견… 3대 중점 과제 발표

“종단 중점과제를 수행해 우리 종단이 ‘자비의 조계종’, ‘화쟁의 조계종’, ‘이웃의 조계종’이 되길 거듭 발원합니다. 나누며 봉사하는 삶을 우리 종단 사부대중의 소임으로 삼겠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시대를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향후 종단 과제의 대명제로 ‘화쟁 정신을 통한 나눔과 자비 구현, 종단 혁신’을 천명했다.

자승 스님은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 2558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라는 슬로건을 내건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34대 집행부 3대 중점과제로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 중흥을 위한 지속적 종단 혁신을 제시했다.

### 사회복지 등 나눔 영역 역량 강화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에 대해 자승 스님은 1사찰 1사회시설 운영을 비롯해 △남불불교 교류 확대 △자비나눔 활동본사 확대 △사찰과 숲 가꾸기 △불사자문위원회 시범 운영 등을 제시했다.

자승 스님은 “교구본사 중심으로 사회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모금 전문가 등을 양성해 나눔 문화를 확산할 것이며 자원봉사와 복지역량 결집에 노력할 것”이라며 “국내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구호 봉사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찰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참배객들이 평화의 삶, 불교의 연기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예고했으며, 간화선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살아있는 대중 안거 수행문화를 발전시켜 불교 한류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 범계행 엄격 관리…수행자 정체성 확립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를 통해서는 청정 승가 위상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전법 토대를 만들 것을 천명했다. 결사운동도 ‘붓다로 살자’ 운동으로 전환해 대중화, 생활화, 사회화를 추진해 나간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청정 승가를 위해 승가 청규를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승려법을 개정해 범계 행위를 엄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가자 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법계별 연수교육 제도 도입 및 승가 전문인력 육성,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 양성 등 조계종 수행자의 정체성을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화쟁과 자비, 이웃의 조계종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지역 전법 중심 토대 구축에 대해 자승 스님은 “교구, 지역 신행단체, 복지기관, 학교 등 지역 포교 인력을 결집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전법을 조직화·전문화 하겠다”면서 “중앙신도회 역할 강화를 통해 사찰신도회와 교구 신도회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조계종 신도등록제도 개선에 착수해 임기 중 개설할 것”이라며 “사찰운영의 사부대중 참여 확대를 위해 사찰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모범사찰은 매년 종단 차원에서 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구중심·승려복지 등 현안 해결 의지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인 종단 혁신’을 통해서는 승려복지·교구중심제·신도시 포교 등 당면한 종단적 불사를 여법하게 추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를 ‘조계종 승가복지의 원년’이라고 선언한 자승 스님은 “오는 3월 승려복지법 개정을 기점으로 승가복지를 전면 시행한다”면서 “의료비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수행 연금은 현황조사를 통해 중앙과 교구의 역할을 설계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구 중심제에 대해서는 “‘중앙·교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우선적으로 교구인사제도 개선, 말사 주지인사 교구 위임을 논의하고 이중 말사 주지 인사의 교구 위임은 올 상반기 중 결론을 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직할교구 강화를 위해 강북, 강남, 인천 지역으로 직할 교구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33대 집행부의 성과인 토지처분금을 목적사업에 활용해 각 신도시에 종단 사찰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자승 스님은 행정수도로 변모하고 있는 세종 신도시에 사찰을 건립해 총무원 분소를 설치한다는 방안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등이 함께 배석했다. **신중일 기자**

# “개성 영통사 인근 3사 성지순례 코스 만들겠다”

##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신년 기자회견



대한불교천태종은 북한의 개성 영통사와 인근 사찰인 관음사, 안화사를 잇는 3사 순례 코스를 만들 예정이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사진〉은 1월 15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올해에도 대각국사 열반일에 맞춰 남북 불교도 합동다례재를 봉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영통사 인근 3사 순례를 계획 중인데, 현재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에 화해무드가 조성된다면 지난 2007년에 진행했던 정기적인 영통사 성지순례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통사는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 개창 후 35년 간 주석하면서 가르침을 펼치던 사찰이다. 16세기 무렵 화재로 소실돼 폐사지로 남아 있었으나, 1998년 북한이 3년여에 걸쳐 발굴 작업을 시행하고 2002년 3년 간 천태종과 북한이 공동 복원사업을 진행해 2005년 10월 31일 중건했다.

도정 스님은 이어 올해의 대작불사로 지난해 4월 단양에 기공을 한 일심국제선원을 꼽았다. 스님은 “올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일심국제선원은 완공 되면 종교와 종단, 지역과 계층,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과 전통문화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활력을 되찾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복합수행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10월 완공을 앞두고 현재 불사중인 일심국제선원은 총 7,825㎡(2,370평)에 국제선원 1동(33.54평), 문화체험실 2동, 천왕문, 공양실 및 강당 등 5개 동을 건립중에 있다. 소요예산은 총 100억 원이다.

또한 천태종은 올해부터 전국 사찰에서 일요법회를 봉행한다. 그동안 천태종 사찰은 요일과 무관하게 사찰별로 날짜를 정해 정기법회를 실시해왔다. 이에 평일에 법회가 열릴 경우, 직장인과 학생 등은 법회 참석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도정 스님은 이에 대해 “총무원 교무부가 주관이 돼 직접 전국 사찰에 법사를 파견해 일요일에 법회를 여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며 “일요법회가 정착되면 가족단위에서 연령별·계층별 포교로 점차 심화·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천태종은 지난해에 종단 창종 후 처음으로 봉행한 신도수계산림대법회를 올해도

**올 10월 일심국제선원 완공**

**전국 사찰에 일요법회 개설**

**천태사찰총람 등 DB구축도**

열 계획이며, 수계자를 중심으로 한 수행 교육인 천태관음참의법회 활성화, 도심지역 사찰 중심의 열린 문화강좌 등을 통해 신도 교육에 힘쓸 방침이다.

도정 스님은 또한 “총무원장 취임 후부터 종단 DB구축에 힘써왔다”며 “올해에는 천태종 전국 말사 150여 곳 현황을 정리한 〈천태사찰총람〉을 발간하겠다”고 발표했다. 천태종 종정연구원도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 스님의 생애집과 법어집, 안거설법집 등을 발간 준비중이다.

마지막으로 도정 스님은 노인복지 중심에서 아동복지로 확대하는 등 '천태복지플랜 2020'의 구상도 피력했다. 도정 스님은 '함께하는 천태복지'란 주제로 공모사업을 실시해 천태종 복지재단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젊은 불교 지향… 예산 10% 청소년 포교에

##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진각국제체험관 올해 중 완공**

**스리랑카에 회당법인 설립 예정**



“젊음불교, 수행을 즐겁게 하는 종단을 만드는 것이 올해의 중점 목표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는 1월 15일 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교가 우리 사회의 노령화 현상보다 더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어 걱정”이라며 “새해에는 젊은 불교 구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정 정사는 “지난해 연 청소년결집대회를 통해 젊은 불교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청소년 및 청년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정 정사는 이어 “우리 진각종의 수행이 일반인이 볼 때 너무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올해는 수행 그 자체를 즐기는, 즉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수행 프로그램을 진각종이 앞장서 개발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회정 정사는 “종단예산의 10%를 청소년 교화에 배정 한 것도 젊은 불교를 지향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진각문화전승원의 불사 계획도 밝혔다. 전승원 1층 3면을 ‘가칭 진각역사공간’으로 구성하고, 시대별 심인당 재현관, 종조일대기와 종단 역사 홍보관을 건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각문화국제체험관도 진각문화 전승원 활용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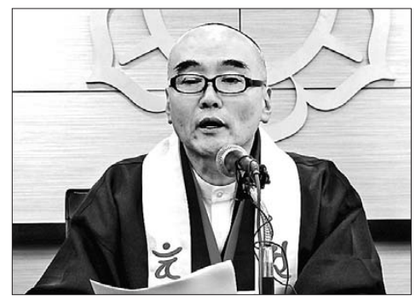
스리랑카 국제학교에 대한 사업 계획도 털어놨다. 회정 정사는 “스리랑카에 올 3~4월중 회당학교 법인이 승인될 것”이라며 “법인 승인이 되면 종단에서 직접 책임자를 파견해 종단의 목적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회정 정사는 통일 기금도 매년 1억원씩 적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 “신도복지불사에 종단 역량 집중할 것”

##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정사

**성남·부산에 교도복지시설 건립**

**3월 완공 중원사, 수행도량 운영**



총지종의 2014년 새해 예산은 총 86억 4천만 원이다. 이 예산은 △전당 건설 △복지사업 △교화 및 교육, 문화 △어린이 청소년 포교 △종합 힐링센터 건립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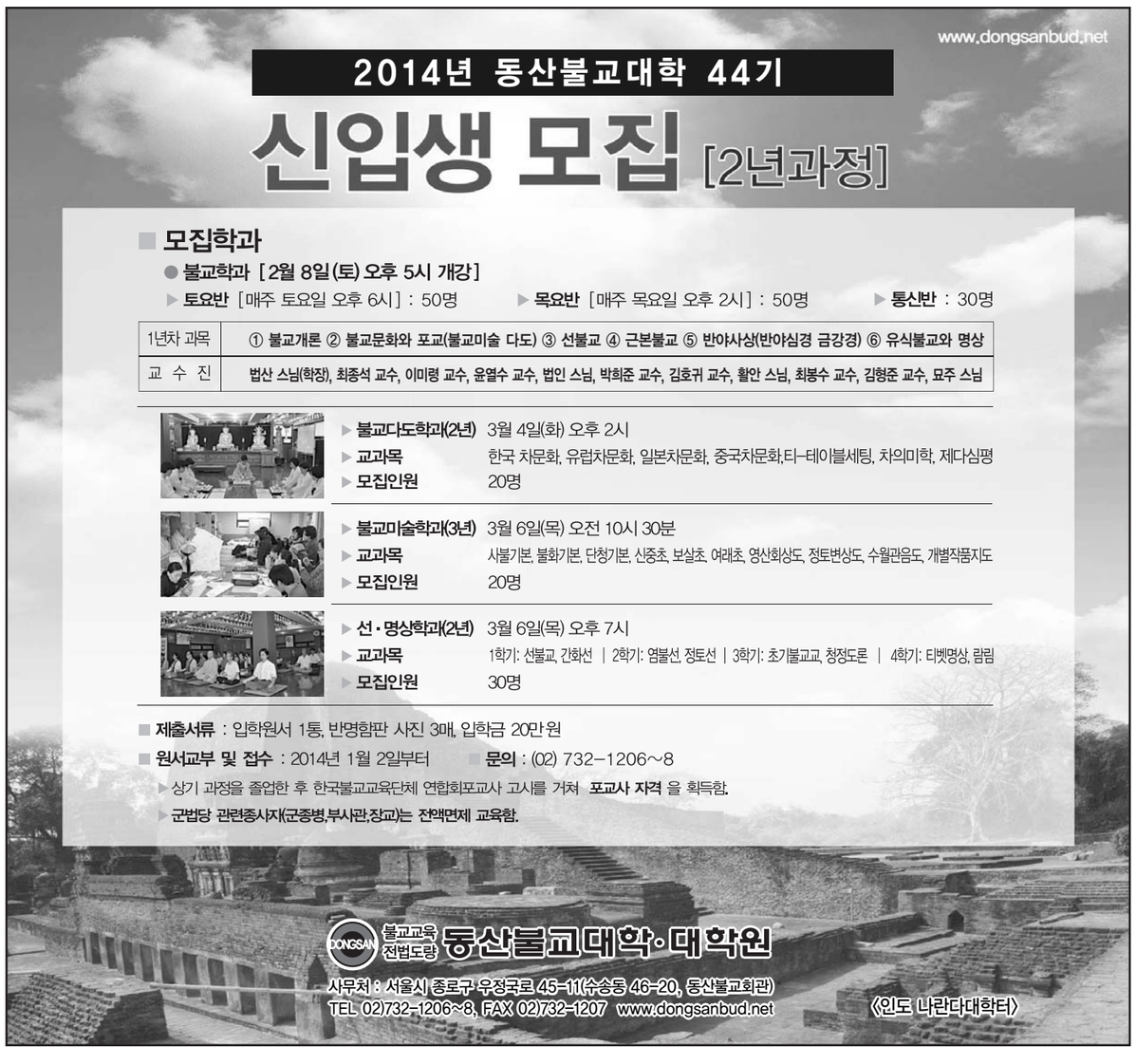
통리원장 법등 정사〈사진〉는 1월 16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지종의 확정된 올해 총 예산을 발표하고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인 40억원을 신도복지 불사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등 정사는 이를 위해 교도복지 시설을 성남과 부산에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법등 정사는 “성남에는 30여 명, 부산 5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것이다. 고령의 신도를 우선 대상으로 수용할 것이며 이들에게 숙식과 신행생활을 보장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한다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등 정사는 3월 중 완공될 괴산 중원사에는 종조전과 종조사리탑 건립불사를 추진중이며, 안거 제도를 도입해 수행전문도량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지종은 역삼동 총지불교문화센터내에 ‘종합힐링센터’를 올해 개설한다. 법등 정사는 “1백여명정도를 모집해 주 1~2회 정도 명상수행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사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센터인 미얀마의 마하시 센터 고승들을 초청해 지역주민과 직장인 대상의 다양한 힐링 명상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지종은 수익사업을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법등 정사는 “수익 창출을 통해 신도들의 시주금에 의존하지 않고 교화복지에 더욱더 치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출강 및 통신 2014학년도 제23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 23년의 법사양성 연륜은 대학의 위상과 교육의 신뢰에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요.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을 발급 받습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 |
|---|---|
| 모집과정 |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br>·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
| 모집학반 | · 출강반 · 통신반 |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br>·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br>·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br>·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br>·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교육기간 |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br>·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법패)<br>·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br>·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 교육장소 |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1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임산부, 명상 삼매 들며 마음을 다스리다

**조계종 신정동 국제선센터**
**임산부 데일리 템플스테이**

**15일부터 3주 코스로 진행**
**임산부 10여 명 참가해**
**명상 · 차담 등 프로그램 체험**


조계종 국제선센터 임산부 데일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자애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 10여 명의 임산부들은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며, 건강한 아이기 태어나길 기원했다.

"법당에서 절을 하는 이유는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만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깨끗한 본성과 불성에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깨끗한 마을 가질 때 뱃속의 아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10여 명의 임산부들이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절을 올린다. 뱃속 아이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절을 할 수 없지만, 절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다. 그러면서 되새긴다. 착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월 15일 '제1차 임산부를 위한 데일리 템플스테이' 를 개최했다.

국제선센터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템플스테이에서는 임산부 10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다스리며 쌓였던 임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배웠다.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천조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 템플스테이의 첫 프로그램은 '한국불교 소개' . 스님은 합장하는 법을 시작으로 절하는 법, 십우도 의미 등을 설명했다. 산모들은 스님의 설명을 경청하며 뱃속 아이에게 한국불교문화를 전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5층 템플스테이 전용관에서 시작됐다. 자리로 인도한 스님과 산모들이 함께 한 프로그램은 연등 만들기. 컵에 연잎을 하나하나 붙이는 모습이 제법 진중하다. 하나하나 모습을 연등의 모습을 갖춰가자 산모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이내 천조 스님은 산모들에게 연꽃의 열가지 의미를 설명했다. 진흙에서 자라지만 이에 물들지 않고, 잎 위에는 어떠한 오물도 머무르지 않으며, 그윽한 향을 보여 사람을 즐겁게 하 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내는 연꽃의 특성은 세상의 부조리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보여준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연등 만들기를 마친 산모에게 스님은 아이에게 보낼 짧은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연등과 함께 상자에 넣어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연꽃 같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다"는 축원도 잊지 않았다.

연등 만들기 이후에는 자애 명상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스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대상을 선정하게 한 후 이 마음을 끊임없이 살필 것을 참가 산모들에게 주문했다. 행선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이내 좌선으로 옮겨졌다. 산모들은 명상에 들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명상 이후에는 국제선센터에서 준비한 사찰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몸은 물론 태아까지 좋은 영향을 주는 불교식 건강 관리도 알아갔다.

산모를 위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이번 템플스테이에 참가 산모들은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가람(29)씨는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면 아이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연등 만들기는 태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데 가슴이 벅차 올랐다"면서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데 이런 템플스테이를 준비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상우(35) 씨는 "자비 명상을 처음 해보았는데 문구가 있어 잡념이 덜 생겼고, 명상 후 참가자들의 수행 체크를 해주는 것도 좋았다"면서 "이후에도 요가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를 위한 데일리 템플스테이는 오는 1월 22일과 2월 5일까지 앞으로 2차례 더 진행된다. 남은 2번의 템플스테이에서는 자애명상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108염주 만들기, 소금만다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나눔 확산 위해 정부·불교계 힘모으자"

**황우여 대표 · 조윤선 여가부 장관, 자승 스님 예방**

정관계 인사들이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불교계가 나눔과 봉사의 기치 아래 사회 곳곳의 어려운 곳을 밝혀주기를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자승 스님은 "대통령 신년인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강조했는데 민생이 안정돼 먹거리 여유가 있어야 국민행복도 생기고 문화도 융성하는 만큼 당 대표께서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스님은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취업문제"라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등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우여 대표는 "올해는 경제를 한 층 도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자승 스님을 예방해 조계종 복지 정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협력할 것을 밝혔다.

**노덕현 · 배현진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 촛불로 '자성본래불' 밝힙시다

**한마음선원 1월 31일~2월 2일 촛불재 정진법회**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을 비롯한 국내외에 있는 26개 지원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 '새해맞이 촛불재 정진법회' 를 거행한다.

촛불재는 한마음선원의 3대 연중행사 가운데 하나로 촛불을 들고 자성본래불을 밝히는 의식이다.

대행 스님은 평소 법문에서 "촛불재를 하는 것은 촛불 하나로 우주를 집어삼킬 수 있기에 내 모두를 불태우고 나까지도 거기 더불어 같이 태워 참나를 찾고자 함이다. 촛불재란 근본자리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밝힘으로써 살아있는 인연과 돌아가신 조상들이 마음을 함께 밝히기 위한 방편이자 진실"이라며 "촛불재는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마음으로 불을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닥치는 모든 것을 재료로 삼고 일체 행을 참선으로 할 수 있다면 나날이 촛불재요 찰나찰나 불을 밝혀 가고 있는 것"이라며 촛불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마음선원은 "촛불재는 단순히 조상영령들을 천도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촛불을 켜는 것만의 행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불을 밝힘으로써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일체 생명들을 밝히는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지난해 촛불재에서 자성본래불을 밝히고 있다. (한마음선원 자료사진)

# "염수정 추기경 임명 축하합니다"

**자승 스님 13일 축하메시지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로 추기경으로 임명된 염수정 가톨릭 서울대교구 대주교에게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1월 13일 발표한 축하메시지에서 "염수정 대주교의 추기경 임명을 축하드린다"면서 "평소 말씀대로 종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벗이 되고, 인류의 갈등과 고통은 줄여나가 행복과 평화라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추기경 임명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불자들과 함께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새 추기경의 공식 서임식은 오는 2월 22일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

#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자"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불기 2558년을 맞아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58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을 비롯해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 유민봉 청불회장,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출재가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남북 대치상태에서, 대화는 실종되고 대립과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면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언제 극한의 파국을 맞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 불교인들이 나서서 화해와 협력,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14일 조계사 대중전에서 불기 2558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거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주요종단 대표들이 상호 배례를 하고 있는 모습.

이와 함께 이날 법회 참가자들은 회정 정사가 대표 낭독한 신년 발원을 통해 "부처님의 원력과 법회 동참 대중의 성원으로 지혜, 자비, 용맹의 빛이 널리 드리워져 중생들의 마음 속에 참회의 지혜가 일어나고 용맹 정진의 신심이 솟아나 화해와 평등의 불국정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 일 주 문



### 자비의 쌀 100포대 전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1월 20일 자비의쌀 100포대를 서대문 13개동 불우어르신 각 5명씩에게 전달했다.



### 부산 범어사 사천왕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월 15일 범어사 사천왕문에서 도량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 동안거 토요철야참선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2월 8일까지 조계사 안심당 3층에서 동안거 토요철야참선을 개최한다. (02)768-8525



### 영산전 천불이운단 모집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4월 26일 영산전 천불이운법회를 앞두고 천불이운단을 모집한다. (041)841-6221

## 김희옥 총장, 2014 한국 영향력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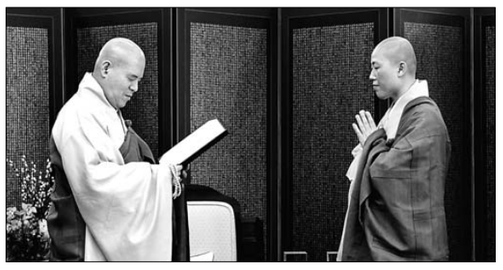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됐다.

김희옥 총장은 1월 1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글로벌경영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QS아시아 대학평가 국제화부문에서 동국대가 국내대학 순위 3위, 아시아대학 17위를 차지하는 등 동국대의 국제화 수준이 최상위권에 오른 결과"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재무국장 우하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재무국장에 우하 스님을 임명했다.

신임 재무국장 우하 스님은 1991년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대휴선원과 승연사선원, 사불선원, 천축선원, 문수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현재 화성 길상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중일 기자

# "국난극복 구심점 '직지' 소중함 알려요"

### 제 1회 청주시 직지문학상 대상 김미수 씨

"원나라의 침입으로 안팎이 혼란스러웠던 고려말 직지의 편찬은 무척이나 의미 깊은 작업이었습니다. 흐트러진 승풍을 바로잡고 피폐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온 나라가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이렇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직지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는 의지로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제 1회 청주시 직지문학상에 〈소설직지〉로 대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미수 씨는 직지 집필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직지를 기념하기 위해 실시한 청주시 직지문학상은 직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새 제정됐다. 심사를 맡은 권영민 단국대 석좌교수는 '직지의 숨은 뜻을 해석해가는 작가의 역사의식이 폭넓은 문화사적 기반 위에 확립된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동양일보에서 직지 축제에 칼럼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직지 축제에 참여하면서 직지라는 소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소설로 옮겨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직지 문학상을 계기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설직지〉는 왜구의 침입으로 가족을 잃고 출가한 주인공 석찬의 이야기다. 그는 이후 스승을 떠나게 되고 기녀 화선과 사랑에 빠지면서 승려 생활에 큰 갈등을 겪는다. 또 왜구에게 도륙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원의 영향으로 타락해가는 승려들을 보면서 불교에 대해 깊이 회의한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고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 제대로 된 불심을 심어주기로 결심한다. 이후 석찬은 흥덕사에서 설법을 하며 직지를 금속활자로 인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직지 주인공 석찬의 일생으로 그려내 폭넓은 역사인식 높이 평가받아**




"주인공 석찬은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제 상상력을 동원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금속활자를 인쇄하기까지 석찬의 방황과 갈등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직지를 편찬하고자 하는 결심 등을 그려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죠."

이렇게 김미수 작가가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는데에는 가족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천안 광덕사 신도이기도 한 그녀는 틈나는 대로 좌선을 하며 에너지를 얻었다고. 특히 지난해 동국대 불교학과에 13학번으로 입학한 딸 덕분에 도서관에서 풍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딸에게 너무 고맙죠. 딸도 제가 불교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해 많이 기뻐했어요. 소설을 쓰는 동안 종교의 힘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종교의 힘이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작가는 탈북민들을 소재로 하는 소설을 써보고자 한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해왔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등의 이야기들을 소설로 풀어보고 싶어요."

김미수 작가는 성신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201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미로' 당선 등단했다. 2012신예작가에 '새로운 환자', 2013 신예작가에 '이방인'이 선정되어 수록됐으며 201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단편집(공저), 2013 제 1회 직지문학상 대상 장편소설 공모에 〈소설직지〉로 당선됐다.

한편, 청주시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해 직지를 세계에 알리고 문학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3년 직지문학상을 제정했다. 청주직지사업담당자 김종관 씨는 "올해는 문학상의 제목인 직지에 소재가 집중되었지만 앞으로 전통을 알리고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그 폭을 확대하고 재정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혜숙 기자

# "청년불자 양성에 한국불교 미래 있다"

###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대학생 불자들은 사회에 진출해 불자교수, 불자의사 등으로 활동하는 한국불교의 허리입니다. 이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끄는데 교수들을 비롯한 선배불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학생 포교를 위해 불자교수들이 앞장선다.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1월 13일 인사동 음식점 다연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교불련 새해 계획을 밝혔다.

최용춘 회장은 "2013년 교수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며 "여러 의미있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성년이 되는 대학생들에게 교수들이 주축이 돼 성년 수계법회를 열자는 뜻이 모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불련에서 추진하는 성년의날 수계식은 발렌타인데이와 같이 현재 대학가의 기념일로 자리잡은 성년의날을 맞아 신세대들을 포교하기 위한 방안이다.



**2014년 권역별 간담회 활성화 지속 성년 수계법회 도입해 신세대 포교**

최 회장은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경우 매년 학생들이 줄고 있다. 이제 법회도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재미있게 바뀌어야 한다"며 "선시낭송회, 명상기도회 등으로 명칭에서부터 내용까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3년 대구, 부산, 광주, 청주에서 실시된 권역별 간담회를 전북, 대구, 제주권에서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점차 참여율이 늘고 있지만 전국교수가 약 10만 명임을 감안하면 교수불자의 활동이 참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자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회원교수들이 좀 더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불련은 2월 3~13일 10일간 인도에서 부처님 8대 성지 순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7월 초에는 순천 송광사에서 하계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 군종교구, 국군장병에 핫팩 22만개 보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14일 '군장병위문품보내기운동' 1차 사업으로 전국 30개 부대에 핫팩 22만개를 전달했다.

1억여 원의 예산으로 마련한 핫팩은 철책선과 해안선을 담당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를 비롯해 서해5도 경계근무 부대, 울릉도·독도 경비 등 격오지 부대에 우선 전달됐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이날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 핫팩을 전달한 뒤 "혹한기 훈련 중인 장병들이 핫팩으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며 겨울을 잘 보내기 바란다"고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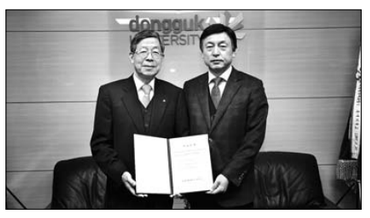
변재선 제25보병사단장 소장은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사단 장병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ARS(060)700-0108 노덕현 기자

## 봉은사, 필리핀 태풍피해 성금전달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에 필리핀 하이옌 태풍 피해 돕기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봉은사와 봉은사 신도회가 각각 1,000만원씩 모은 것으로 지난해 개산대재 동안 열린 '제3회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모금 바자회' 와 자비의 동전나누기를 통해 조성됐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불자교수회, 장학금 기부



동국대 교수 신행단체인 불자교수회는 1월 14일 김희옥 총장을 방문해 장학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불자교수회 회장 김대열(미술학부) 교수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불자 교수회 임원진 회의에서 의미있는 신행활동을 고민하던 중, 회비의 일부를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의견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불자교수회는 동국대학교에 재직 중인 400여명의 교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행단체로, 연간 정기법회, 불교 경전 공부, 사찰 순례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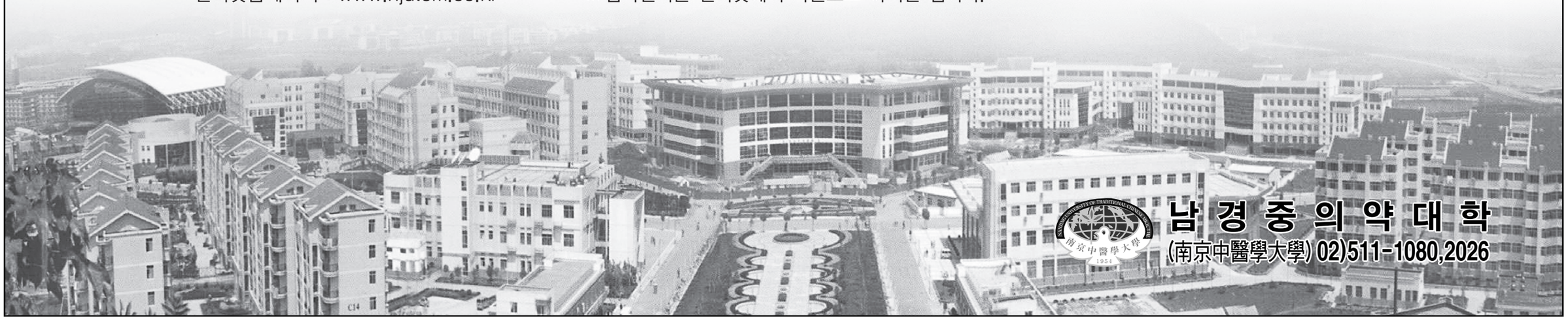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2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南京中醫學大學 1954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혜민 스님이 1월 14일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마음챙김법을 전하고 있다. 이날 마음치유 콘서트에는 300여 선수들이 참석해 스님의 힐링 멘토링을 경청했다. 스님의 유쾌한 설명에 선수들은 함께 웃으며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혜민 스님 '그래, 우짜라고!' 외치며 당당히 경기하세요

## 14일 소치 동계올림픽 앞둔 태릉선수촌서 마음치유 콘서트

**"24일 후 올림픽에 첫 출전합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하나요?"**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신다운 선수**

**"'우짜라고'를 마음 속으로 떠올리세요. '나! 나이 어리다. 우짜라고!' '나! 처음 출전이다. 우짜라고!'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히 나서면 마음이 평안해 질 것입니다." - 혜민 스님**

국민멘토 혜민 스님이 태릉선수촌을 찾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한 마음치유 콘서트를 열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1월 14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 대강당에서 개최한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콘서트' 에는 300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해 스님의 힐링멘토링을 경청했다.

혜민 스님은 이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의 순간은 역으로 내가 성장하는 계기다' △'우짜라고!로 기대감과 열등감을 버리자'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매순간 과거와 미래를 생각지 말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에 집중하자' △'경쟁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져 내 성적이 잘나온다' △'정신이 산만할 때는 호흡에 집중하자. 안된다면 뿌잉뿌잉 구호라도 외치며 웃으면 집중이 된다' 등 6가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 있는 그대로 자신 인정하면 마음에 평화가

혜민 스님은 먼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자신이 가진 단점과 상대와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 등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코치나 가족들, 국민들의 기대로 인해 자신의 경기력을 모두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단점을 스스로 회피하거나 부끄럽게 느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저 또한 어려서부터 키가 작아 열등감을 느꼈지만 스스로 인정해 버리자 제 자신을 발전시킬 계기가 마련됐다"며 "인정 이후 느껴지는 살짝 분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넘게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래, 우짜라고!' 를 선수들과 함께 외치며 "이런 마음으로 당당히 나서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재 상황에 집중해야

스님은 또 불자 야구선수인 박찬호, 추신수 선수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현재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찬호 선수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등판 전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 고 생각을 하고 던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난타당한다구요. 박 선수는 이후 전 경기에 자신에게서 홈런을 친 선수가 나오던, 경기결과가 어떻게 되던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정확히 던지는데 집중하니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며 "'연습 때 내가 몇점이 나왔는데...' '저 선수가 잘 못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보다 지금 내가 변화 시킬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혜민 스님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올림픽 선전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스님은 주변상황을 신경쓰지말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스릴 것을 주문했다.



콘서트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부담감 극복 등의 고민에 대한 즉문즉답이 진행됐다.

스님은 또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서는 경기를 즐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경기를 즐길 수 있냐' 며 물어온 적이 있다. 선수가 아니기에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연습을 실전처럼 긴장하며 하고, 실전을 연습처럼 여유를 갖고 차분히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것이 경기를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상대선수 '축복' 하면 나에게 '복' 이 와

스님은 경쟁선수들의 선전을 축복해주는 것이 자신의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신의 경기를 기다리며 앞선 경쟁선수들이 잘하기를 바라면 자신의 성적이 더 좋게 나온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보통은 경쟁선수가 실수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그 선수가 잘해버리면 실수하기를 바란 자신의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오히려 상대가 잘하기를 바라면 상대선수가 잘해도, '그래, 잘했구나' 하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상대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는 자신이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한다고 해서 상대선수의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집중이 잘되면 자신의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 결국 상대를 축복하면 자신이 복을 받는 이치입니다."

스님은 또 "참선하는 스님들이 느끼는 경지와 선수들이 경기 중 느끼는 무념의 상태가 같다"며 "호흡에 집중하면 망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스님은 "호흡에 집중이 잘 안되거나,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이 없을 때는 웃으며 '뿌잉뿌잉' 이라는 구호라도 하길 바란다"며 "잠깐의 웃음 속에는 아무런 망상이 없기에 집중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치유 콘서트는 선수들과 혜민 스님 간의 질의응답과 스님의 호흡명상 강연 등으로 이어졌다.

### "혜민 스님 법문, 큰 도움 될 것"

마음치유콘서트가 끝난 뒤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스님의 마음치유법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신다운 선수는 "요즘 올림픽 때문에 마음이 심란 했는데 그 점을 콕 찝어줘 치유가 된 것 같다. 스님의 말씀처럼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올림픽에 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도 "남은 기간 몸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잘 다스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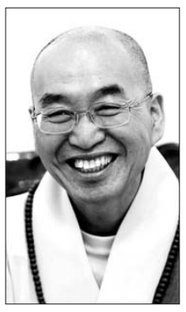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대한체육회 부회장)은 "선수들이 경기 전 느끼는 불안감과 슬럼프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이번 2월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거둬 들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법륜 스님 희망편지’ 독자 100만 명 돌파

### 카카오스토리 개설 1달 만에… 짧으면서 성찰하는 글 ‘호응’



대한민국 국민 ‘힐링 멘토’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대중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개설한 카카오스토리 내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가 개설 1달만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법륜 스님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란 이름의 계정을 처음으로 연 것은 구랍 11일. 꼭 한 달만인 1월 11일, 희망편지를 소식받기(구독) 하는 사람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하루 1개씩 올라오는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는 평균 1만개 이상의 공유하기, 좋아요, 댓글이 달린다. 특히 2014년 새해 첫날에 올라간 메시지에는 무려 2만 3,681명이 댓글을 달고 2만2,894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1만8,776명이 공유하기를 했다. 댓글 달기 등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SNS에 비해 높은 충성도를 보여준다.

법륜 스님의 SNS가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성찰과 사유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감성적인 이야기들이 직접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 전송되기 때문이다.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를 구독하는 이주희 씨(IT회사원)는 “출퇴근 시간이 책을 읽기엔 짧은 시간이어서 카카오스토리에서 법륜스님의 희망편지를 읽는다”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긴 글보다 농도 짙은 짧은 글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수정 씨도 “머리나 마음이 복잡할 때는 긴 글보다 짧은 글이 더 잘 읽히고 재미있다”며 “요즘은 법륜스님의 희망편지 덕에 짧으면서 좋은 글을 편하게 읽을 수 있어 좋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길 정토회 홍보팀장은 “카카오스토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비해 지인들끼리만 친구를 맺는 폐쇄성이 매우 강한 SNS 매체인데도 개설 한달만에 100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확보한 것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법륜 스님의 글이 내용이 짧으면서도 그 속에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몸·마음·음식의 조화로 심신치유

### 동국대 정각원 1월 23~26일 만해마을서 힐링캠프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은 1월 23~26일 설악산 만해마을에서 ‘마음챙김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몸 · 마음 · 음식 3박자의 조화’를 주제로 열리는 마음챙김 힐링캠프는 명상전문가들이 힐링멘토로 함께하는 심신치유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불교계 대표적인 힐링멘토인 자비명상의 마가 스님과 사찰음식전문가인 선재 스님, 명상전문가인 강창호 동국대 연구교수, 권태원 숲 힐링전문가, 김종인 힐리언스 선마을 팀장, 윤재진 한국예술심리극상담센터대표 등이 참여한다.

캠프에서는 자기긍정명상 · 숲걷기명상 · 가족긍정명상 · 화 다스림 명상 · 108배 자비명상 등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인간관계와 행복’ ‘몸, 사찰음식과 건강’을 주제로 한 특강과 요가, 월정사 발우공양 등이 이어진다.

동국대 정각원 마가 스님은 “행복한 삶의 중요 에너지인 음식과 실행 주체인 몸을 어떻게 균형있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자리”라며 “자기주도의 삶이 필요하거나 마음의 평온으로 행복을 얻고 싶은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02)2260-301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대한불교교사大 신입생 모집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심산) 산하 대한불교교사대학은 불교어린이지도사 및 전문지도사 과정을 공부할 제16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3월까지이며, 스님과 재가자 모두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1년이며 불교기초교리를 비롯해 어린이법회 및 여름 겨울 불교학교 운영방법, 불교어린이지도사 명상지도사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 (051)852-0852

**이나은 기자**

# “부처님 도량에서 더 좋은 인연 만나요”

### 사찰 결혼상담소, 불자부부 만들기…1년에 평균 20쌍 결혼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좋은인연 ‘가피’에 남성 불자가 찾아와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옥천 대성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법회와 함께 선남선녀 단체미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춘남녀들은 자신의 반쪽을 찾기 위해 친구나 친지를 동원하거나,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가장 잘 알려진 ‘듀오’나 ‘오우’ 같은 결혼정보회사는 최초 가입비만 100~200만원이 넘어 선뜻 가입하기가 꺼려진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불자가정만들기’를 장려하는 사찰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불자들이 불교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사찰이나 신행단체에서 결혼상담소 같은 전담창구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하다.

서울 조계사, 강남 봉은사, 강북 도선사, 능인선원, 옥천 대성사 등 대형사찰은 결혼상담소를 10년 째 운영하며 수천 명의 선남선녀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사찰 결혼상담소는 일반 결혼상담소와는 달리 가입비가 저렴하고 불자 가정만 회원으로 받고 있어 종교 갈등이 심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 한 달에 1~2쌍 결혼

봉은사 결혼상담소의 경우 약 2000여 명 정도의 불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쌍 정도가 결혼했다. 1년 평균 10쌍 정도가 결혼에 골인한 셈이다. 다른 곳도 평균 2000~5000명 정도의 불자 회원들이 가입돼 있다.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좋은인연 ‘가피’도 한 달에 1~2쌍의 결혼을 성사시킨다.

사찰 결혼상담소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 문을 열고 있다. 약 4~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꾸려 결혼 상담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 대부분은 신행활동과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실력자들이다.

조계사 행정국장 성진 스님은 “마음에 들어서 만나면 종교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사찰에서 운영하는 결혼상담소를 통하면 이런 걱정은 덜 수 있어 결혼 적령기 남녀들이 찾는다. 부처님 도량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사찰결혼상담소는 가입비가 일반 결혼정보회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사찰들은 3~10만원의 가입비만을 받고 원할 때 까지 인연을 찾아준다.

뿐만 아니라 커플매니저가 데이트 상대를 임의로 정해 연결시켜주는 일반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상대방 프로필을 보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찰 결혼상담소 만의 장점이다.

조계사 좋은인연 가피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불국화 실장은 “불자가정끼리의 결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남을 주선하는 것 자체가 포교”라며 “종교단체에서 하다 보니 신뢰도가 높아 가입자들의 호응이 좋다. 또한 신행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인연을 찾아주려고 노력해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 가입절차는?

결혼상담소를 방문해 상담소에서 만든 양식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졸업증명서,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서에는 본적, 직장, 학력, 키, 몸무게, 가족사항 등을 비롯해 원하는 상대의 연령차이와 직업, 학력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조계사의 경우 조계사 신도증을 발급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잘 어울릴만한 상대를 서로에게 추천해준다. 추천을 받은 가입자들은 서로 만나게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결혼상담소로 전화해 다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알려주면 된다.

#### 온라인 결혼상담소도 인기

사찰 결혼상담소 외에도 불자와 인연을 맺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많다. 대표적인 ‘불자 인연 맺기’ 프로그램은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에서 운영하는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http://cafe.daum.net/dasungsa)이 있다. 혜철 스님이 9년 동안 이어준 인연은 1450쌍에 이른다. 이틀에 한 번꼴로 선남선녀가 인연을 맺는 셈이다. 가입 회원들은 10만원을 회비로 입금하고 100일기도를 한다. 또한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에 참석해 신행활동도 하고 장기자랑 등을 선보이는 ’ 단체미팅 ‘에 참여해 마음에 드는 짝을 찾는다.

이밖에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은 대전 서구청과 협약을 맺고 결혼의 인연을 이어주는 ‘인연더하기(http://www.inyeon-plus.com/)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을 희망하는 선남선녀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등록을 하게 되면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적합한 짝을 골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남을 주선한다.

**이나은 기자**

| 사 찰 | 전화번호 |
|---|---|
| 서울 조계사 | (02) 768-8643 |
| 서울 도선사 | (02) 933-3161 |
| 서울 구룡사 | (02) 571-2255 |
| 서울 능인선원 | (02) 577-5800 |
| 서울 봉은사 | (02) 511-6070 |
| 옥천 대성사 | (043) 732-5560 |

# 美 여대생, 템플스테이 참여 “너무 좋아요”

### 1월 10~13일 용인 화운사서, 美캐서린대 학생 20여명 참여

조계종 비구니 스님 영어전문 교육기관인 국제불교학교가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용인 화운사 국제불교학교는 1월 10~13일 미국 카톨릭 재단인 캐서린 대학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불교학교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은 좌선과 걷기 명상, 발우공양, 연등 만들기, 108배 기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템플스테이 체험 셋째 날에는 국제불교학교 학인 스님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교간 대화를 통해 상대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외국서 선교활동을 14년간 하신 한국 수녀님 한 분이 참석해 종교간 대화가 더욱 깊이 있기 진행됐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2011년 3월 개원한 조계종 국제불교학교는 종단 최초 비구니 스님 영어전문 교육기관으로 종단이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불교학교는 2년 교육과정 동안 불교교리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운영, 해외사찰 경영 등 수업을 진행하는 등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스님들을 배출하고 있다.

국제불교학교 교학처장 지정 스님은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캐서린 대학교 교수로 있는 한국인 조민아 신학과 교수의 인솔로 학생들이 방문했다. 한국의 사회 정의는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탐방하기 위해 학교 수업과정으로 내한했다”며 “행사에는 아시안-아메리칸(아시안계 미국인)이 절반 이상어서 더욱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특정 종교가 없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섬기며 기복적인 형태의 부족 문화에서 불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가족과도 상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소수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시안계 미국인들에게는 불교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캐서린 대학 학생 20여 명이 다도를 체험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인재양성**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C.A.C 분석서**



◇프로필 :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 미래예측학 박사
-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 생활 역학(命理)학인 모집

본 대학 생활역학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 교수 및 교과내용**
- ⦿ 지 도 교 수 : 임성도 교수
- ⦿ 명리학 과정 :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직업 등. 특히 사주에서 조상 보는 법, 사주공부를 하고도 정리가 안되는 분 환영
- ⦿ 성명학 과정 : 신생아 작명, 개명, 상호 짓는 법, 성명감정 등

※ 수료 후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전문직(철학원, 작명소 개설)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리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2. 명리학 과정**
- ⦿ 명 리 학 : 초급, 중급, 고급 (각 과정 3개월)
- ⦿ 개강일시 : **2014년 1 ~ 2월 중** (매주 월) 2시 반부터 ~ 4시까지
- ⦿ 성 명 학 : 6개월과정 (단 역학의 기초과정을 배우신 분께서는 3개월 완성)

**3.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연구소 사무국

**해 동 불 교 범 음 대 학**
**생 활 역 학 연 구 소**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3층
TEL : 02)741-0495, 0496 FAX : 02)765-3169

# 불교복지단체 금융기관과 협약…후원 'UP'

##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 연계 일정액 적립해 소외이웃 후원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적립해 복지관 운영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익연계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평소 기부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손쉽게 공익적 금융상품에 가입해 간접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하나은행과 '자비나눔 통장'을 출시, 저축을 통해 소외이웃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나눔 실천사업을 전개한다.

이번에 출시된 '자비나눔 통장'은 지난 2012년 7월 3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하나은행사이에 맺어진 '금융 서비스 제공 및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속으로 2013년에 불교복지 종합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협력사업으로 기획됐다.

'자비나눔 통장'은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한 적립식 예금 통장으로, 후원 및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대금리(최고 연0.3%)를 적용해주는 상품이다. 통장을 개설한 가입자들은 납입계좌의 연평균 잔액의 0.1%를 하나은행이 자체 출연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외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경제가 불안정해지며 가계 부담으로 인해 후원을 중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어쩔 수 없이 후원을 중단하면서도 이름 모를 소외이웃을 걱정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줄이고 소외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모아준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심 끝에 도입하게 된 것이 자비나눔 통장"이라며 "후원자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으로 소외이웃의 삶을 지원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은 1월 16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자비나눔 통장' 1호를 개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월 16일 조계종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과 하나은행 김종준 은행장, 장경훈 전무, 이형권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나눔 통장' 1호 개설식을 진행했다.

이 날 자승 스님은 하나은행 은행장 일행과 간담을 나눈 후 현장에서 통장가입서류에 직접 서명해 자비나눔 통장 제1호 가입자가 됐다.

자승 스님은 "자비나눔 통장 안내서를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등 큰 사찰들에 비치해 많은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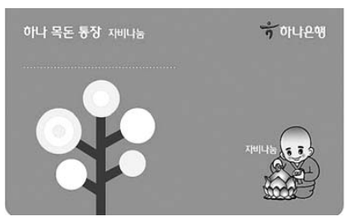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자비나눔 통장 안내서를 전국 하나은행에 비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기부를 하고 싶어도 바빠서 은행에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식을 개발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후원금이 적립돼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상품도 있다.

**천태종 복지재단**(대표이사 도정)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기업은행과 '천태자비카드' 제휴를 맺어 복지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천태자비카드는 사용금액의 일정액이 적립돼 재단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천태종 신도들을 대상으로 출시된 만큼 신도증을 겸한 카드라는 특징도 있다. 또 주유 · 영화 · 외식 등 할인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2006년부터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후원자를 비롯해 소지하지 않은 후원자들은 신한 아름다운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신한카드 사회공헌 홈페이지 아름인(http://www.arumin.co.kr)에 회원가입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하나은행은 제휴를 맺고 개설한 '자비나눔 통장'



불자연예인 김병조 씨가 홍보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천태자비카드'.

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을 기부처로 등록하면 사용한 카드대금의 0.5~0.8%가 신한카드 포인트로 적립돼 승가원에 후원금으로 기부될 수 있다.

**승가원**은 지난 해 11월 하나SK카드와 제휴를 맺고 '하나 SK 기브유 카드' 후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나 SK 기브유 카드'는 고객들이 사회공헌 포털 'T-투게더'를 통해 카드를 발급하면, 고객이 발급 과정에서 선택한 민간공익단체에 하나SK카드가 발급좌당 2만원을 무기명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승가원 법인사무국 유정화 과장은 "통장 개설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한 후원은 직접 후원보다는 소액이지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는 항상 발생하고 그 포인트가 자연적으로 기부가 되므로 후원자 입장에서는 후원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담 없는 후원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아름다운동행, 신규 영문 이름 공모

## 1월 28일까지 마감, 최우수 70만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월 28일까지 '아름다운동행' 신규 영문 이름을 공모한다.

아름다운동행은 "2008년 7월 설립 이후 국내외 다양한 모금사업을 전개하며 기반을 다져온 아름다운동행은 아프리카 농업기술학교 건립, 아이티 교육재건 사업 등 국제개발사업과 더불어 국제구호 활동의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나 기존 영문 이름의 낮은 인지도와 전달력 부족으로 사업진행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보다 다양한 해외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원활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2개까지 응모가능하다. 당선작은 심사를 통해 2월 7일 발표되며 최우수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0명을 선정하며 최우수 작품 70만원, 총 상금을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최우수작은 아름다운동행의 정식 영문 이름으로 사용된다.

공모전에 응모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thenanum.org)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thenanum@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동행이 브랜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금 단체의 성격이 잘 드러나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2)737-9595

이나은 기자

# 장애가족지원 프로젝트 '가가 호호 하하하'

## 강북장애인복지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12월까지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은 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양육스트레스를 덜고 가족의 역할강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가가(家家) 호호(好好) 하하하(賀賀賀)'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선정 돼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만29세 미만 지적 ·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자녀를 둔 가족에게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지망을 확대해 바람직한 장애부모 역할모델을 찾아 지역사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장애가족 강점중심의 가족지원계획수립 및 교육지원으로 장애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품앗이 공동육아를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생애주기별 부모모임을 육성해 연령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여 힘 있는 가족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2)989-4214

이나은 기자

# '선암호수노인복지관' 개관

## 울산에 설립, 통도사 자비원 위탁운영…1월 23일 개관식 진행

울산 남구지역에 노인 전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개관한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관장 문종선)은 1월 23일 오후 2시 복지관 1층 로비에서 남구지역 어르신과 지역주민 500여 명을 초청해 개관식을 진행한다.

개관식에는 난타공연과 사물놀이 등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대표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박맹우 울산시장, 김두겸 남구청장, 서동욱 시의회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의 기념사 및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울산 남구청에서 설립하고 통도사 자비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선암호수공원 내 6,378㎡에 이르는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울산최대 규모로 건립됐으며, '남구의 자연을 품은 어르신 행복 공간'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선암호수복지관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지원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취약노인지원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변 자연을 활용해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의 정서 함양을 위한 '솔마루길 걷기 명상 프로그램', '선암호수음악회'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052)268-6080



울산 남구청에서 설립하고 통도사 자비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이나은 기자

# 낙동복지관, 설날맞이 쌀나눔 행사

## 1월 23일 복지관서, 210가구에 쌀 2400kg전달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은 설날을 맞이해 1월 2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情'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떡국잔치, 주민교육을 비롯해 저소득 210가정에 쌀 2400kg을 지원하는 후원물품 전달식, 축하공연 등이 마련된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 내 기업 및 단체, 개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51)271-0560

이나은 기자




2014

2014(불기 2558)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 과정 | | 기간 | 교과목 | 요일 | 자격 | 시간 | 서류 및 전형방법 | 인원 | 수강료 |
|---|---|---|---|---|---|---|---|---|---|
| 불교학과 | 초급과정 | 1년 | 불교학개론, 불교입문 대승불교, 관음경 | 월 |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 1교시 : 18:30 ~ 19:50<br>· 2교시 : 20:10 ~ 21:30 | · 입학원서1부 (5,000원)<br>· 반명함판사진 2매<br>· 1차 서류, 2차 면접 | 약 200명 | 1년 10만원 |
| | 중급과정 | 1년 | 천태불교학, 밀교개론 법화경 Ⅰ · Ⅱ | 화 |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 | | |
| 법사과 | | 1년 | 유식사상, 유마경 금강경, 포교방법론 천태종사, 천태사교의 | 수 |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 1교시 : 18:00 ~ 19:20<br>· 2교시 : 19:30 ~ 20:50<br>· 3교시 : 21:00 ~ 22:20 | · 지원서 1부<br>· 반명함판사진 2매<br>· 서류전형 | 약 100명 | 학기당 25만원 |

원서접수

| 원서교부 | | | |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 위치 및 교통 |
|---|---|---|---|---|---|
|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 |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 • 접수 : 2013년 11월 19일(화 ~ 2014년 2월 17일(월) 18시까지 |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br>• 서울 금강불교대학 → 문의) 02.576.6401 |
|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 |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 | • 면접 : 2014년 2월 23일(일) 오전10시 |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 |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 | • 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 관문사에서 하차) |
|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 |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 |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
|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 |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 | | |
|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 |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 | | |
|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 |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 | | |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2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 아 래 -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14년 2월 19일(음력 1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묘산, 수암, 일산, 귀암, 경암, 덕우 (011-488-7060)
(내전강의는 본회의 학장이신 한파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 343-2267~8700



(사단법인) 영 남 범 음 범 패 연 구 보 존 회

# “새해에는 어리석음 ‘습관교정’ 하세요”

여래사 일요가족법회
도암 스님(송광사 강주)

삐뚤빼둘한 치아를 교정하듯 어리석음이 깃든 습관에도 뿌리를 비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도암 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띠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는 불자들을 격려하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다그치지 않고 채근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첫 마음을 꾸준히 지녔으면 한다고 법회에 모인 이들을 뭉근하게 격려했다. ‘나를 바꾸는 좋은 습관’ 이라는 주제로 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에서 열린 법회, 1시간 남짓 이어진 법문 속에서 스님의 살가운 다독임을 느껴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 어리석음 깃든 습관

부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법을 따라하다 보면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지혜가 늘어나면서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릴 수 있게 되죠.

어리석음은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요. 어리석음은 우리 몸버릇에, 말버릇에, 마음버릇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버릇에 숨어있는 어리석음은 어두움과 다름없습니다. 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몸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는 어둠의 어리석음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우리의 말, 마음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을 쓰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사이에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의 습관이 주인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습관의 특징은, 괴로운 결과를 만드는 괴로운 원인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데 있습니다. 습관이 원인이 돼서 괴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좋아하는 대로 놔두었다가는 우리 생에 볕들 날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습관을 고치는 일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부처님 법 중 4정근에 보면, 부지런히 애써 익혀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좋은 습관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겨난 좋은 습관은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나쁜 습관은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미 생긴 나쁜 버릇은 없애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것은 몸, 말 마음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습관을 조정하려고 열심히 애를 쓸 때, 무엇을 해야하느냐면 알아차리기, 내려놓기를 연습해야합니다.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거죠. 또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보아야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라는 것을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을 뜻해요. 내 에너지와 상대에너지를 주고받아서 기쁨이 발생하면 더할 나위없는 참 좋은 관계죠.

그렇다면 고통이 발생될 때는 어떨까요. 한 쪽이 고통을 발생시키면 처음에는 참을만하다가도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괴로워집니다.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괴로운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묵은해를 버리고 새해를 맞을 때는 누구나 한 번씩 습관을 돌아다보고 조정할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럴 적에 어떻게 습관을 고칠까를 돌이켜봅시다.

요새 치아교정 많이들 하시죠. 이 작업이 끝나려면 거의 2년쯤 걸립니다. 처음 3개월간은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 100일 이후에는 아프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아파요. 왜 100일을 기점으로 나누는가 하면 처음에 비해 적응이 됐기 때문입니다. 100일 이후에는 좀 견딜만해지고 스트레스지수가 낮은 상황이 된 거죠. 치아교정은 치근의 뿌리를 바르게 비트는 것입니다. 평생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상황에서 아주 미세한 힘을 24시간 동안 가볍게 힘을 주면 견고한 뼈의 뿌리가 살살 돌아가면서 새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치근의 뿌리는 당연히 약하겠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도 치아처럼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말이죠. 치아교정하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병원에 가죠. 그렇게 차곡차곡 2년의 세월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도 긴 프로젝트를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복원능력 뛰어난 습관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왜 맨날 그러냐’ 라고 핀잔섞인 말을 합니다. 물론 자신 또한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할 테구요. 옆 사람의 습관은 빨리 고쳐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습관 좀 고치라고 하면 너무 견고해보여요.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습관은 속수무책인 듯 보입니다. 치아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린 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치겠어요.

설사 마음먹고 고쳐지는 듯해도 우리 습관은 자기 형태로 돌아가는 버릇이 있어요. 금속 중에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게 있죠. 안경테를 만드는 재료 등 이 금속은 이리저리 모양을 변형시켜 꺾어놔도 나중에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형상기억합금보다 복원능력이 수십 배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눌러서 습관이 고쳐지나 싶어도 조금 지나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남의 습관만이 아니라 내 습관도 그래요. 치열교정한다 했을 때 24시간 동안 미세한 힘을 2년 동안 꾸준히 준다고 했죠. 그 중 괴로운 시간은 100일 정도입니다. 참아야 해요.

누군가 묵은 습관 버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한다면 주변에서 도와줘야 해요.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괴로울 것입니다. 남이 볼 때 좋은 모습이었든, 좋지 않은 모습이었든 내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안정적인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니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성질을 누르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안정적인 반응입니다. 주변은 초토화되어도 말이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몸의 반응방식, 말의 반응방식, 마음의 반응방식이라 보면 됩니다. 습관 고치기는 반응하는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구요.



**도암스님**은 … 1991년 통도사에서 월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통도사 승가대학, 동국대 철학과, 불교학과, 봉선사 능엄학림을 졸업했다. 백양사 강주를 지냈으며 현재는 송광사 강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삶에 먹구름 드리우는 어리석음
> 습관 속에 숨어 있어
> 방치하면 어리석음이 주인노릇해서
> 온갖 괴로움의 원인 돼
>
> 습관 조정 작업은
> 간절하게 꾸준히 해 나가야
> 내려놓으면서 자신은 물론
> 타인도 함께 돌보게 돼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100%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는 과정에도 2보전진 1보후퇴, 1보전진 1보후퇴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적에 1보 후퇴할 때도 이해하면서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꾸준히 2년동안 치아의 뿌리를 바꾸듯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습관을 고치려 마음먹었던 그 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력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합니다. 이슬비에 옷 젖듯, 어느 순간 습관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익숙해져야 해요. 그때까지 본인도 노력하고 가족들도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선 안되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찬탄해주어야 합니다. 습관이 수 십년 지속되어왔는데 일, 이년 안 되는게 큰 문제는 아니죠. 2보 후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1, 2년 사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구요. 자기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부의 인연들이 함께 힘을 합치기 마련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에너지는 비슷한 에너지끼리 모여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에너지로 보면 됩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부류들은 그 부류대로 모이죠.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감흥이라는것이 일어나 불보살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를 늘리고자 하는 마음은 내 몸, 말, 마음의 습관을 부처님 습관에 다가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꾸준히 하루에 십분이든 이십분이든 법구경 등의 경전을 차분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젖어들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늘 잡아줄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하면 불보살들의 가피가 오게 되는 것이구요.

### 습관하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가피란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죠. 옛날 중국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했죠. 당시 풍습 중에 새해 첫 삼일동안 부처님 전에 향을 제일 먼저 꽂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으로 향을 꽂고 싶었지만 몇 년간 1번은 늘 고을 원님의 차지였습니다. 소녀 또한 절에 찾아가 향을 꽂으며 아버지가 쾌차하길 빌고 싶었지만 한시도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던 터라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영험하다는 절에서 소녀까지의 집은 100리가 넘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해, 원님이 향을 꽂으려고 절에 왔는데 벌써 향이 꽂혀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난처해진 스님들이 셋째 날에는 보초를 서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린 소녀가 나타나더니 향을 꽂고 벽속으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아버지를 간호하는 그 소녀였어요. 아침이 밝고 아이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저히 절에는 갈 수가 없어서 향로하나를 만들어 마당에 놓고 그 주위를 돌다가 백리쯤 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향을 꽂았다고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100리를 걸어서 향을 꽂은 것입니다. 아이의 총명함에 감복해서 원님은 아이를 며느리로 삼았고 소녀의 아버지도 병에서 나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는 간절해야 하고 습관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마찬가지여야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상대를 알맹이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껍데기가 되어서 알맹이인 상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맹이가 되고 싶고 상대를 껍데기로 보면, 서로 스트레스만 쌓이기 마련이죠.

부처님은 함께 사는 사람들을 공경하라했습니다. 공경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시원찮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 아실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는 인디언들처럼 습관을 고치겠다는 원력을 세우면, 습관이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주변인들도 행복해집니다.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의 불행은 내 몸과 마음, 말버릇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정하는 일은 될 때까지 해 나가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2보 후퇴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세요. 원력이 끊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백일은 많이 힘들 것입니다. 이가 아픈 것처럼 힘들어요. 우리가 바뀌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와 서로서로가 귀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갈 세월이 많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더 소중하고 그립고 의지가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화제의 신간
힘의 / 원천 / 빠르게 / 배우는
법화경 핵심사상
(법문자료집)



**묘법연화경**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전이다.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서 석가세존의 자비 원력은 우리를 우주의 대 광명으로 끌어들인다.

**법화경**은 7권 28품이 전부 69,384자로 구성된 구마라즙 한역본이다.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부처님 그 자체라 이름하며, 이 법화경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아플수도 없는 마음의 애환, 아픔, 슬픔과 고독을 대변해주는 생명의 빛이며, 경제, 사회, 군사, 정치, 종교를 창조한다. 신라의 원효스님께서 법화경 종요서에서 극찬 하였고, 인도에 용수보살 같은 분이 세상에서 최고 최대의 보배로운 경이라 극찬 하였다. 그런대 실제로는 법화경의 **“핵심적인 사상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을 뿐 더러, 이론과 실천이 기름과 찬물과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법화경의 어느 일부분만을 가지고 마치 법화경의 모두 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법화경핵심사상”**에서 법화경 28품의 핵심 요지를 명쾌하게 드러내어 법문 자료와 독송 기도 하는데 꼭 필요하도록 집필 하였다.

송월스님 편저 / 신국판 양장본 / 값 15,000원 / 260쪽

전국 사찰,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법인지(法印智)로 깨달음을 여는 길
♣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체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떠한가?
♣ 무위실상 일성원융 본심과 본각과 본성의 세계

세웅스님 역저 / 신국판 / 456쪽 /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자 격 과 정 | 교 육 기 간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br>※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 14주 과정<br>목요일 반 |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힉스 입자도 연기에 의해 의미 갖는다”

(緣起)

## 양형진 고려대 교수, 1월 16일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주장






이날 열린논단에는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서지미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등 물리학자들과 김종욱 불교학술원장,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준 건국대 명예교수 등 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은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우주를 구성하는 힉스 입자는 자성(自性)이 없는 무아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입자가 연기법에 의해 서로 모이며 의미와 성질을 갖고,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힉스입자 발견 이후 불교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첫 자리에서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는 연기법에 의한 존재의미를 강조했다.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1월 16일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1월 열린논단에는 스님들을 비롯한 100여 학자들이 모였다.

### 환원주의 설명으로 상호작용 파악 못해

양형진 교수는 먼저 우주의 기본입자를 잘 이해하면 인간사회와 인류문명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양 교수는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유전자를 파악해 질병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지만 이들 노력 또한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1961년에 겔만(Murray Gell-Mann)과 니만(Yuval Neeman)은 강입자들을 입자의 성질에 따라 기하학적 대칭성을 지니는 모형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겔만은 너무나 기뻐서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길을 의미하는 팔정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겔만은 강립자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기본입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쿼크라고 이름 지었다”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이러한 쿼크와 경입자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입자라며 이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것은 연기의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상호 의존과 연기의 맥락 위에서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에 없던 핵자의 성질이 발현된다”며 “세 쿼크가 모이는 인연과 서로 의지한다는 인연에 의해서만, 핵자가 나타나게 된다. 핵자라는 존재와 속성과 명칭은 개별적인 쿼크만으로는 도저히 드러날 수 없는 것이어서 각각의 쿼크를 아무리 분석해도 해명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단순히 하위 요소 세 개가 결합한 게 아니라, 그 셋이 서로 의지하고 연관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위요소에 없던 새로운 요소가 창조적으로 발현된 것”이라며 “이를 연기론에서는 상의성(相依性) 혹은 상호 의존성이라 한다”고 말했다.

### 힉스입자 존재 의미 상의성에서 드러나

양 교수는 이어 〈노경〉의 갈대에 대한 비유를 예로 들었다. 양 교수는 “〈노경〉에서는 세 개의 갈대가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 ‘갈대의 묶음’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갈대’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자체로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관념”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쿼크는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입자로 기본 입자인 쿼크조차도 변치 않는 자성을 가지고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무아의 존재자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힉스입자를 포함한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특수한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연 화합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변하지 않는 본성이란 있을 수 없는 ‘무아(無我)’라고 강조했다.

### 소립자 생멸하기에 모든 존재 ‘무상’

양 교수는 “소립자의 수명은 10-6 초에서 10-23 초밖에 안 되기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찰라에 생멸하고 있다”며 “무아무실체적인 존재가 인연의 화합과 별리에 의해 어떤 것이 형성됐다가 소멸해가는 과정이 우리 우주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능엄경〉에서 나온 “모든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별리(別離)하면 허망하게 멸한다”는 부분을 소개한 양 교수는 “우리 우주에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란 없으므로 무상(無常)”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진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과학의 시각에서 불교사상을 설명한 〈산하대지가 빛이다〉를 비롯해 〈과학으로 세상보기〉 등 저술이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원측 탄신 1400주년 기념 국제 콜로키움

신라출신으로 당나라에서 법상종 양대 학파의 시조로 숭상되는 원측(613~ 696) 스님의 탄신 1400년을 기념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1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충무로영상센터 불교학술원 강의실에서 국제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원측 사상과 동아시아 유식학의 지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콜로키움은 △오치아이 토시노리 日국제불교대학원 대 교수의 ‘토쿠가와 미술관 소장 〈신통론(神通論)〉의 저자에 대해’ △요시무라 마코토 日고마자와대 교수의 ‘중국 초기 법상종에서의 원측의 위상’ △장규연 금강대 HK연구교수의 ‘원측의 종성(種性) 이해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기츠가와 토모아키 일본 도요대 교수의 ‘〈무량의경소〉에 보이는 원측 사상의 특성’ △백진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해심밀경소〉에 보이는 원측 교학의 철학적 기초와 원리’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한국명상상담학회 제1회 총지학술상 공모

한국명상상담학회(회장 인경)가 2월 28일까지 제1회 총지학술상을 공모한다. 총지학술상은 현직 대학교수가 응모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이후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이미 다른 학술상을 받았거나 대학 혹은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탁한 논문은 응모할 수 없다. 학술상은 총 1편을 선정하며 제출서류는 지원서 1부, 초록문 1부, 게재 학술지 1부와 별쇄본 3부이다.

논문 공모 분야는 박사과정 수료생 이상인 자로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소장학자에 한해 모집한다.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 논문으로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분량이다. 다른 학술상 공모와 중복할 수 없으며 한국연구재단 혹은 기타 연구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수탁해 진행하고 있는 논문은 낼 수 없다. 지원서 1부와 연구계획서 1부, 게재학술지 1부와 별쇄본 3부를 제출하면 된다.

연구계획서는 자유형식으로 A4 10매 내외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연구기대효과를 반드시 포함해 기술해야 한다. 선정 이후라도 연구내용의 표절이나 중복이 발견되면 선정이 취소된다. 공모 논문은 본 학회에서 발표되며 학회지 〈명상상담연구〉에 게재된다.

이번 학술상은 당선자에게 10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며 시상식은 4월 5일 열린다. 논문분야 당선자들에게도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학술논문 발표 및 시상은 6월 중 이뤄진다. 심사결과는 3월 20일 개별 통보된다.

노덕현 기자

##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천태학연구〉 제16집

원각불교사상연구원은 최근 ‘천태학연구’ 제16집을 펴냈다. ‘원각사상의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한 이번 논문집에서는 △김용표 동국대 교수의 ‘상월원각대조사의 불교혁신관’ △최기표 금강대 교수의 ‘상월원각대조사의 계율관’ △탄경 스님의 ‘상월원각대조사의 수행관’ 등이 수록됐다.

또 특별기고 논문으로 △김무생 위덕대 불교대학원장의 ‘진각종의 창교와 새불교운동’ △황상준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상임연구원의 ‘대한불교 천태종의 관음신앙연구’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 교불련, 〈교불련학회지〉 제19권 2호 펴내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최근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19권 2호를 펴냈다.

이번 호에는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의 ‘금강경의 정치철학적 함의 연구’ △조현춘 前경북대 교수의 ‘조계종본 금강경 교감’ △최성렬 조선대 교수의 ‘승만경의 섭수정법과 육바라밀’ △이희재 광주대 교수의 ‘8세기 서역구법승 원표의 재고찰’ △서광 스님의 ‘심리치료에서 불성’ △소운 스님의 ‘불교와 인성교육: 필요성과 특성, 그리고 방법’ 등 논문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서울 청룡사 명부전



서울 화계사 명부전 지장보살삼존상



서울 옥천암 보도각 옥천암마애좌상

## 서울지역 성보문화재 대거 ‘보물’ 지정

## 옥천암 백의관음 · 봉은사 석가삼불좌상 등 7건

서울지역 전통사찰들의 성보문화재가 대거 보물로 지정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월 13일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서울 청룡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의 서울지역 사찰 문화재 5건과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벽화’,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 달마대사벽화’의 2건 등 총 7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날 지정예고된 보물 중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奉恩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조선 후기 17세기 중후반 불교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서울 華溪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은 영철(靈哲) 스님 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지장삼존상과 함께 시왕, 판관, 사자, 인왕 등 총 25구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玉泉庵 磨崖菩薩坐像)’은 상 전면이 흰색 호분(胡粉)이 칠해져 있어 ‘백의관음(白衣觀音)’으로 불리는 5미터가 넘는 대형의 마애상이다. 사실적인 보살상의 얼굴 표현, 유려한 설법인(說法印)의 손 모양과 어깨에 드리워진 천의(天衣)의 표현 등에서 뛰어난 조각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고려 후기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서울 普陀寺 金銅菩薩坐像)’은 당시 보기 드물게 큰 규모의 금동으로 제작된 상으로 여성적 면모가 느껴지는 얼굴 표현과 착의(着衣) 형식은 국보 제22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등 조선 초기 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을 띄고 있다.

‘서울 청룡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青龍寺 石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은 지장보살삼존상을 중심으로 시왕상, 귀왕(鬼王), 판관(判官), 사자(使者), 동자, 인왕(仁王) 등이 잘 남아있어 조선 후기 명부전 구성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벽화(昌寧 觀龍寺 大雄殿 觀音菩薩壁畵)’는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에서 설법하는 관음보살(觀音菩薩)에게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법을 청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 달마대사벽화(淸道 雲門寺 大雄寶殿 觀音菩薩 · 達摩大師壁畵)’는 험준한 바위산을 배경으로 온화하고 화려한 관음보살과 호방하고 대담한 달마대사를 대비시켜 그린 작품이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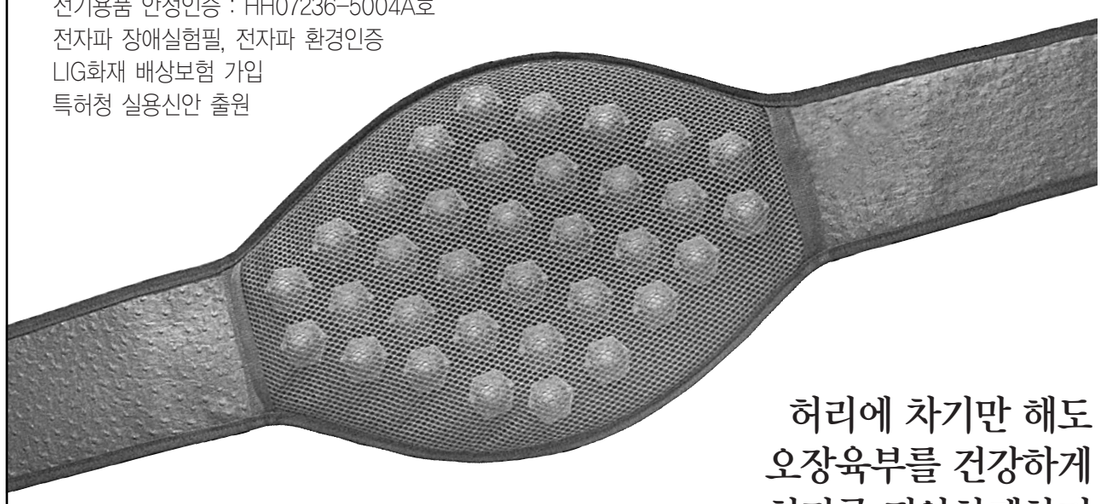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있을까

## 전남대박물관, 1월 17일 국제 학술대회 개최

천불천탑의 신비를 간직한 전남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전남대학교박물관은 화순군,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운주사의 후원으로 1월 17일 전남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천불천탑의 불가사의와 세계유산으로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천불산 다탑봉에 위치한 운주사(雲住寺)는 다양한 형태의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좌우 산등성이에 1000개의 석불과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지금은 석탑 20여 기와 석불 80여 체가 남아 있다.

전남대 박물관이 1984년부터 1991년까지 4차례 발굴조사와 2차례 학술조사를 실시했으나 운주사의 천불천탑의 조성 배경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운주사 관련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 및 운주사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늠해 보는 국제학술대회로 행사에는 △가미니 우제수리아(Gamini Wijesuriya) 국제기념물 보존 복원센터 담당자의 'Buddhist sites on the world heritage list' △짜이찌엔 북경공업대 건축대학장의 '공동유산' 이념에 근거한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연구 △황호균 전남대학교 학예연구사의 '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천불천탑의 제작 공정 복원론', △박경식 단국대 교수의 '운주사 석탑의 특수성과 보편성' △주수완 고려대 교수의 '운주사 석불상군의 미술사적 의의', △김창현 고려대 연구교수의 '운주사 천불천탑의 도교적 성격' ▷허일범 진각대학원 교수의 '운주사의 밀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에 이어 발표자와 김동수(전남대학교 교수), 최맹식(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화순 운주사는 다양한 형태의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좌우 산등성이에 1000개의 석불과 석탑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지금은 석탑 20여 기와 석불 80여 체가 남아 있다.


최혜영 전남대 박물관장이 국제학술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운주사 연구 필요성 · 가치 가늠
### 팔만대장경 이어 문화재 등재 추진
### 예술 · 사상성 등 총체적 조명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가미니 우제수리아 국제기념물 보존 복원센터 담당자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란 문화적이거나 자연적인 혹은 문화자연적인 중요성이 매우 뛰어나서 국가간 경계를 넘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도 공통으로 중요한 가치를 말한다"며,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 · 담볼라, 인도의 보드가야 · 아잔타, 네팔 룸비니 · 카투만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라오수 루랑프라방, 캄보디아 앙코르, 일본 나라, 한국 석굴암 ·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의 예를 들며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석굴암, 팔만대장경에 이어 불교문화재로 3번째 등재를 추진하는 만큼 학계의 많은 관심을 모으며 300여명의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혜영 전남대 박물관장은 "화순의 찬란한 보물, 운주사의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예술성, 사상성, 희소성, 탁월성 등의 가치를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총체적으로 살피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행사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금산사 갑오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 월주 스님, "나눔으로 사회통합에 앞장 서달라" 당부

전북지역 불교발전과 지역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가 1월 11일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거행됐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회주 도영 스님,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참석대중들은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갑오년 새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월주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보현보살의 10대원중 보개회향을 강조하며 "나눔과 베품의 이타행을 통해 국민의 행복과 평화는 확대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 경제와 정치 지도자들도 보개회향정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우 스님은 신년사에서 "각 사찰 주지 스님들과 함께 교육과 포교, 대중교화사업에 적극 임할 것이다" 며 "내실있는 교구 신도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각분야별 전문화교육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불교발전과 지역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가 1월 11일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거행됐다.

한편 남원불교신행단체 연합회는 17일 켄싱턴 리조트 연회장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했으며 군산신도연합회도 17일 오전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신년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불교문학회 동인지 '다르마' 발간

전북불교문학회(회장 이택회)가 동인지 '다르마'를 발간했다.

17번째 발간된 동인지에는 전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의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조선초기 관료들의 성리학적 정치이념과 함허선사의 현정론에 대한 연구' 중 일부인 〈간폐석 교소의〉호불성에 대한 연구를 초대석으로 꾸몄다.

강동춘 회원의 '산사의 밤' 등 22명의 시와 박근후 회원의 '첫눈의 증오' 등 7명의 수필이 수록됐다.




이밖에 청소년 모악축제 백일장에서 수상한 6명 학생의 시와 수필도 함께 실렸다.

이택회 회장은 "동인지 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원들의 노력으로 17호를 발간할수 있었다" 며 "여러차례 거론되고 있지만 전북불교 문학상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사찰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자

## 광주시, 도서관 500개 조성 목표…선덕사 불교계 유일

광주지역의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찰이 지역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개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2년부터 '작은도서관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기존 국공립 도서관외에 1000권 규모의 소규모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현재 광주시내에 300여개의 작은도서관을 설립했다.

작은도서관이란 광주형 행복복지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걸어서 10분 거리, 1000 세대 당 1개관 수준의 작은도서관 500개를 목표로 조성해 생활권 문화 · 행복 공간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360개관이 자치구에 등록됐다.

등록은 전용면적 33㎡ 이상으로 도서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을 갖추어 관련 지자체에 등록신청을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3년에 15억원의 예산으로 167개의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에는 2월에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불교계는 지난 12월 29일 개관한 선덕사 '밤실마을 사랑방과 작은도서관'이 유일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와 교회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이다.



광주불교계에는 지난 12월 19일 개관한 선덕사 '밤실마을 사랑방과 작은도서관'이 유일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돼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 선덕사 주지 원묵 스님은 "사찰의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마을의 일부가 되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은도서관은 일반 사찰에서도 쉽게 설립과 운영이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불교경전을 비롯해 사찰에서 보관중이 다양한 불교문화서적들을 한곳에 모아 작은도서관을 개설이 가능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설음식 나누기

## (사)착한 벗들, 설맞이 다문화 음식 나눔행사 개최


결혼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착한 벗들(이사장 회일)은 1월 12일 참좋은 우리절에서 지역민들과 다문화가정 200여명을 초청해 설음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자국의 설날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결혼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착한 벗들(이사장 회일)은 1월 12일 참좋은 우리절에서 지역민들과 다문화가정 200여명을 초청해 반증(베트남 떡), 쌀국수, 베트남 햄 등의 베트남 고유의 설음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착한벗들'의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행복나눔실천단은 한국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베트남에서 즐겨먹는 설날음식을 준비해 다문화가정은 물론 한국인들에게 자국의 설날 음식을 소개했다.

회일 스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고국을 떠나 외로운 생활을 하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함께 즐기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착한 벗들'의 행복나눔실천단은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활동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6월에 결성된 단체로 매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간식을 만들어주는 봉사를 펼쳐오고 있다.

한편 '착한 벗들'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국제결혼자녀들의 언어능력배양과 건전한 인성계발을 돕기 위해 전문강사진과 현직교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꿈을 찾아 떠나는 마음여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초파일 준비 광주 봉축기획단 구성

## "불교단체 · 시민들 참여형으로 행사 구상 중"

올해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불교단체와 시민들의 참여형 행사로 개최될 전망이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와 광주지역 불교단체는 1월 17일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광주전남봉축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봉축기획단' ) 첫 회의를 열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불자들이 쉽고 참여하며, 사찰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불교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열린 행사를 개최"하고, 구체적 계획수립에 착수 했다.

봉축기획단은 1~2월 기본계획마련에 이어 2월까지 각 불교단체에 공문을 통해 각 단체별로 실시하는 행사를 수집하여, 3~4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말부터 봉축탑 점등식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봉축기획단을 통해 앞으로 몇 년간 유지할 봉축행사의 기본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봉축행사에는 광주지역 사찰과 불교단체 등이 누구나 참여해, 흥겹고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봉축기획단은 17일 첫 회의에 이어 매주 1회씩 정기 회의를 갖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마련해, 2월중 불교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발표할 예정이다.

봉축기획단에는 시각 스님을 단장으로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 아도 스님(유유암)이 부단장, 재가실무자 6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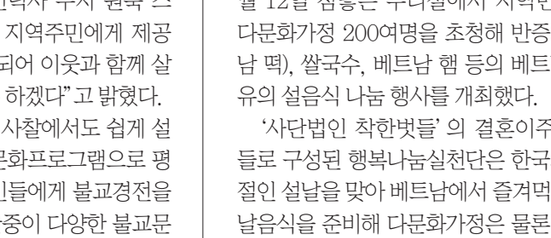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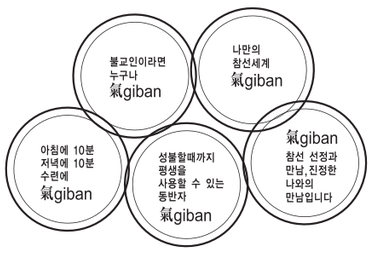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2014년 나눔·힐링으로 전법을

## 부산지역 불교단체 새해 주요사업계획 발표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2014년을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장학사업 등의 체계적인 제도정착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중점사업으로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 프로그램 · 조계종 신도회 결성과 신도들 간의 화합의 장 마련 · 조계종 사찰 운영에 대한 조계종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4월1일까지 5주간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실시되며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 3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이사장 법연, 회장 법민)는 2014년을 회원배가와 조직 안정의 해로 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에 치중한다. 따라서 현재 257개 사찰에서 500개로 회원사찰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중 핵심사업으로 상반기 6.25전몰학도병전사자를 위한 위령대재, 하반기 제2회 108고승청법대법회를 계획이다.

통도사(주지 원산)는 2014년 3대 주요사업으로 보광선원 신축불사, 요양병원 건립불사, 승가복지재단 설립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보광선원 신축불사는 현재 외부 관광객들의 소음과 방문객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선방 수좌 스님들의 수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4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요양병원건립불사는 6월부터 착공하여 7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통도사는 승가복지재단을 설립해 스님들의 장학, 의료, 연금, 노후 등 스님들의 총괄적인 복지를 실행하여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2013년 힐링사찰을 선포한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2014년은 마음살림불사의 해로 선포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수행과 나눔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베푸는 즐거움이 가득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광사는 새해 벽두부터 삼광사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지역 일대 지역민들에게 연탄 나눔 활동을 했다.


삼광사는 2014년을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불교를 선포하고 새해 벽두부터 연탄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 삼광사-소외이웃 돕기에 매진
### 대불청부산-수행하는 청년회
### 통도사-승가복지재단 설립계획

올해로 창립4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는 올해를 "수행의 즐거움이 넘치는 청년회로 목표를 정하고 53청년구법순례를 원만하게 회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53청년구법순례는 수행이 중심이 되는 청년회의 원력 속에 부산지구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2012년 9월부터 매월 2회 부산지역 53개 사찰을 순례하며 우리말금강경 독송과 법을 구하는 형식의 구법순례로 현재 33차까지 순례를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을 2014년에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나눔 대학생 자원봉사 강좌, 걷기대회, 시 · 산문 백일장 등을 진행한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올 해 개관 이래 최대의 외부 사업비 1억1천5백만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미 유치가 확정된 주요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생태체험과 환경보존 실천활동-초록물방울', '고위험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저소득 독거노인의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행복스케치', '육아용품대여점' 등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영천불교총연합회 창립법회

## 회장에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



영천불교총연합회는 1월 10일 창립법회를 열고 태관 스님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경북 영천지역에 영천불교총연합회 창립법회가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도선당에서 1월 10일 열렸다. 영천불교총연합회는 종파, 종단을 초월한 지역 사찰들이 뜻을 같이 했으며 이 자리에는 대중스님 80여 명이 동참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법화종 용화사 혜각 스님 외 영천시내에 등록된 170여각 사찰 주지스님 가운이날 동참 스님은 80여 스님의 사찰 소개가 있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가 현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날, 지역 사찰 스님들은 연대해 종단을 초월 지역주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장에는 조계종 은해사 말사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이 선출됐다. 태관 스님은 전 영천불교 사암연합회 회장역임 경험으로 단일후보로 만장일치로 영천불교총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태관 스님은 "불교의 이념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 불교의 억압된 현실문제를 한 목소리로 담아 해결하고, 불교의 시대정신에 맞는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포교에 역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단체 설립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임원단 구성, 회칙안, 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등이 거론됐으며 이는 3월경 정기총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영천불교총연합회는 지역내 젊은 인재불사로 종립학교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와 3사관 학교를 중심으로 젊은 학생,군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어 지역포교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 비구니 모임 금련회 장학금 전달

## 다문화 가정 · 새터민 등에




부처님 출가재일을 기념해 부산 비구니 스님들이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지역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금련회(회장 상화)는 1월 11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부산지역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가정의 청소년 20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총 600만원의 무지개장학금과 자비의 쌀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금련회 회장 상화스님, 전 금련회 회장 재운스님을 비롯 금련회 소속 비구니스님들이 함께했다. 상화스님은 "다른 처지, 다른 환경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역시 여러분들처럼 불편하고 고통스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여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며 출가의 의미와 함께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사회 곳곳에서 수행하고 전법하길"

## 한문불전대학원 · 운문승가대학 졸업식


국내 최대 비구니 승가 교육의 산실 운문승가대학은 1월 13일 제50회 운문승가대학 졸업식과 제2회 한문불전대학원 졸업식을 호거산 운문사 경내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스님 승가대학장 보현율원 율주 흥륜 스님, 주지 일진 스님을 비롯 이중근 청도군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문불전대학원 졸업생 5명과 운문승가대학 졸업생 39명을 배출했다. 이로써 운문사 승가대학은 지금까지 총 1855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이에 앞서 운문승가대학은 대학원장 명성 스님의 제6회 전강식 법회를 열고 서광 원법 지성 스님 등 3명의 제자 스님들에게 전통 강원의 강맥을 전하는 전강강사의 자격을 수여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훈사를 통해 "이타자리는 교학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며 "졸업생은 청안의 납자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다가가 철석같은 의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전법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지 일진 스님은 "간절한 그리움으로 수행에 힘쓴다면 번뇌를 떨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리움의 힘으로 살아가라"고인사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청암사승가대 졸업식…1월 14일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등 사부대중30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청암사(주지 상덕) 청암사승가대학(학장 지형)은 1월 14일 제28회 청암사승가대 졸업식을 경내 자양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청암승가대 및 율학승가대 7명, 제6회 청암사율학 승가대학원 6명, 제2회 청암사율학 승가대학원 연구과정 1명 등의 졸업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의료원은 향후 혜원정사 소속 스님과 신도들에게 진료편의를 제공하고, 혜원정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역의료 발전을 돕기로 상호 협약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혜원정사 부산의료원 MOU체결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스님)는 1월 15일 대웅보전에서 부산광역시의료원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20여년간 부산의료원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한 혜원정사와의 인연으로 성사됐으며, 혜원정사 주지 원허스님, 정문기 부산광역시의료원장을 비롯한 2백여

# 제 6회 동명대상 시상식 개최

##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 외 2명 수상




동명대(총장 설동근)는 1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서 동명대상 제6회 시상식을 가졌다. 통도사신도회장 고영립 화승그룹 회장(봉사부문), 남정태 유일고무(주) 회장(산업부문), 이영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공공부문)에 각각 선정됐으며 각 1천만원씩의 포상금이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설동근 동명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함께 했다.

동명대상은 '도전창의봉사' 정신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에 걸맞게 살려 공적을 쌓은 인사에 수여하는 부산을 상징하는 공익성 포상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 류병선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재연임


대구광역시 신도회 회장에 류병선씨〈사진〉가 재선임됐다. 대구광역시 신도회는 2014년 정기총회를 1월 11일 오후 삼덕동 소재 영도다움 갤러리 전시관에서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식순에 따라 의식 및 사업, 결산보고, 예산안 사업계획 심의 후 2부에는 신년회를 겸한 류병선(보광명)회장의 재임식이 진행되었다. 제9교구 대구광역시 신도회 류병선 회장은 2009년에 선임되어 2014년에 다시 연임하게 되었다.

류병선 회장은 (주)영도벨벳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지역 여성사업가다. 동화사 신도회에서는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장학회 등을 후원하면서 재선임 된 류병선 회장은 앞으로 장학재단을 임기 내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견성은 머나먼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이 책이 여러분을 정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개정판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근간)

서연 이대성 저 (00대학교수, 철학박사)

'철위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십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업력(業力),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도리천궁신통품 중에서)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옥중생을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의 인행(因行)과 서원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악업의 과보를 밝혀서 그 과보로 가게 되는 지옥의 실재를 설하고 있는 중요한 대승경전이다. 이 책은 이전 어떤 해설서와도 차원이 다른 영산불교만의 깊이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장보살님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 지장보살본원경 13품을 각 품별로 자세한 해설을 달았고, 지장경을 봉독함으로써 10선을 행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 배우고 실행하여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왜 불교인가(근간)

대현 김주영 저 (서울공대 공학박사, 대학원 초빙교수, 장영실상 수상)

저자는 '왜 불교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 진리인 영산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기존의 모든 철학 과학 종교를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철학과 과학, 종교가 태동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왔지만 오직 불교만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불교를 불완전한 반자(半字)불교로 규정하고, 기존불교를 포함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철학 과학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산불교를 만자(滿字)불교로 보고 불신론 영혼체론 생사관 수행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써 신불교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색해왔던 구도의 역정이 고스란히 배여있는 역작이다.

# 고운사 고금당의 옛 고운 빛을 만나다

## 의왕 청계사 마음따라향기법문 5차 108 선원순례

### 고운사 고금당선원 · 봉정사



고금당 선원에서 108선원순례 단원들이 좌선 삼매에 빠져있다. 추운 날씨에도 이들은 선원을 찾아 정진하는 스님들을 격려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걸망을 진 보현보살들이 금당선원 앞 계단을 내려선다. 투명한 눈빛에 잡념을 털어낸 듯한 맑은 표정을 지은 이들은 청계사를 나선 108선원 순례단원들이다. 석 달 만에 선원을 다시 찾아 나선 이들은 그동안 무엇을 얻었을까.

"선방 수좌 스님들의 공부가 잘되길 빌고, 제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기 위해 이렇게 나섰어요."

조심스레 지난 기간의 공부가 어떠했느냐 말을 건네자 한 단원은 이렇게 답한다. 지난해 선방을 찾아 나선지 다섯번째. 짧으면 짧은 순례지만 오가는 답 속에는 깊이가 느껴졌다.

이번 순례길은 의성 고운사와 안동 봉정사를 거치는 여정이었다. 고운사 고금당선원에 방부를 들인 스님들을 공양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신라 신문왕 원년에 만들어진 의성 고운사는 천년고찰임에도 찾는 이들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없는 사찰이었다. 야트막한 산봉우리 사이에 시선을 가로막는 담이 없어 건물들을 쉽게 오갈 수 있었다.

여타한 사찰은 거의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있지 않으나 유독 고운사만큼은 의성과 안동 사이에 입산한 계곡에 자리해 있다. 창건 당시 인적과 교통이 지극히 소외되고 불편하였을 것임에도 한때 366동으로 3000여 대중이 수도 정진하였다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고운사(孤雲寺)는 의상 스님이 처음 창건당시 '높이 뜬 구름' 의미의 고운사(高雲寺)라고 이름했던 것을 신라 명문장인 고운 최치원이 기거하며 고운사(孤雲寺)로 이름 붙여졌다.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승군의 전방기지로 식량을 비축하고 부상한 승병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석학으로 이름난 함홍선사가 후학을 지도할 때는 무려 500명의 대중 스님들이 수행한 도량으로 유명하다. 그 규모가 많이 쇠퇴했지만 지금도 송림은 푸르렀다.

이십 여 채가 조금 넘는 건물은 그 숲 사이를 알뜰히 둘러 자리했다. 새로이 조성한 일주문을 지나면 고운사에서 유명한 보는 이를 따라본다는 호랑이 벽화가 길손을 맞이한다. 우화루 서편에 그려진 호랑이 벽화는 자리를 옮기면 호랑이 눈이 계속 따라다닌다. 마치 "누가 내 눈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날 순례에는 문화해설사가 함께했다. 먼저 찾은 지장전에서 문화해설사는 재미있는 얘기를 건넸다. 죽어서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고운사를 다녀왔느냐?"라는 질문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다. 고운사에는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영험한 지장보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동제일지장기도도량이라는 설명에 순례단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지장전을 나와 대웅전에 들어서자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이 순례단을 맞이했다.

호성 스님은 "어리석은 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똑똑한 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100배 낫고, 똑똑한 이보다 지혜로운 이, 지혜로운 이보다 벽지불이, 벽지불보다 무심도인에게 올리는 공양이 100배 낫다는 말이 있다"며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바로 무심 도인으로 그 공덕이 지대할 것"이라고 순례단을 격려했다.

**금당선원 중 최고(古) 선원 찾아**
**호성 스님 "공덕 지대할 것" 격려**
**암 완치 단원 동행, 기쁨 함께 해**
**소지의식서 축원금 모아 나눔행 결의**

예불 후 사찰 참배를 이어갔다. 대웅전 앞마당 끝에서 오른편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금당선원 구역이다. 한국에 있는 세군데 금당선원 중 가장 오래됐다는 고금당 선원으로 원래 주불전이었던 곳을 현재 참선을 하는 선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금당선원에는 11명이 방부를 들였는데 결재 중이라 스님들의 신발만이 가지런했다. 순례단은 잠시 방선인 틈을 타 스님들의 좌복 앞에 앉아 입정에 들었다. 몇 차례 선원을 다녀서인지 이제 순례단의 모습만큼은 어느 스님 못지않았다.

선방을 나오자 정진하면 기운이 솟구쳐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진다고 입승 스님은 소개했다.

입승 법륜 스님은 "금당선원 중 첫 번째로 오래돼 고금당선원으로 불린다"며 "산의 기운이 맑고 센 곳이라 전강, 고우, 혜국, 철산 스님 등 여러 선승들이 거쳐 갔다. 근래에는 근일 스님이 조실로서 후학 지도에 나서고 계시다"고 소개했다.

고운사를 뒤로 순례단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마을로 향했다. 평소 사찰에서 공양을 하지만 이날만큼은 특별히 순례를 앞두고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단원이 대중공양을 올렸다. 순례단은 함께 식사하며 단원의 완쾌를 기뻐했다.

점심식사 이후 찾은 안동 봉정사(鳳停寺)는 고즈넉함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봉정사는 672년 의상 대사가 창건했다고도 하고 그의 제자인 능인 스님이 창건했다는 설도 있다. 봉정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극락전이 있다. 좌우로 고금당과 화엄강당이 양날개를 이루고 있어 화엄강당을 축으로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의 두 축으로 구성돼있다. 한절에 중심이 둘 있는 배치는 봉정사가 유일하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동승' '아제아제바라아제' 등의 촬영지가 되며 알음알음 알려지기 시작해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뒤 수많은 이가 찾았다니 기대가 됐다.

사찰 초입에서 순례단을 맞이한 문화해설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을 지니고 있다는 상징성이 이 절의 유서깊음을 드러내지만 무엇보다 고려 중엽의 극락전, 조선 초기 대웅전, 조선 후기 고금당과 화엄당강이 있어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고 의미를 전했다.

문화해설사의 의상 스님이 도력으로 봉황새를 만들어 날렸는데 종이 봉황이 앉은 곳이 지금의 봉정사였기에 이 곳에 절을 지어 봉정사라 했다는 설화를 듣던 순례단은 "의상 스님 화엄사상 1호점이네요"하며 활짝 웃었다.

순례를 하며 천년고찰을 찾아가보면 사찰 전체가 신축건물들로 인하여 옛 멋을 찾아보기 힘든경우가 많지만 봉정사는 고풍스런 각 시대별 건물들이 옛 단청을 간직한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함께 둘러본 봉정사에서는 각자 쓴 소원지를 태우는 소지의식이 진행됐다. 그동안의 소지의식과 달리 이날 의식에서는 축원금이 모연됐다. 순례단은 이날 모은 돈을 연말 복지관에 사용하기로 했다.

순례단 단장 성행 스님은 "향후 쌍계사, 동화사 선원에도 들릴 예정"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지속적으로 선원 순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먼지가 내리면 먼지가 쌓이듯, 비가 내리면 비가 젖듯, 자연스럽게 상을 내지 말고 정진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시공을 초월해 긴 세월을 묵묵히 얘기하는 봉정사의 모습에서 순례단은 발길을 쉬이 돌리지 못했다. 봉정사를 돌아 나오는 길 순례단의 마음을 담은 작은 돌무덤이 눈에 띄었다.

의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연 순례단 회장이 선원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다.



고금당선원 좌선 후 순례단원의 표정은 활기가 넘쳤다.



고운사에서 순례단은 육법공양을 올렸다.



향을 올리는 모습이 경건하기만 하다.



소지의식에 모인 축원금을 복지기금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Ø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5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60원(600개 이상)
정 가 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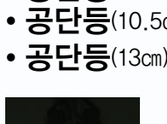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 공단등(6㎝)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3,000원 (12개이상)

• 비닐만월등(중국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90,000원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10W/5W)
@ 250원/@ 3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연잎(일반)/바림엽잎
6,000원/ 8,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 / PVC등표(100개)
20,000원 / 12,000원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新 사찰 건축

1. 동국대 법당 대각전(大覺殿)

# 새 숨결 속에 천년 시간 흐르는 '명작'

**1997. 11. 준공… 김개천 교수 설계**
**"학생들이 불교에 매력 느끼게…"**
**현대적 건물에 전통사찰 양식 융합**
**새로운 생각으로 지은 '새로운 법당'**

**"건축도 禪에서 시작할 수 있다"**
**제약적 시공 무한으로 확장시킨**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선 건축'**
**짧은 동선에 일주문·금강문 등 축약**
**98년 실내건축 부문 대상 수상**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의 하나로 인류에게 중요한 테마이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일을 '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건축이 단순히 벽돌을 쌓는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벽돌을 '어떻게 쌓는가'가 '건축'일 것이다. 건축은 '생각'의 영역인 것이다. 결국 건축은 중요한 '문화'인 것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다. 문화는 인류가 생존의 숨과 더불어 쉬는 또 하나의 숨으로, '삶'을 위해 쉬는 숨이다. 집은 인류가 생존의 숨과 삶의 숨을 쉬는 공간이기에 건축이 '어떻게'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그 건축이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짓고 가람을 조성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건축을 넘어 불사(佛事)일 것이고, 그 불사 역시 단순히 집을 올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생존의 숨과 삶의 숨, 그리고 마음의 숨을 쉬는 법당을 짓는 일이기에 그 '어떻게'의 문제는 좀 더 다양하고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국의 건축불사는 오랜 세월 전통을 고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새로운 모습의 건축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생각으로 지어진 불교 건축물들을 찾아가 본다.

### 새로운 법당의 탄생

1997년 11월 서울 동국대학교에 새로운 법당이 섰다. 당호는 대각전이다. 문화관 건물의 일부다. 문화관은 대각전과 이해랑극장, 국제선센터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다. 대각전 불사가 결정되었을 때 이미 문화관 용도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부터 지금의 대각전과 같은 법당을 지을 계획은 아니었다. 학교 측 위원회의 발의로 용도변경된 것이다. 학교 측은 현대적인 법당을 시도하고자 했다.

설계는 김개천(국민대 조형대학 스페이스건축디자인과) 교수가 맡았다. 정확히 말하면 건축물 내부의 실내 건축(디자인)을 맡았다. "학생들이 출입하는 공간이잖아요. 불교를 멋진 종교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불자가 아닌 학생들이 법당을 매력적이고 멋진 장소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전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설계를 맡은 김개천 교수는 건축적으로는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젊은이들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 무시무종의 공간

문화관 건물은 원형과 직사각형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로 대각전의 면적은 109 평이며 90주년 기념관인 이해랑예술극장 입구에서 좌우의 원형 계단을 통해 올라가게 되어있다. 현대식 건물에 전통 사찰의 건축 양식을 응용한 대각전은 한국의 사찰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 3문(門)형식을 수직적 공간으로 변형시켜 옮겨놓은 법당이다. 대각전이 현관 로비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 현관 즉, 건물 안에 들어와서 2층~3층 법당까지 오르기까지의 짧은 과정에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을 거치는 일반 산문의 구조를 축약시켜 놓았다. 표면적으로는 구조적인 '축약'이지만 결과적으론 '확장'인 것이다. 좁고 짧은 공간과 시간을 느끼기에 따라선 무한한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짧고 작은 시간과 공간 속에 천 년 숲길이 주는 입정의 시간과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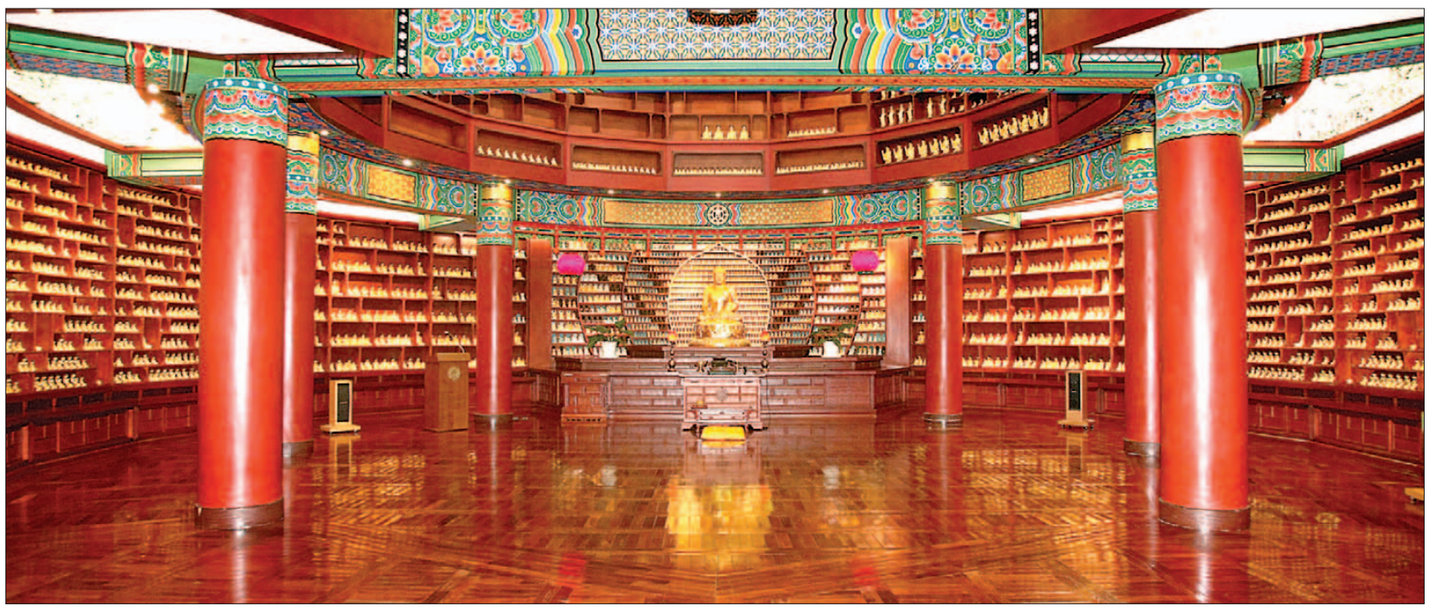
대각전은 수미산 입구를 상징하는 일주문으로서의 현관과 강당 로비를 통해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계단을 오르면 양쪽에 출입문이 있다. 사천왕문을 대신한다. 출입문 기둥에는 주련이 있다. 출입문을 열면 계단에 이르는 나무 징검다리가 있다. 마치 산사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다. 여섯 개의 나무 징검다리를 건너면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온다. 계단의 시작엔 초록색의 두 기둥이 있는데, 역시 문(門)을 형상화 한 것이다.

계단을 오르면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천장에 새겨진 꽃문양을 볼 수 있다. 보통은 법당 문살에 새겨진 꽃문양이다. 법당의 꽃살문은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대중에게 설법을 펼칠 때 내렸다는 꽃비를 형상화한 것이다. 꽃문살을 해 넣을 문이 없는 대각전은 그 꽃문살을 천장에 새긴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생각이면서 전통을 잃지 않은 부분인 것이다. 출입문의 주련을 비롯해 대각전의 모든 과정은 이와 같이 전통이 어딘가에 분명 쓰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꽃비를 맞으며 계단을 오르면 법당이다. 부처님이 바라보고 있는 법당의 뒤쪽도 여느 법당과는 많이 다르다. 여덟 개의 기둥 뒤로는 허공을 두었고, 허공 뒤엔 흰 벽을 놓았다. 김개천 교수는 이 부분에서 무시무종(無始無終)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했다. 부처님을 뵙고 뒤돌아서면 여느 법당처럼 열고 나갈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바라봄으로써 시선을 내부로 회귀시키고 부처님을 찾은 마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허공 뒤엔 흰 벽을 놓음으로서 '허공'을 확장시켜 무한의 영역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대각전은 후불탱화를 없애고 불자들이 봉안한 원불로 광배의 효과를 대신했다. 화려한 단청을 현대적으로 변형시켜 원형 천장에는 비천상을 넣었으며 단청도 기존의 원색대비를 버리고 단순화했다.

동국대 대각전은 많은 '제약'을 안고 시작한 불사다. 실내에 한정된 건축적(영역) 제약과 복합건물 가운데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장소적 제약, 그리고 불교건축에 대한 사회적 교단적 고정관념이 그것이다. 동국대 대각전은 이러한 제약을 뛰어 넘은 명작불사다.



현대식 복합 건물인 동국대 문화관 2~3층의 대각전은 후불탱화를 쓰지 않고 불자들이 봉안한 원불로 광배의 효과를 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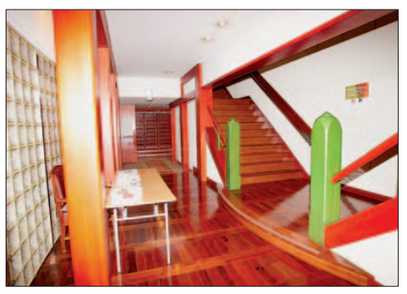
이해랑극장, 국제선센터와 함께 2~3층에 대각전이 있는 복합문화관



화려한 단청을 현대적으로 변형시켜 원형 천장에는 비천상을 넣었다.



법당으로 오르는 길에 놓은 징검다리



징검다리를 지나면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이 나온다.

### 모든 것이 처음

대각전은 모든 과정이 처음 시도된 것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법당의 개념과 전혀 다른 법당이다. 도심, 그것도 학교 안에 있는 현대식 건물이라는 점과 기존의 법당 형식을 모두 새롭게 한 것 등이 의미다. 하지만 대각전은 파격으로 지어졌으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은 전각이다. 기존의 모든 법당 형식을 새로운 형식으로 배치해서 옛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후불탱화는 천장에 그려놓았고, 꽃살문은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 위 천장에 달았다. 계단과 기둥으로 산문의 길과 문을 대신했고, 법당문 대신 무시무종의 허공을 배치했다. 새로운 해석으로 탄생하고 기존의 것들을 버리지 않은, 파격 속에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법당으로 '새로운 법당'을 제안한 건축이다.

자신의 건축이 불교의 선(禪)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 김개천 교수는 동국대 대각전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선의 건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선화, 선시 등과 같이 건축도 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몇 발작 안에 천 년 숲을 들여 놓은 불사라면 충분히 '새로운 생각'으로 지어진 건축이며, 몇 발작의 걸음과 천년의 시간이 한 곳에 머물 수 있다면 '건축' 앞에 '선'자가 붙고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대각전은 1998년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에서 대상격인 협회장상과 올해의 디자인상 실내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 위 천장엔 꽃문살을 형상화한 꽃문양이 새겨져있고 여덟 개의 기둥은 법당 뒤 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허공을 배치했다.

### 건축가 김개천 교수 인터뷰



그의 연구실에서 만난 건축가 김개천 교수는 "건축만큼 일상적인 예술도 없어요. 건축은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술이에요. 일상이 된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건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도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문화적이지 않으면 대중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이 '법문만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문도 들으러 가지만 다양한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에 가고 싶어야 하고 그러긴 위해선 절에 가서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가, 불교가 문화를 선도하고 절에 가는 일이 설레는 일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절이 아름답고 문화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의 불사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건축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김개천 교수(국민대 조형대학 스페이스건축디자인과)는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대통령 근정포상, 레드 닷 디자인어워드를 수상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동국대 대각전을 비롯해 담양 정토사, 국제선센터, 만해마을, 천안 황룡사 등이 있다.


# 불교의식(범패) 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 인재양성을 위해 '제1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과정**

- 상용의식 및 재의식 전반(시련~봉송)
- 바라무, 착복무, 법고무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다루는 법

학기중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김구해 여장스님"의 특강예정

- **교육기간** : 1년과정
- **대상** : 초심자, 전법사, 포교사
- **개강일** : 2014년 3월 5일(수요일)
- **강의시간** : 매주(수/목), 오후4시~5시30분
- **문의** : 031)907-1062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0-76, 503호 (풍동 중앙프라자B동) 청유사

한국불교 태고종 청유사 (사)고양 범패문화 예술원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펼친 근현대 선사 6인의 생생한 법거량 해설

한국 禪의 중흥조인 경허대사와 수월 · 만공 · 혜월 · 한암 · 용성선사의 사자후!

경허대사와 5대 제자 이뭣고 선지식 총서 ❶

콧구멍 없는 소 김성우 엮음 | 46판 | 218쪽 | 11,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보이는 물질이 곧 해인海印이요 들리는 소리가 곧 장경藏經이로다!

"눈뜨고 세상을 보니 우주와 내가 바로 禪" 우리 시대의 大人 성수 큰스님이 남긴 선문답과 법문

성수 대종사 선어록 이뭣고 선지식 총서 ❷

세상선世上禪 산수도山水道 김성우 엮음 | 46판 | | 319쪽 | 12,000원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화두, 간경, 염불, 보현행원 등 통불교적 수행으로 최상승선 깨닫게 한 정일선사의 사자후!

정일선사 선어록 이뭣고 선지식 총서 ❸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 엮음 엮음 | 46판 | 219쪽 | 11,000원

나고 죽는 이전의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을 묻는 근본 질문, "어디서 왔소?"

일상의 선문답으로 自性을 깨닫게 하는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큰스님의 사자후!

활안큰스님의 禪법어집 이뭣고 선지식 총서 ❹

어디서 왔소? 김성우 엮음 | 46판 | 309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한국의 구법승

2. 백제 구법의 선각자 겸익 스님

# 인도서 불경을 가져와 백제 불교 부흥



불경(佛經)을 등에 얹고 구법(求法) 여행을 떠나는 행각승(行脚僧)을 묘사한 구법승도(求法僧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병술(丙戌)년에 만들어진 백제 글이 쓰여진 기와. 겸익 스님은 백제에 율장 등을 가져와 계율을 중시하는 백제율종을 일으켜 세웠다.





〈부여읍지(扶餘邑誌)〉는 부여 대조사(大鳥寺)가 겸익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위는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구법승 중 널리 알려진 〈왕오천축국전〉의 혜초 스님이 있지만 그보다 200년 앞서 인도로 건너가 불경을 가져온 스님이 있었다. 바로 겸익(謙益) 스님이다.

겸익(謙益)스님은 백제 무령왕(501~523)과 성왕(523~554) 대에 활동한 백제 스님으로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로 인도에 가서 불교를 구해온 구법승(求法僧)이다.

백제의 불교 수용 및 발전은 신라보다 앞섰지만 사료의 빈약함으로 구체적인 모습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백제의 불교 수용과 발전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시기 직접 인도로가 구법활동을 한 겸익 스님은 백제불교 발전의 증거다.

겸익 스님은 백제 율종의 시조로 귀국 후 인도에서 가져온 계율서들을 통해 백제 불교의 새로운 장을 연 인물이다. 백제의 경우, 겸익 스님이 인도로 구법활동을 떠나기 전 100여 년 간의 사료가 드물다. 하지만 겸익 스님이 인도로 구법활동을 떠날 정도였으면 이전 백제불교의 성세가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겸익 스님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 사료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1917년 이능화(李能和) 박사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에서 인용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륵불광사사적(彌勒佛光寺事蹟)〉이 유일한 사료다.

〈미륵불광사사적〉에 따르면 겸익 스님은 백제 승려로 성왕 4년(526년)에 바닷길로 인도에 가 중인도의 상가나대율사(常伽那大律寺)에서 수학하고 인도 승려 배달다(倍達多) 삼장과 함께 아담장과 오부의 율문을 갖고 돌아와 번역함으로서 백제불교 발전에 큰 공을 세운다.

### 백제불교의 위기 속에 구법행 결심

겸익 스님이 당시 인도로 간데에는 백제불교의 위기감이 있었다. 백제는 384년 동진(東晋)에서 건너온 마라난타(摩羅難陀) 스님에 의해 불교가 도입된 이후 남조(南朝) 국가들과 교류하며 불교문화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475년 고구려 첩자였던 도림 스님이 백제 개로왕에게 접근해 백제의 정보를 고구려로 빼돌렸고, 고구려군에 의해 개로왕이 죽음을 당하는 등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다. 스님의 세작활동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이후 백제불교의 신뢰가 떨어졌으며 교단 운영의 문제점도 대두됐다. 위기에 처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를 결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역할 또한 불교계가 맡아 교단과 계율 정비의 필요성이 강해졌다.

특히 중국과 고구려 불교의 수입보다 백제 스님들의 구법활동이 필요했는데 특히 계율(戒律)을 엄정히 하며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커지며 더욱 이러한 활동이 절실했다.

사료를 보면 겸익 스님은 '율을 구하는 것을 마음으로 맹세하고(沙門謙益 矢心求律 航海以轉至中印度常伽那大律寺)' 구법활동을 떠났다. 귀국 후 경전을 번역하는 데 있어 특히 율부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구법동기에서도 율을 구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인도에서 전해진 사대광율(四大光律)이 번역돼 있었다. 동진에서 남북조 초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오부(五部) 중 사부(四部)의 율이 중국에 전해졌다고 한다.

근본유부율(根本有部律)을 제외한 이것들은 각각 번역돼 중국에서는 네 가지 광율이 확립됐다. 이 사대광율은 백제에 전해져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오부율 중 음광부의 율 및 근본유부율은 찾지 못하여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백제도 얻을 수 없었다. 당시 중국과 더불어 백제 스님들은 음광부의 율 및 근본유부율을 구하는 구법동기를 갖게 된다.

### 뱃길따라 인도 구법, 율서 갖고 귀국

〈미륵불광사사적〉에 따르면 겸익 스님은 백제 성왕 4년인 병오년에 인도에서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인도에 간 것은 526년보다 최소 10여 년 앞선 510년대로 추정된다.

겸익 스님은 배를 타고 인도로 간 것으로 보인다. 백제에서 양나라로 배를 타고 간 후, 다시 인도로 가는 코스는 당시에 이미 개척된 상태였다. 백제는 543년 부남(扶南, 캄보디아)과 교역한 바 있고, 554년에는 왜국에 보낸 물품 가운데 북인도 지방에서 산출되는 양모를 주성분으로 하는 탑등(taptan)이 포함된 것에서 보듯, 해양활동이 활발했다.

〈삼국사기〉를 보면 무령왕대 조공기록은 단 2건으로 무령왕 12년(512) 및 21년(521)에 각각 양나라에 조공사를 파견하고 있다. 따라서 겸익이 5년 이상 구법활동을 했다는 전제 하에 526년 귀국했으므로 무령왕 12년(512)에 출발한 조공사절단의 배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도 구법승 추앙**
**정확한 사료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중인도서 '계율' 공부, 백제 율종 세워**
**백제불교 계율생활화운동 전개 토대**

인도에 도착한 겸익 스님은 중인도의 상가나대율사에서 산스크리트어를 5년간 익히고 율부(律部)를 전공했다.

겸익 스님은 인도 승려 배달다삼장(倍達多三藏)과 함께 〈아비담장(阿毘曇藏)〉과 〈오부율(五部律)〉 문헌을 가지고 백제에 귀국했다. 〈아비담장〉은 삼장(三藏 – 경장, 율장, 논장) 가운데 경장(經藏)과 율장(律藏)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논장(論藏)이다. 당시 인도의 여러 부파(部派)의 특성을 잘 말해주는 논(論)을 구해왔다는 것은, 불교 최신 이론을 백제에 도입한 것이다.

### 귀국 후 역경사업 앞장, 백제율종 시조

그의 귀국 후 활동으로 주목되는 것은 역경작업이었는데 이는 국가차원의 사업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귀국하자, 백제 성왕이 직접 성문 밖으로 나와서 의장을 갖추고 북과 피리를 불며 성대한 환영 행사로 그를 맞이했다고 한다.

성왕은 겸익 스님에게 안주할 절을 제공했고, 이곳에서 그는 범본 72권을 왕실 및 국가의 후원으로 배달다삼장과 백제 승려 28명과 함께 역경사업에 매진했다. 특히 역경된 경전 중 설일체유부의 논장과 율장으로 생각되는 〈비담〉과 〈신율〉은 성왕이 직접 그 서문을 쓰고, 태요전에 보관할 만큼 불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의의가 컸다. 〈미륵불광사사적〉에는 담욱(曇旭)과 혜인(惠仁) 스님이 율부에 대한 주석에 해당하는 소(疎) 36권을 써서 왕에게 바치자, 성왕이 번역된 새로운 율(新律)에 서문을 쓰고 태요전에 보관했으나, 이를 널리 보급하지는 못했다고 전해진다.

겸익 스님이 주도한 역경사업은 성왕 재위 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결과 백제 불교는 더욱 융성해졌다. 백제는 중국에서 수입한 불교가 아닌, 인도 불교를 직접 배우게 된 것이다.

### 일본에 계율 전해, 비구니 계 전파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겸익 스님이 가져온 불경과 번역본은 현재 전해져 오지 않고 있다. 그와 관련된 기록도 〈미륵불광사사적(彌勒佛光寺事蹟)〉, 충남 부여군 성흥산(聖興山)에 위치한 대조사(大鳥寺)에 겸익 스님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오는 정도다. 그가 언제 태어나고 입적했는지 또한 알 수 없다.

하지만 겸익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백제승들의 구법활동은 단지 선진적인 불교를 배워 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본에 전하는 전법활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계율불교는 일본에 전해질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러 일본 계율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백제에서는 최초로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는데 성왕 31년(554년)에는 일본으로 승려들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에서는 율사를 파견해 일본 계율불교의 기초를 다지기도 하였다. 위덕왕 35년(588년)에는 일본 최초의 비구니 스님들이 백제에 직접 와서 계법을 배우고 계를 받아 일본으로 돌아갔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법왕 1년(599) 12월 살생금지령(令)을 내려 민가에서 기르는 매를 방생하게 하고 어렵(漁獵)의 도구도 모두 불사르게 하였다.

당시 살생금지령은 자비(慈悲)와 계(戒)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정신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계율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것이었다. 확대해 보자면 백제불교가 법왕 대에 이르러서는 범국민적인 계율생활화 운동을 전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보면 백제불교가 법왕 대에 이르러 비로소 대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겸익 스님이 귀국한 제26대 성왕 대부터 백제불교는 계율 강화를 기치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높여온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법왕 대의 살생금지령인 것이다. 백제시대 불교에 대해 보다 정확한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겸익 스님의 인도 구법활동과 그가 귀국 후 활동한 모습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 "보고 듣고 맛보는 이놈은 뭣꼬"

## 철야정진법문 ②



철야정진에 참여해 참선중인 어린중학생을 대견해 하시던 생전의 백봉김기추 거사

요새는 눈이 보는 거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마 이 방 중에도 한 여남은 명 있을 거여. 아는 사람. 한 이십 명 있을 겁니다.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그러나 눈을 빌어서 보긴 봐. 보지 않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눈에는 자체지가 없습니다. 자체지. 자체의 지혜가 없어요. 거울 역할은 합니다. 이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엔 견성도 이만 저만한 견성 안 하고는 이거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여러분 알거든요. 눈에 자체 지혜가 없어. 눈도 이거 하나 적혈구 백혈구 그거로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거울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귀에 자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 혓바닥, 자체 지혜가 없습니다. 자체 지혜가 없지만은 맛을 봐. 야, 이거 이상타. 맛보는 건 뭣꼬? 요새는 압니다. 그렇다면은 자체 지혜가 없는 눈, 보는 것. 자체 지혜가 없는 귀, 듣는 것. 자체 지혜가 없는 맛보는 거, 다른 것 다 그렇습니다. 대체 이 놈이 뭣이냐 말이여. 있긴 있거든. 있긴 있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 않나? 내가 본다 내가 맛본다 이러지만 그 내라는 놈은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여. 뭣을 내라 하느냐 말이여.

그러나 요새는 이걸 압니다.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방편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말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아는 사람의 방편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모르는 사람의 방편, 같아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니 만약 이 세 가지의 요소, 참말로 견성을 완전히 했다면 환히 아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까지 내가 속았구나. 아, 눈이라는 건 자체 지혜가 없구나. 말 맞거든.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 귀도 이거 자체 지혜가 없구나. 의사가 환히 압니다. 뭐뭐 하더라도 사람의 몸뚱이에 대해서 환히 아는 것은 의삽니다. 혓바닥에 자체 지혜가 없다.

그러면 맛보고 보고 듣는 이 놈은 뭣꼬. 의심이 날 수밖에는. 그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도 하고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별별 말로 말해봅니다만 이걸 곧이 안 들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러면 대개 중생들이 섭섭한 모양이라. 뭣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여. 그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 하면 신(信)이 안 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시시로 변하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 할 때, 시작할 때와 지금과, 지금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이 변하는 걸 걷어잡고 이걸 내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그

> **내가 '보고 듣고 맛본다' 하나 몸뚱이에는 자체지혜가 없어 빛깔 · 소리 · 냄새 없는 자리가 마음 · 성품이며 절대성 지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하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든지 여러분에게 내가 아는 정도 전부 말했어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는 건 문제 밖입니다. 눈에 자체성이 있다 이래도 좋습니다. 귀에 자체성이 있다 이래도 좋습니다. 혓바닥에 자체지가 있다 이래도 좋습니다.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몸뚱어리 전체로 봐서 자체 지혜가 없습니다. 유정물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좋아요. 그렇게 밖에 말할 도리가 없거든요. 다만 이걸 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거 그거는 딴 자립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립니다. 자,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 선생 말과 마찬가지로 대승으로 가든 소승으로 가든, 지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알아. 알면은 또 딴짓 하고 돌아다니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하니 이전 어른들이 공부할 때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수단과 방편을 달리 해서 우리도 공부하자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눈이라는 건 자체 지혜가 없구나. 이거 빤한 거 아니에요? 석가세존이 오시더라 해도 이 이상 더 설법 안 됩니다. 빤한 것이거든. 귀라는 건 자체의 지혜가 없구나 이거 빤히 아는 것 아니에요? 혓바닥이라는 건 자체의 지혜가 없구나. 그러니까 몸뚱이 자체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변하는 거라. 법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 그럼 이거 내 것 아니거든. 이걸 내 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말이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지.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닌 이 몸뚱이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 말이지. 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절대성자리, 그 자리거든요. 지혜자리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설명이 필요 없어. 이거 알아버리면, 앞으로 내가 얘기할 것이 좀 있는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벌써 견성했어요.

견성, 뭣이 견성입니까? 성품을 본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오뉴월에 이 몸뚱이를, 이 무정물을, 다시 말하자면 무정물이라 합시다. 무정물을 끌고 여기 왔다 말이여. 철야정진 하러 왔다 말이여.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본래 양심에 돌아감이 '지심귀명례'

4-1. 귀경례(歸敬禮)

그리고 이는 신심(信心)의 극(極)을 표시하는 말이다. 믿는 마음의 극상(極上)을 표시하여 귀명(歸命)이라고 한다. 신하가 임금을 안 믿으면 신하 노릇도 안 된다. 부부간에도 친구사이에도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다. 신(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그러므로 신의(信義) 즉 믿는 마음의 극을 표시하는 데는 오직 귀명을 끌어온다.

그런데 돌아가는 바의 일심(一心)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그것은 삼보(三寶)이다. 밝고 바르고 사이 좋은 평화로운 그곳, 광명(光明)과 정대(正大)와 화합(和合)의 그 절대적인 자리에다 우리의 목숨을 돌이켜 놓는다. 이 목숨을 돌이킨다는 말 가운데에는 그것이 첫 번째이면서 설상 두 번째라는 뜻이 들어 있다. 이를테면 환원지의(還源之義)가 들어 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우리 중생(衆生)은 눈과, 귀와, 코와, 맛을 아는 설근(舌根)과 촉각으로서 신근(身根)과, 의식 작용하는 의(意) 즉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육근(六根)을 가지고 있으며 이 육근은 한 마음으로 좇아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육근은 항용 그 근원되는 마음과는 등지는, 배반하는 일이 많다. 좋은 것을 보면 탐심이 생기고 귀에 솔깃한 소리를 들으면 그리로 쏠리고 구수한 냄새를 맡으면 그만 혀가 동한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자기 본 마음과는 늘 배치되는 행동을 하기 일쑤이다. 치산육진(馳散六塵)이라는 것이다.

육진(六塵)은 육근의 대상으로서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여섯가지다. 눈으로 보는 대상은 색(色), 귀의 대상은 소리, 코의 대상은 후각으로 맡는 냄새, 혀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각(觸覺)을 의(意)로는 삼스카라(Samskeeres)인 무릇 만들어진 개념에 얽매이게 된다.

옥을 보면 갖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흘리고, 맛을 보고 싶고, 아름다움에 빠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기울어지고, 이렇듯 육진에 자꾸 치산(馳散)해서 한정없이 흩어져 돌아다닌다. 얽매이고 끄들려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궁리를 하고 허둥거린다. 그러므로 이런 저런 잡동사니 허튼 생각일랑 다 버리고 본래 일심(一心)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며 이를 환원지의(還源之義)가 있다고 하고 귀명(歸命)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하는 것은 목숨을 돌이켜 가장 높으신 어른, 부처님께 나의 이 목숨을 바치나이다 하는 소리가 되지만 그 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자기 본래의 양심에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기의 지성스런 생각을 낸다는 것은 자기 내부의 지성스런 자리에 돌아가 있다는 소리가 되며 그래야만 의의가 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 귀명(歸命)하는 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범부(凡夫)에서 비롯하여 성인(聖人)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는 제각기 여섯가지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고함질러 우는 것이 힘이다. 무조건하고 억지를 부려 울어대어야 모든 일이 된다.

여자는 바가지 긁는 것이 힘이다. 성질을 내어 포독 포독 쏘아붙일라치면 남자는 그만 바가지 소리가 귀찮아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준다. 바라문(婆羅門), 공부하는 사람은 참는 것이 힘이다. 모든 일을 항상 신중히 생각해서 하되 다른 사람보다 아주 내 몸을 낮추어서 말한다.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이 힘이 된다.

왕은 버티는 것이 힘이다. 거만하게 턱

> **"지극히 목숨 돌이켜 절합니다" 믿는 마음 극상표시가 '귀명' 돌아가는 '一心' 삼보에 두는 광명 · 정대 · 화합의 절대 자리**

버티고 도사리고 앉아 있어야 그 위엄에 억눌려 모든 일이 명령대로 된다. 정치하는 자들은 세력을 모아 가지고 버티고 앉아서는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써 능사를 삼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아라한(阿羅漢), 학자는 정진(精進)하는 것이 힘이다. 전문적으로 연구에 모든 힘을 기울여 오로지 정진할 따름인 것이다.

부처님은 사랑의 대자비(大慈悲)로써 힘을 삼는다. 이렇듯 지심귀명(至心歸命)이 제각기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오직 부처님만을 대은교주(大恩敎主), 사생자부(四生慈父), 삼계대사(三界大師)로 받들어 모시는 까닭은 그가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시기 때문이다.

삼계(三界)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이름이다. 욕계는 현실의 물질세계(物質世界), 색계는 준이상세계(準理想世界), 무색계는 이상세계(理想世界)다. 부처님은 이 삼계의 큰 스승이었다. 사생(四生)이란 인도 사상으로 생물의 태어나는 양상을 네가지로 분류한 것. 태란습화(胎卵濕化)로 나누었는데, 물론 오늘날 생물학의 분류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지만, 약기(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태생(胎生)은 어머니의 태(胎)로서 분만되는 형태, 난생(卵生)은 알로서 태어나는 것, 습생(濕生)은 시궁창의 질척 질척한 습기 속에서 벌레며 박테리아등속이 생겨나는 것, 화생(化生)은 이끼며 곰팡이 등이 화해서 돋아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은 이 사생의 자비스런 아버지시기도 하다. 아등본사(我等本師)는 우리의 근본 스승이시라는 것.

불(佛)은 각행(行覺)이 궁만자재(窮滿自在)한 분을 이르는 말이다. 깨달은 행동이 자유 자재하여 꽉 찼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색용(色用)을 칭찬해서 오근(五根)이 서로 잘 쓰이고 십신(十身)이 서로 잘 짜이어서 자재(自在)롭다는 것인데 오근호용(五根互用)은 열반경(涅槃經)의 팔자재(八自在)를 설명하는 글 가운데 나오고, 십신상작(十身相作)은 화엄경(華嚴經)의 십지품(十地品)에서 말하였다. 이렇듯 우리가 칭탄하는 불(佛)이란 그가 깨달았다든지, 깨쳤다든지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함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망녕된 생각을 떠난 것을 말함이다. 망녕되어 허둥지둥하는 그런 것은 미(迷)해 있는 상태며, 이와는 달리 그 지혜(智慧)스럽고 덕화(德化)있는 것이, 조금도 암영(暗影)이나 어두운 구석이라곤 없이 눈부신 광명(光明)이 두루 비치어 변조법계(遍照法界)해서 우주의 어느 곳에나 다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며, 또한 이것이 평등하여 둘이 아니고 그자재가 항상 큰 지혜의 광명을 발한다는 것을 각(覺)이라고 하며 깨쳤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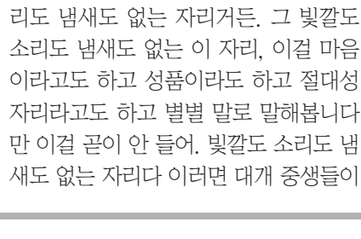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갑오년 새해 첫 무료보시 단행

- 법당엠프 일절 설치주문시 ➡ 무선마이크 1셋트 추가 무료보시
- 법당전용스피커만 주문시 ➡ 고급 YD-675 마이크 무료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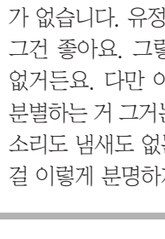
**(무료 보시 기간 : 2014년 1월 29일 까지 주문분에 한함)**
위 기간내 주문하실 경우 실제 설치는 2월 중에도 설치 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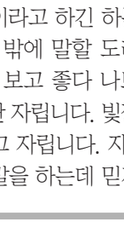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모든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이 될 것입니다!!**

(보시품으로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립니다)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 • •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 • •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성능
지 향 성 : 단일 지향성
주파수특성 : 50-14.000Hz
대 응 강 도 : -35±1dB
출력 임피던스 : 500옴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발 송 : 입금 후 주소를 Fax나 문자로 주시면 3일 이내에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주문처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TEL 02)2697-9976 / FAX 02)2601-8284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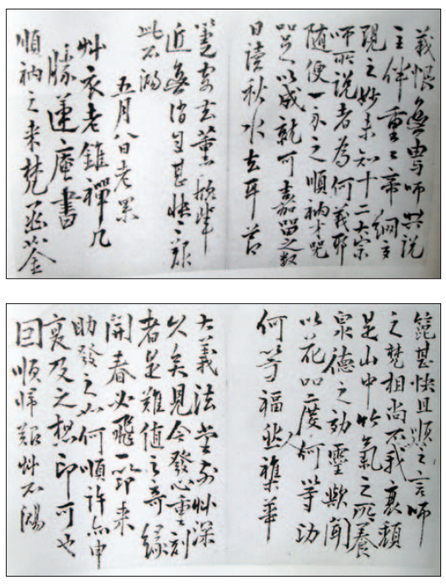
# 편지받고 "눈이 환해지듯 상쾌"

추사의 이 편지는 1854년 4월에 보낸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이다. 이 편지를 살펴보니 과천으로 찾아온 순 스님 편에 초의의 편지를 받은 추사는 뛰듯이 기뻤던지 '눈이 환하게 밝아지듯'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하였다. 이는 초의의 편지를 받은 후,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인 듯, 경쾌해진 그의 감회를 이리 표현한 것이다. '金 (금비)'란 무엇일까. 이는 금으로 만든 젓가락이다. 고대 인도에서 맹인의 안막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전한다. 불가에서는 맹인의 가린 막을 금비로 제거하듯, 중생의 무지한 막을 말끔히 제거해 준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과천 시절 불교에 몰입했던 추사의 일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초의노추의 선궤에게, 승연암에서 쓰다.

순 승려가 오면서 (가져온)그대의 편지는 눈이 환하게 밝아지듯 매우 상쾌합니다. 또 순의 말로는 그대의 모습이 오히려 나처럼 늙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산중의 대나무 (맑은)기운이 원천의 덕을 길러 준 효험이 신령해서인가. 듣자니 화엄으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은 어떤 공덕이며, 어떤 복인가. 그러나 화엄의 큰 뜻은 법당 앞 우거진 풀에 머문 지 오래입니다. 지금 드러난 발심을 깊이 새긴 것은 만나기 어려운 기이한 인연입니다. 봄이 되면 반드시 지팡이를 휘날리며 오셔서 발심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거듭 오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인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순이 돌아간다기에 나오지 않는 글을 억지로 씁니다. 나머지는 이만 1854년 4월 5일 노과(艸衣老錐禪 几, 勝蓮庵書

順衲之來 梵函如金 甚快 且順之言 師之梵相



응송 스님이 소장했던 추사 친필 사진 도판.

尙不如我衰頹 是山中竹氣之所養泉德之œG靈歟 聞以花嚴度人 何等功何等福 然褦華大義 法堂前艸深久矣 見今發心重刻者 是難値之奇緣 開春必飛一笻 來 助發之如何 順許亦申復及之 想印可也 因順歸 艱艸不 溺 姑不宣 甲寅 四月 五日老果)

이 편지는 원래 응송 스님이 소장했던 사진판 자료이다. 추사의 나이, 69세 되던 해에 보낸 편지로, 아끼는 벗, 초의를 노추(老錐)라 불렀다는 점이 흥미롭다. 노추는 노고추(老古錐)의 준말로, 초의의 수행이 오래 수행하여 그 선기(禪機)가 송곳처럼 날카롭고 예민하다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초의를 한껏 높여 부른 말이라 여겨진다. 또 피봉에 '승연암(勝蓮庵)에서 쓰다' 라고 하였다. 과천 시절 그가 살던 집의 당호(堂號)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 당호는 이 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승연' 이란 그의 호는 1850년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도 사용한 바 있고, 백파의 법손 설두(雪竇:1824~1889)에게 써준 '백벽(百蘗)' 에도 썼다.

따라서 추사 자신은 이미 속진의 고통을 벗어나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불학과 수행에 몰두했던 그의 과천 시절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던 시기였음이 확인된다. 이미 늙어 버린 추사였지만 동갑의 초의는 오히려 '나처럼 늙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바로 '산중의 대나무 (맑은)기운이 원천의 덕을 길러 준 효험이 신령해서인가' 라고 놀린다. 특별히 대나무를 아꼈던 초의는 〈종죽(種竹)〉을 지어 '(대나무의)비고 곧음엔 지극한 이치를 품었고/ 바르고 꼿꼿함은 천기를 잡았다' 고 노래했다. 이어 '무서리가 한번이라도 내리면/ 초목들은 모두 떨어지지만/ 무성한 기개 더욱 굳세고/ 푸릇푸릇한 대나무 빛 점점 더 푸르네' 고 말했다.

초의가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엔 일지암에서 내려와 새로 지은 대광명전에서 수행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대광명전 초입에 들어서면 울창한 대나무 군락이 장관이다. 이 대밭은 초의가 조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광명전 뜰 앞의 대나무는 초의의 선기를 닮았는지 지금도 푸른 기상을 드날리며, 곧게 서 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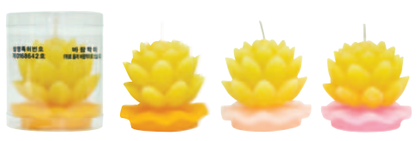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육각초 7.0ϕ× 34



밀납연화 小 7ϕ× 6.5㎝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연화 大 9.5ϕ× 11㎝, 연화 中 9ϕ× 10㎝, 연화 小 7ϕ× 6.5㎝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10년 후 내다보는 안목 불교 미래 좌우하죠"

지현 스님 (경북 봉화 청량사 주지)

눈이 오는 일요일 오전 어린이법회를 준비하는 주지 스님은 산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이들이 과연 눈길을 걸어 올 수는 있을까? 오늘은 안 되겠지? 그냥 혼자서 법당을 지켜야 할 거야' 스님은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스님이 발길을 돌리려고 할 즈음 산길을 걸어올라 오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내를 건너고 산길을 타고 1시간 거리의 눈길을 헤치고 어린이법회에 온 아이들은 어느새 성큼 스님 앞에 다가와 안기며 반가움을 표한다. 스님은 눈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아이들의 정성에 감동해 눈물이 날 지경이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이야기다. 스님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신 미소를 머금는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소임을 맡으면서도 매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어린이 법회를 위해 청량사로 향할 만큼 어린이법회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 성인이 올라가기에도 가파른 산길의 경북 봉화 청량사에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찾아와 북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린이 포교가 곧 불교의 미래라고 말하는 지현 스님의 큰 원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논산 관촉사, 영화사 등의 어린이법회를 맡던 중 1984년 청량사 주지로 부임해 주민들과 함께 이룬 불사의 기적에서 시작해 스님은 불교계 산사음악회의 포문을 연 장본인이며 어린이법회를 통해 지역사찰 포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다.

### 산골 절에 어린이들이 북적

청량사 어린이 법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안동 영주에서 모인 아이들이다. 먼 길이지만 아이들은 일요일 법회만 기다릴 정도로 청량사에 오는 날이 신난다. "안동에 있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법회를 오려면 아침 8시 30분 차를 타야해요. 1시간 버스를 타고 내를 건너고 산을 타는 시간이 또 1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절에 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해요."

그렇다면 청량사 어린이법회에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법문은 짧게 하고 어린이 합창단 합주부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거리는 물론 스님과 함께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님이 고민까지 들어주며 상담해주니 아이들은 절에 오는 일이 신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이 법문을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3분 내지 5분만에 법문을 마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놀이거리를 제공해주니 모두 즐거워하죠. 또 아이들의 이름을 빨리 외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죠. 신상카드도 기록해 처음 절에 올 때 입었던 옷이며 얼굴 표정도 기록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몇 달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죠. 처음에 얼굴이 어두웠던 아이들도 법회에 나오면서 많이 밝아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결국 어린이법회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이 어린이법회를 청량사 안에서 활성화시킨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그전까지 영주의 불교회관으로 스님이 직접 찾아가 어린이법회를 열었다. 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찰내 일요어린이 법회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인근 주변의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친구들까지 데려오면서 일요일 어린이법회는 청량사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절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니 학부모들도 아이들 따라 절에 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에 스님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청량다회를 만들어 아이들이 법회를 보는 동안 학부모들은 교양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니 대부분의 농촌지역 사찰이 노보살님으로 가득찬 것과는 비교되게 청량사의 일요일은 활기가 넘친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밴드까지 결성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성인 7인조 밴드 둥근소리와 어린이 4인조 밴드 꼬마풍경을 창단해 안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첫 데뷔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스님은 결국 어린이포교는 20년 후를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20여년 전부터 영주의 불교회관에서 출장 법회를 시작했어요. 절이 산에 있어 아이들이 오기 힘들겠다 싶어 영주까지 어린이 법회를 보러 다녔죠. 그때 애들이 지금은 장년이 되어 대학 졸업하고 결혼도 하면서 현재는 우리 어린이법회 후원자가 됐어요. 장학금도 주고 나들이 비용도 챙겨주는 등 열심이죠. 어린이법회를 나온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어 취업해 불전함에 보시하기까지는 20년이 걸린다고 보면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아이들이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가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결국 어린이 포교는 우리 불교의 미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주민들과 함께 이룬 청량사 중건

스님은 1984년 청량사 주지로 부임했다. 조선시대 청량사는 정선 겸재의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경관이 수려한 유서 깊은 절이었다. 하지만 스님이 부임할 즈음 청량사는 초라했다. 비가 새는 법당에 슬라브 지붕 덮인 요사체가 전부였다.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이불 한 채, 쌀 한 말을 지고 올라갔다.

하지만 어떻게 불사를 해야할지 또 신도들에게 포교를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일단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고추도 함께 따고 풀베기도 거들었다. 또 어떤날은 아이들을 경운기로 실어와 함께 놀고 해지면 데려다 주기도 했다. 마을로 내려가 마을회관에서 출장 법회를 열기도 했다. 스무 명이 산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스님 혼자 내려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스님은 정기법회 때마다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신도들이 농사일 마치고 저녁 먹고 씻고 나오면 밤 9시였다. 스님이 법회를 마치고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절에 들어가면 밤 12시가 넘었다.

이렇게 스님은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며 포교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산 중턱에 있는 절의 불사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이런 스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는 다름아닌 다리가 불편했던 노보살이었다. 그녀는 너무 절에 오고 싶었던 나머지 손자의 등에 업혀서 10년만에 절에 온 것이다. 절에 오자마자 2시간 염불을 하며 법당에 앉아 기도를 하더니 고쟁이 속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 넣어두었던 것을 한 장 한 장 꺼내니 모두가 13만원이었다. 스님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10억보다 더 큰 돈이었어요. 얼마나 절에 오고 싶었으면 그 돈을 그렇게 꼬깃꼬깃 모아 놓았을까 너무 감동을 했죠. 그 길로 사두었던 목재와 기와를 산으로 올리는 일부터 시작했죠."

그간 불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산 아래서 헌집이 헐리면서 나온 기와와 나무를 사놓았지만 절까지 올릴 수가 없었다. 스님은 노보살의 보시금으로 주민들에게 500원을 줄테니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오전 오후에 두 번씩 기와와 목재를 나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돈을 받고 불사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마을 사업이 되자 주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자재들을 나르니 보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서울 총무원 소임 맡으면서도**
**일요일 어린이법회 직접 진행**
**합주부 합창단 밴드 등 인기**
**학부모 모임 청량다회도 결성**

**1984년 청량사 주지로 부임**
**마을주민들과 함께 불사 완성**
**찾아가는 마을회관 법회 진행**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 만들고자**
**2001년 청량사 산사음악회 시작**
**1만 관중 모이는 지역 최고 축제로**





지현 스님은 어린이 포교가 불교의 미래라고 강조한다. 사진 왼쪽은 현재 청량사 어린이 법회 장면. 오른쪽은 1994년 영주불교회관 어린이 법회 시절.



**지현 스님**은 … 1971년 법종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 문화사업단장과 총무부장, 12대~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000년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좋은벗 풍경소리 총재, 이웃을 돕는 사람들 대표이사, 경불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총 도감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가장 큰 공헌을 한 특공대 부대 5명 보살님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불사를 도왔죠. 지금은 70, 80대인 보살님들인데 현재 세 분만 남으셨어요. 그분들에게는 얼마전에 수계를 해드렸죠."

**화제의 산사 음악회를 열다**

이렇게 불사도 포교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스님은 또다른 사업 하나를 구상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청량사 산사음악회였다. 2001년 '천년의 속삭임-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을 시작으로 현재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행사가 청량사 산사음악회다. 지금은 산사음악회라는 말이 흔하게 쓰였지만 당시만 해도 절에서 대규모 음악회를 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도심사찰에서도 열기 힘든 음악회인데 봉화 산중턱의 절 청량사에서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하지만 지현 스님에게는 가능했다.

"그동안 불교가 너무 받기만 했잖아요. 산중불교에서 대중불교로 거듭나기 위해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 하다가 산사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대중과 호흡하는 사찰 그리고 산사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였죠. 하지만 시작을 하니 또 도와주는 이들이 생기더라고요."

평소 알고 지내던 소리꾼 장사익 씨와 이종만 풍경소리 기획실장 등의 도움을 받아 음악회를 기획했다. '청량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을 만들어 공연 전반에 대한 구성은 이종만 실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홍보팀을 꾸려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뿌렸다. 이렇게 무대를 펼치니 3000명이 모였다. 첫 해 초대가수는 장사익, 한영애, 안치환이었다.

"정말 반응이 대단했어요. 당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이후 공연팀 홍보팀 음향팀 등을 만들어 행사를 기획하고 공연이 끝나면 음향 홍보 조명 가수 등 항목을 정해 그해 음악회를 철저히 평가해 다음 공연에 반영을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관중들과 호흡하지 못하면 다시는 부르지 않을 만큼 평가는 냉정해요. 매년마다 주제를 정해 새로운 공연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청량사 산사음악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해마다 1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지역 최고의 축제가 되었다. 인근 봉성면 축제 때보다 산사음악회 때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더 성황을 이룬다고 하니 청량사산사음악회는 이제 지역 최고의 축제가 된 것이다. 또한 사찰에서 시작한 행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가고 있는 것은 물론, 모 대학 교수는 축제 성공 사례의 예로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논문에 실을 만큼 지역축제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저희 축제에 오신 분이 청량사가 아름답다고만 생각하고 가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들에게 늘 새로운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량사 음악회 또한 대중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며 불교 포교를 위한 또다른 방편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불교의 이미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40년전에는 촛불 하나 들고 마을을 돌아다녀도 축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불교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죠."

현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총 도감을 맡아 1주일에 한번씩 서울의 조계종총무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지현 스님. 이렇게 종단의 소임을 맡고 있는 가운데에도 스님은 늘 새로운 포교를 구상한다. 대중의 고통과 번뇌를 해결해주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우리 불교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10년 후에 불교의 모습을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불교가 사회흐름에 뒤쳐지고 토속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현재 10년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절에 특히 농촌 사찰에는 올 신도가 없어요. 앞으로 사찰 중심의 농촌살리기 운동을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처럼 스님은 늘 세상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스님은 연구한다. 대중들의 고민을 또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주어야 할지를 말이다. 그래서 스님은 산골 오지 마을에서도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포교를 통해 대중들 속에 함께 숨 쉬고 있는 것이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01년 시작된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매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 최대의 축제다. 사진 왼쪽은 산사음악회 전경. 오른쪽은 음악회 준비중인 스님.

전법일기

# 'healing' 은 'hearing' 에서 부터

군종장교에게 주어진 임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활동이 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필자가 살고 있는 전방 철책부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 네 가지 활동을 골고루 균형 잡기가 힘들다. 전방부대에서는 선도활동과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선도활동 중에서도 상담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이다.

얼마 전에 적응이 어려워 GOP에서 하강하게 된 병사를 상담하였다. 들어보니 너무 잘하려고 의욕이 앞서서 선후임간 마찰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해 내려오게 된 것이었다.

부대로 찾아가 그 병사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병사는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병사는 부대 내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상담이란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며 진단과 조언, 해결방안의 제시는 그 다음 문제이다. 결국 사람이 먼저라는 이야기이다. 상담자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부터 사회에서 '힐링' 이라는 용어가 화두로 자리하고 있는데 'healing' 은 'hearing' 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듣기' 는 단순히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담에다가 종교인으로서의 진솔한 조언과 종교적 가르침을 더할 때 진정한 듣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간부나 상담관과 구별되는 군종장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전문적인 기법이나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확고한 전제이자 명제인, '상대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기' 를 머릿속에 꼭꼭 심어놓고 상담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림 · 박구원

개인상담 못지않게 집단상담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군종장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대규모 인성교육이 아닌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교육시간에는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시도했다. 인성교육과 집단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본 것이다. 지난해 10월 GOP에 투입되는 대대의 이등병과 일병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입동기들끼리 20명씩 조를 편성하여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이런 상담이 어찌 보면 단순한 작업일 수 있고 피로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다. 집단상담을 통해 중요한 철책근무를 하기 전에 전입 동기들끼리 충분히 서로에 대해 알 수 있고 서로의 고민을 인지하고 전방에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힘든 군 생활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고 다른 전우들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로해 주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들어주기는 동등한 사람 대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장교 신분이라 해서 병사친구들의 고민을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문제' 로서 인지하고 듣는 다 자연스럽고 진지한 이야기 나눔이 어려울 것이다.

군대도 당연히 사람 사는 곳이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곳이다. 철책부대도 과학화가 되고 있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조직, 어느 사회보다 사람이 중요한 곳이 바로 군대다. 이곳 전방부대에는 밝고 행복하게 지내는 용사들도 많은 반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다. 힘들어하는 용사들은 여러 부류가 있지만 결국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불교가 지향하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며, 어디서든 자신이 사람이고 주인공이라는 가르침을 늘 기억하게 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군종법사임에 한없이 자긍심을 느낀다. 그래서 언제나 되뇌인다. '군대도 결국 사람이다.'



이 지면을 빌어 철책을 지키는 모든 장병들이 오늘도 두려움 없이 건강히 생활 잘 하기를 기원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여정 군승 법사(5사단 사령부 광복통일사)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각 종단 종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 탁 - 혜 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명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종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

# 아일랜드 불교, 16세기에서 시원 찾아야

## 로렌스 콕스 교수 『Buddhism and Ireland』서 밝혀
## 스스로 선택한 '자생 불교' … 2011년 기준 불교도 8,703명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시인)나 제임스 조이스(소설가) 같은 세계적인 문인들을 조명할 때, 잠깐 언급되는 '아일랜드와 불교.' 그러나 아일랜드 불교에 대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각공 백과사전류에서는 유럽 불교를 '이민자 중심의 불교' 로 기술하고 있지만, 아일랜드의 불교도 과연 그럴까.

〈아일리쉬 타임즈(The Irish Times)〉지는 16일 로렌스 콕스(Laurence Cox ·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Maynooth) 교수의 연구서 〈Buddhism and Ireland〉를 인용, "아일랜드의 불교는 유럽 다른 나라의 불교와는 다르게 출발했다"고 언급하고, "현재도 이민자 중심의 불교가 아닌 아일랜드인 중심의 불교 공동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콕스 교수에 따르면 16세기를 기점으로 아일랜드 외교관들과 선원들의 사적인 기록과 예수회 소속 아일랜드 수사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불교를 언급한 대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871년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조사에도 '불교' 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최초의 공식적인 언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은 각 나라의 중간 관리자로 아일랜드 사람을 적극 파견했다는 사료도 많다.

〈아일리쉬 타임즈〉지는 콕스 교수의 이 같은 설명에 주목, "아일랜드 불교는 이주민 중심의 불교가 아닌 아일랜드인 스스로 교화 과정을 밟은 불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당시 아시아로 건너가 불교를 체험했던 외교관, 선원, 수사들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 불교의 사유를 전하면서 아일랜드의 불교가 태동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 불교는 기독교보다 더욱 오래된 종교이자,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적인 종교' 로 자리매김

### 세속화 되지 않은 불교 명상 인기
### 박물관에서는 불교 전시 열리고
### 광고 카피는 불교 경전 자주 인용

해왔다"고 덧붙인 〈아일리쉬 타임즈〉지는 "아일랜드 인기 스포츠인 경마에 등장하는 말 이름을 불교 용어로 짓고, 광고 · 영화 · 소설 등에서도 자주 불교 경전 구절이 인용되며, 박물관 전시실에서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회가 마련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아일랜드 불교는 이제 아일랜드인 개개인에게 다가서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이스의 대표작 〈율리시스〉의 결말에 나오는 '몰리 블룸(Molly Bloom)의 독백' 의 울림은 더욱 커져가고, 아일랜드의 국립


벨파스트(Belfast) 지역에 설립된 티벳 명상 센터에서 벨파스트 거리에서 진행한 거리 명상 모습

박물관 입구에 봉안된 미얀마 불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아일리쉬 타임즈〉지에 따르면, 동시대 아일랜드 불교는 '명상' , '의식' , '독서' , '관람'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도심에 세워진 '불교 명상 센터' 에서 삼삼오오 모여 명상을 배우며 실수하는가하면, 불자로서 불교 의식도 진행하며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일랜드에서는 불교와 기독교 모두 명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아일랜드 사람들은 불교 명상에 더 끌리고 있다' 는 것이다. 〈아일리쉬 타임즈〉지는 "불교의 명상은 세속화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덕목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풀이했다.

또한 "아일랜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박물관 등에서 불교미술품을 관람하면서도 신심의 영역을 키운다"고 지적한 〈아일리쉬 타임즈〉지는 "이들 중에는 불교 의식을 재현하는 소규모 모임을 결성, 운영하는 이들도 있다"고 덧붙이고, "현재 이민자 불교 공동체 역시 '불교 의식' 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호 교류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 아일랜드 불교는 급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아일랜드 인구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불교인구는 8,7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 화마로 소실된 티베트 불교 유산

## 中 원난성 '고대 불교 마을' · 쓰촨성 '불교 아카데미' 화마로 피해 입어



연이어 중국에서 일어난 화재. 대상지는 공교롭게도 불교 관련 지역이다.

중국의 원난성과 쓰촨성에서 각각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티베트 불교 유산이 크게 훼손됐다.

〈인도 타임즈〉는 12일 "중국 원난성 남서부에 위치한 샹그릴라(Shangri-La)의 고대 불교 마을이 소실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고대 불교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9시간 동안 240여 채의 티베트 가옥을 태우고 진화됐지만, 가옥 대부분 고대 티베트 건축 방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듀크종(Dukezong)', 일명 '달의 도시(Town of the Moon)' 로 불리는 이곳은 해발 3200여 미터에 위치한 고대 티베트 불교 마을로 무려 130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원난성 지방정부는 "이번 화재의 원인에서 '방화' 나 '파괴' 를 배제하고 있다"며 "마을의 좁은 골목길과 자갈길 등이 조속한 화재 진압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티베트 자치구와 중국 쓰촨성 사이의 까르제(Kardze) 지역에서 10일 화재가 발생해 '티벳 불교 연구소' 의 연구동과 기숙동 100여 채가 소실됐다"고 〈자유 아시아 라디오(Radio Free Asia, 이하 RF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 누전이나 램프 과열로 10일 오후 8시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화재로 불교 아카데미의 주요 강당인 라룽 갈(Larung Gar) 건물 등 연구 및 주거동 100여 채를 태웠다.

쓰촨성 지방정부는 "쓰촨성 경찰과 구조대 450여 명을 헬기 등으로 투입했으나, 대부분의 건물들이 목재로 지어져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쓰촨성 지방정부는 "2명의 비구니 스님이 화상을 입고 인근 도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뿐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화재가 발생한 까르제 지역은 해발 4,000여 미터에 위치한 티베트 불교계 최대 규모의 불교 아카데미로, 1980년 이후 크게 번성해 현재 1,000여 명의 스님들이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른 경율론 삼장을 배우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불교가 재즈 인생에 영감이 됐죠"

## 재즈피아니스트 허비 행콕, 美 하버드서 재즈와 불교 강의


재즈 거장 허비 행콕(Herbie Hancock)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시학 교수로 임용됐다. 행콕은 봄 학기부터 불교와 재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워싱턴포스트, 브렛 하트먼)

불교신자로 알려진 재즈피아노의 거장 허비 행콕(Herbie Hancock)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가 된다. 이번 봄 학기부터 시학(詩學) 교수(Professor of Poetry)로 교단에 설 행콕은 재즈윤리학(Ethics of Jazz)이라는 과목으로 6차례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 74살이 되는 행콕은 재즈와 불교의 조화로운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의는 프로페셔널한 전문 음악가로서의 경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그는 "나 자신만의 온전한 경험을 살려 불교와 창조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는 나를 표현하는 흥미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콕은 "재즈의 핵심은 인간의 영혼을 완성시켜주고 자기 표현의 새로운 길을 찾게 해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불교를 믿음으로써 매일의 삶이 변화된다던 그는 이런 측면에서 불교와 재즈는 서로 상통한다고도 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왔다는 것은 그가 줄곧 이야기해온 바다.

허비 행콕은 11살 때 이미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을 만큼 피아노에 있어 천재적인 인물이다.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 마일즈 데이비스 퀸텟(5인조 연주그룹)을 거쳐 재즈 락 퓨전밴드인 헤드헌터와 VSOP에서 활동하며 음악적 지평을 넓혔다. 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법같은 연주"였다고 회상한 베이시스트 버스터 윌리엄스의 즉흥연주를 듣게 된 행콕은 윌리엄스가 당시 염불에서 음악적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행콕 또한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후 불교는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불교가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불교 수행을 하며 몇 가지 체득한 것이 있다. 그 중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던 사실은 내가 뮤지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음악은 내가 하는 일일 뿐이지 음악가로서의 허비 행콕은 내가 아니다. 진정한 나를 정의한다면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인간이 된다는 의미는 뮤지션이 된다는 것, 아버지, 남편, 이웃, 시민, 아프리카계 미

### 염불에 영감받은 즉흥 연주에 감동
### 불교수행 통해 창조적 음악 선보여
### 재즈와 불교의 본질 닮아 있어

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아우른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 내가 존재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행콕이 지난 반 세기 동안 음악 역사에 새긴 공로는 최고의 아티스트에게만 수여하는 그래미상을 총 14번이나 받았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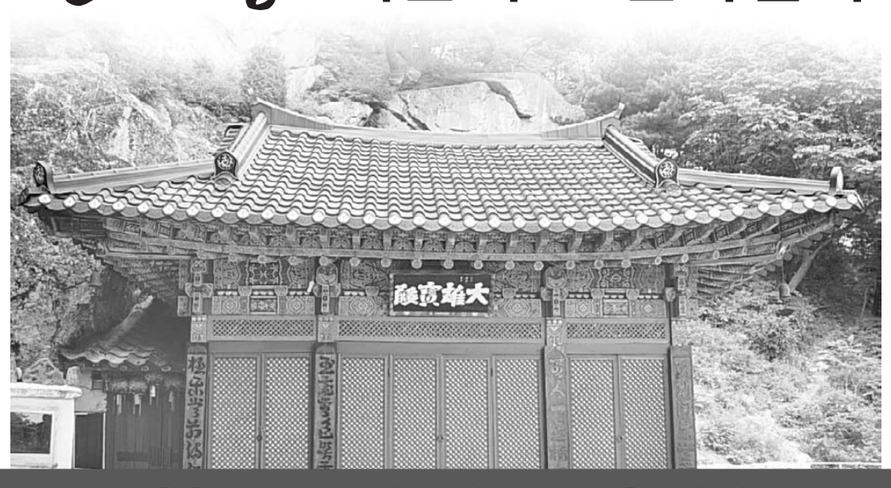
강의를 개설한 호미 바하바 교수는 "허비 행콕을 하버드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가 음악사에 세운 공로는 예술이 우리 의식을 깨우는 새로운 방식을 알렸다는 데 있다"고 하버드로 행콕을 초청한 이유를 밝혔다.

주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들을 명예교수로 위촉했던 하버드대의 역대 시학 교수로는 금세기 최고 시인으로 꼽히는 T.S 엘리엇, 로버트 프로스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과 작곡가 존 케이지 등이 있다.

행콕은 지난 해 11월 한국에서 내한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베현진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생활속에 만나는 부처님 말씀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법구경
그 귀한 가르침을 법과에 담았습니다.
과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귀한 가르침.

2014년 설날, 신도들과 함께
그 참된 뜻을 기리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 법과란?

BUDDHA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는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법과전용 포장지에 포장되어 나가며
**법과**안에는 법구경의 지혜로움이 적혀있는 슬립지가 있습니다.



쿠키



포장지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 법과의 효과

BUDDHA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 법과 슬립지

BUDDHA




[앞면예시]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내용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뒷면예시]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 법구경이
각각 다른디자인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법과 法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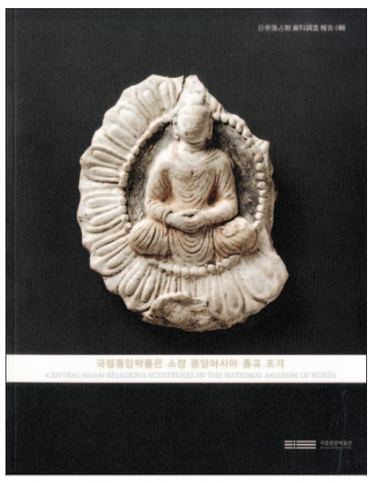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국박 〈중앙아시아 종교 조각편〉 발간

## 日오타니 고즈이 중앙아시아 탐험대 수집품 수록



국립박물관은 중앙아시아의 불교 조각 등을 모은 자료집 〈중앙아시아의 종교 조각〉을 간행했다. 그림은 책 표지.

중앙아시아 불교조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2013년 한 해 동안 박물관의 학예연구직원들이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정리 · 분석한 연구 보고서(2책)와 정기간행물(3책)을 간행했다. 그 중 〈중앙아시아 종교 조각편〉 보고서는 불교 사원에 안치되거나 그 내부를 장식했던 종교 조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자료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소장품에 대한 전면적 조사의 성과를 담은 것으로, 2013년 봄 발간된 〈중앙아시아 종교 회화편〉 에 이은 두 번째 자료집이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유물은 20세기 초 일본의 승려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1948)가 조직한 중앙아시아 탐험대의 수집품이기도 하다.

당시 수집된 유물은 일본으로 옮겨졌지만, 1914년 오타니가 니시혼간지(西本願寺)의 문주(門主)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다. 일부 유물은 고베에 위치한 오타니의 별장 니라쿠소(二樂莊)에 보관되어 있다가 별장을 인수한 구하라 후사노스케(久原房之助, 1869-1965)가 이를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기증했다. 1916년 우리나라에 반입된 오타니의 수집품은 광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어 현재까지 학계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종교 조각으로 분류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앙아시아 소장품은 대부분 작은 단편이어서 그동안 벽화나 무덤 출토품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본 자료집은 기존에 알려진 일부 소장품과 다수의 미공개 소장품을 함께 소개하여 향후 연구의 기반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수록된 유물은 총 735점으로, 토제 725점, 목제 6점, 금속제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불교 사원에 안치되거나 그 내부를 장식했던 유물로, 현재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의 투루판, 쿠차, 호탄, 그리고 간쑤성(甘肅省)의 둔황에서 출토된 것이다.

자료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학술적, 조형적으로 주목되는 85점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새로운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제2장은 과학적인 분석으로 소조상 34점과 금동불 3점에 대한 현미경 관찰, X선을 이용한 광학적 조사, X선형광분석,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를 수록하여 역사적, 미술사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제1장에 수록되지 않은 나머지 유물을 형식적으로 분류하여 정리, 제시했으며, 기존의 관련 정보와 더불어 새로운 출토지 추정 내용을 함께 수록했다.

한편,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산천 지리와 도성의 경관을 소개한 〈조선시대 지도와 회화〉 보고서도 간행했다.

정혜숙 기자

# 자비의 마음 나누는 평화의 선율

## 피리 연주가 나왕케촉 데뷔 25주년 기념 음반 발매

신비롭고 영적인 선율로 영혼을 깨우는 피리 연주가 나왕 케촉의 데뷔 25주년 기념 2CD베스트 앨범이 콘텐츠코리아에서 나왔다. 힐링과 명상, 티베트의 영적인 문화유산이 담겨있는 그의 음악은 세계적으로 7백만 장이 팔리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앨범에는 그간 발매된 9장의 음반에서 엄선된 불멸의 힐링명상곡 베스트 22곡과 3곡의 신곡이 포함되어 있다.

앨범에는 티베트 출신 및 서양의 최고 뮤지션들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북미 인디언 대나무 피리연주의 세계 최고 거장인 카를로스 나카이, 세계적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피터 케이터, 그래미상 수상자인 첼리스트 데이비드 달링 등 전세계 명상음악계의 최고거장들과 콜라보레이션한 힐링명상곡도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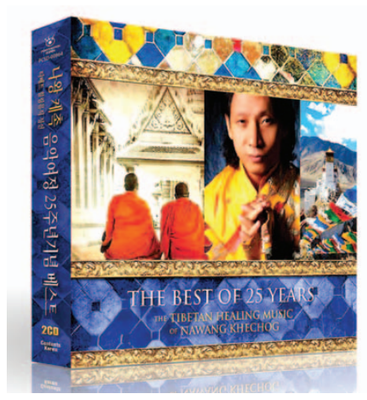
또한 이번 앨범에서는 티베트와 북미 인디언 대나무 피리, 둥첸, 티베트 울림명상 주발, 타블라, 다마루, 팅샤, 딜부, 디저리두, 샴뽀냐, 마림바, 우드, 젬베, 봄보, 카우벨,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퍼커션, 신디사이저 등 동서양 혹은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악기연주와 챈팅이 절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몇 개의 곡들은 순수 연주곡으로 솔로와 듀오 또는 여러 뮤지션들과 콜라보레이션한 곡이다. 그리고 몇 곡은 나왕 케촉이 챈팅한 곡이며, 2곡은 달라이 라마의 리드 챈팅을 따라 수천 명의 의식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장엄한 챈팅곡이다.

서로를 영혼의 형제라 부르며 류시화 시인은 그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귀를 통해 존재까지 관통하는 그의 피리 곡은 티베트 고원의 심오한 풍경이 그려지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속삭이는 숨결에서 영적 깊이가 느껴진다. 입술 속에 수많은 작은 새들을 숨겨 놓은 것처럼 신비롭고 자유로운 그의 연주는 한순간에 우리를 깊은 고요로 인도한다."



피리 연주가 나왕케촉은 1988년 데뷔 이후 힐링과 명상을 담은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평화의 소리를 전해왔다.

**7백만장 팔리며 큰 사랑 받아온**
**9장 음반 베스트곡과 신곡 실어**
**서양 최고 뮤지션들 함께 작업**
**연민과 헌신의 신성한 사랑 구현**




9개의 음반에서 엄선한 데뷔 25주년 베스트 음반이 콘텐츠코리아에서 발매됐다.

선(禪)수행을 한 미국의 부르크린대학 석좌교수이자 시인인 알랜 긴스버그(Allen Ginsberg)는 "나왕 케촉이 가진 희귀한 음악적 재능과 창의성에 대해 전통적인 티베트의 명상수행과 마음수련의 결과"라며 "그의 음악은 선적이어서 부처님의 대기설법처럼 청중의 근기에 알맞게 자발적으로 연주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그의 음악에는 자비, 친절, 사랑, 헌신, 평화, 행복과 사명에 대한 영적 진실성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음악연주자를 초월하는 중요한 그 무엇으로 신성한 사명, 영적인 연민과 헌신이 담긴 신성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마음 고요와 평화의 소리, 선율과 리듬이 되어 온 세상에 번져나가 우리들에게 살아서 숨쉬는 힐링명상곡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자유 티베트(Free Tibet)와 이 세상에 평화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염원하며 노래한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티베트 자유와 평화 알리는 지구촌 대사 나왕케촉



나왕 케촉은 1988년 1집 '사운드 오브 피스' 앨범으로 데뷔했다.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한 그는 오선지 위에 작곡하거나 악보를 보며 연주한 적이 없으며, 이미 연주한 곡을 다시 연주할 땐 마음만 정하면 자연적으로 재현이 될 만큼 천부적 재능을 지녔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월 '사운드 오브 피스(1988)' '리듬 오브 피스(1989)' '콰이어트 마인드(1991)' 등 초창기 앨범을 엮은 3CD 앨범이 발매되기도 했다.

지난 25년 동안 그는 전세계에 티베트 음악을 널리 전파하고, 자신의 음악을 통해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알리는 지구촌 대사로서 칭송 받고 있다. 우리의 아리랑 선율에 바탕을 둔 명상곡 'Universal Compassion', 세계명상음악계 최고거장들과의 콜라보 연주와 챈팅, 신비하고 영성적인 하이 톤의 여성 보컬의 허밍이 환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곡들로 그는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00년 첫 방한한 그는 KBS홀 평화콘서트에 참여했으며 MBC수요예술무대(2002), 평화의 소리 콘서트(2004), 나왕케촉 초청공연(2005년), 화계사 세계평화 단풍음악회(2007), 월정사산사음악회(2010) 등에 참여했다. 2013년에는 동국대 석전 박한영 스님 축제 '가을 힐링콘서트' 와 대원사 나왕케촉 초청 템플스테이 등에서 함께했다. 2104년에는 자서전 한국어 번역본 발간을 기념해 5월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 '경전에서 만나는 극락, 불화전'

## 3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경전 속 삽화형태로 그려진 불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이 경전에 실린 불화를 모아 전시를 개최한다.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열리는 '경전에서 만나는 극락, 불화전' 에는 총 47권의 책이 전시된다. 〈묘법연화경〉 〈금강반야바라밀경변상〉 등에 실린 불교의식, 석가 일대기 등 불교 관련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불교경전에 실린 불보살의 모습 뿐 아니라 수호신, 불경 속 교훈적 장면을 묘사한 그림, 부처님의 행적을 설명하는 그림 등 목판에 새겨 찍은 경판화 위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전시중인 〈묘법연화경〉

배현진 기자

# 청화 대종사 추모 선서화전

##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1월 27일까지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는 1월 27일까지 무주당 청화 대종사 열반 10주기를 추모하는 '고월 박경순 선 서화(禪書畵) 초대전' 을 연다. 이번 전시는 서울 진주 전남 순천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리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박경순 작가는 청화 스님의 법문과 열반송, 발원문, 관음찬 등을 그림과 서예로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청화 스님 친필 서예 작품 3점도 함께 전시된다. 스승인 한국화가 아산 조방원 선생과의 인연으로 청화 스님을 친견하고 존경해왔던 박 씨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한다. "일반 전시하고는 달라서 작가로서 작품을 쓰는 마음자세가 남달랐어요. 큰스님의 선시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썼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작업하는 동안에도 큰스님의 선시 내용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청화 스님의 '게송' 을 옮긴 박경순 작가의 작품.

박경순 작가는 원광대 대학원 서예학과 북경 어언대학을 졸업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연특선, 국전 초대작가, 전국여성 휘호대회 최고상을 수상했다. (062)383-0107

정혜숙 기자

#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

## 1월 24일 마산 아트센터서

영종불교회관 주지 자명 스님이 기획, 제작한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 가 1월 24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센터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자명 스님은 불교음악과 전통 국악, 그리고 현대적 예술 장르가 결합된 무대를 선보인다. 출연진으로는 자명 스님과 춤꾼 하유 스님, 국창 박윤정 교수, 젊은 국악인 정남훈(예술감독), 시노래 낭송가 김차경 등과 소리코리아 예술단원들이 함께한다. 공연료는 무료다. 010-9343-3001




문화

# 향토적 정서·禪 화폭에 담으면 동서양 초월한 곡선의 미학 탄생

## 유럽 전시서 '거장' 호칭 받은 불자 화백 임무상 씨

지난 7월 파리 셀렉티브 화랑에서 초대전을 연 임무상 작가는 현지에서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셀렉티브 화랑은 그의 그림에서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임무상의 화풍에서 우리는 그 어떤 폭력성이나 절규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회화적인 면에서나 창조의 면에서나 그 어떤 주장도 펼치지 않는다. 대신 화가 임무상은 대상을 관찰하고, 느끼며 그리고 내면적으로 감응하고 있다. 이런 그의 특성은 커다란 겸손이라는 특징과 더불어, 화폭 위에다 자연에 대한 엄청난 마법을 만들어 놓는다"

불자 화백 임무상 씨는 지난 2013년 한 해가 너무나 특별했다. 7월 파리와 12월 이태리 전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작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향토적 민족적 정서를 그림에 녹여 동서양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창출한 임무상 화백을 만나봤다.

"제 그림은 자연에서 나오는 연분, 흙, 벼룻돌 등 천연염료를 주재료로 해요. 이런 재료를 통해 자연의 삼라만상을 담아내죠. 그래서 제 그림이 향토적 정서와 불교의 선 등 동양적 정서가 묻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점들이 유럽인들에게는 매우 신선하고 독특하게 다가갔다고 봅니다."

이렇듯 임 씨의 작품은 민족의 감성과 정서를 담은 곡선공동체 미학에서 탄생했다. "초가집 등 삶의 터전에서부터 무덤까지 곡선문화권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은 둥글고 완만한 곡선미의 운치에 동화돼 있다고 봐요. 아마도 지리적 풍토와 자연환경에서 이런 문화가 빚어졌겠죠. 제 작품은 전반적으로 곡선문화에 대한 예찬과 내재된 공동체정신과의 함수관계를 재해석한 수묵의 모더니즘이 담겨 있습니다."


임무상 화백은 매일 천수경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자신의 하루를 연다. 이런 신행활동이 그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

### 천연재료 이용한 염료로
### 민족정서 담은 작품 표현
### 유럽 관람객들에게 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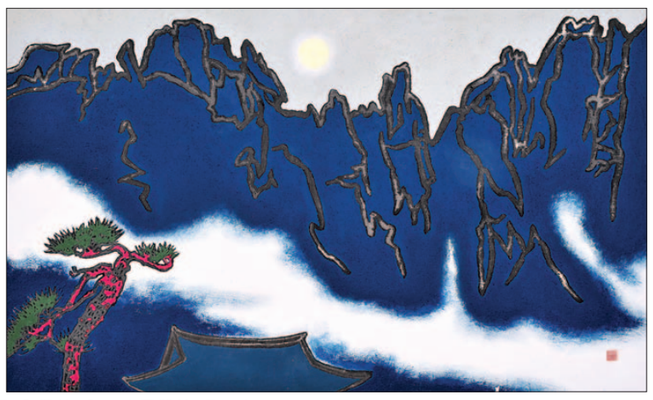
그래서 그의 곡선은 굽이굽이진 산천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초가와 기와, 도자기, 한복의 흐르는 선, 버선모양, 장구모양은 물론 심지어는 묘지 형태에서까지 그 곡선의 미학을 이끌어 온다.

1941년 생으로 70이 넘은 노장이 꾸준히 작품활동은 물론 해외전시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외고 지장기도를 한다. 이런 규칙적인 신행생활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작품 세계를 더 깊게 해주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 안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대학을 다니며 동국대 장충식 교수의 〈피안으로 가는 언덕〉을 읽으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신실한 불자가 됐죠. 기도는 20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가족과 친지 세상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원을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 그림 속에 모두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일기를 쓰고 있는 것도 저와 제 작품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해외 활동을 펼치겠다는 임무상 작가는 올해 중국 베이징 전시를 앞두고 있다. "저는 지난 한 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 작품이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파리 무대에 설 수 있었고 이태리까지 가면서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성과를 아는 이들이 드물어요. 앞으로 국가나 기업들이 글로벌 아티스트에 대한 후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좀더 많은 작가들이 국제무대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삼강 임무상(林茂相) 화백은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1991년 첫 개인전(롯데미술관)을 시작으로 열한 번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중앙미술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등 300여 회의 주요 그룹전 및 초대전과 한국미술세계화전(LA, New York, Paris), 한류 4인의 개성전(일본), 한국미술12인 초대전(독일), 취리히아트페어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했다. 지난해 파리 셀렉티브와 이태리 아타시마 갤러리에서 전시해를 열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향토적 정서와 선의 정신을 작품에 반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림 왼쪽은 '염', 오른쪽은 '달마산미황사'

# 누각은 높고 종소리 하늘에서 퍼지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④ 주세붕과 부석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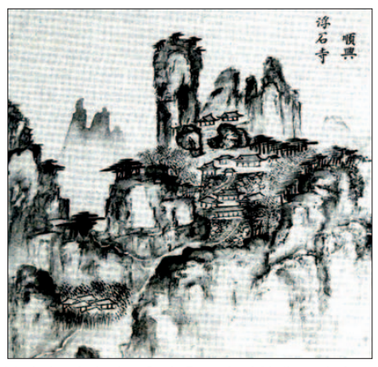



사진 오른쪽은 겸재정선의 교남명승첩에 그려진 부석사, 사진 왼쪽은 순흥 소수서원에 모셔진 주세붕 영정.

### 아득한 시간 속 공덕의 도량

산사에서 읊은 선비들의 시는 풍경의 묘사와 인생의 이야기를 반연 시키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시는 예나 지금이나 고도의 상징이다. 풍경의 묘사가 단순히 자연 풍경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의취(意趣)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시를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석천년사(浮石千年寺)
평임학가산(平臨鶴駕山)
누거운우상(樓居雲雨上)
종동두우간(鐘動斗牛間)
고목분하형( 木分河 )
개암종옥한(開巖種玉閒)
비관탐불숙(非關貪佛宿)
소쇄각망환(瀟 却忘還)

**천년의 절 부석사**
**평야가 학가산에 임했네.**
**누각은 구름과 비 보다 높고**
**종소리는 두우 사이로 울려 퍼진다.**
**깎아 만든 나무로 나뉜 강은 아득하고**
**트인 절벽에서 한가로이 옥을 심네.**
**불교에 탐닉하여서가 아니라**
**시원하여 돌아감을 잊노라.**
–주세붕 '부석사' 〈무릉잡고〉원집 3권

주세붕은 이 오언절구를 통해 부석사의 긴 시간을 더듬고 있다. 수련(首聯)이라 분류하는 1구와 2구에서는 천년 고찰 부석사가 드넓은 지경(地境)을 배경으로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조망하는 세상은 참으로 무궁하여 병풍 같은 소백의 연봉과 아스라한 산 너울들이 끝이 없다. 학가산은 안동의 진산을 이루는 산인데 높이가 해발 882미터다.

이 시에서 말하는 누각은 취원루일 것이다. 중생계를 굽어보는 누각을 구름과 비보다 높다고 표현한 것은 형상으로서의 누각의 높이라기보다는 부석사의 존귀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누각은 구름과 비보다 높고 종소리는 두우(斗牛) 사이로 울려 퍼진다고 했다. 동양의 천문학에서 별자리를 28숙(宿)으로 나누는데 그 8번과 9번에 해당하는 별이 각각 두성과 우성이다. 그러므로 종소리가 두우 사이로 울려 퍼진다는 것은 하늘높이 울려 퍼진다는 것이다. 시인은 이 함련( 聯)의 두 구절에 누각과 종소리를 제재로 부석사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에 등장하는 '깎아 만든 나무'는 앞의 학가산과 관련이 있다. 학가산에는 봉정사(鳳停寺)가 있다.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은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함께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꼽힌다. 이 봉정사의 창건자가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이다. 의상대사는 부석사를 창건하고 나무를 깎아 봉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늘로 날려 보내서 나무 봉황이 내려앉은 자리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봉정사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인은 지금 멀리 학가산이 조망되는 풍경을 보면서 이 절을 처음 지은 의상 대사의 행적을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다음에 '트인 절벽에서 한가로이 옥을 심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옥을 심는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고사다. 한(漢) 나라 때의 효자 양공옹백(楊公雍伯)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무종산에 장사 지냈는데, 그곳은 척박하여 물이 없는 곳이었다. 그는 우물을 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품에서 옥돌 한 덩어리를 꺼내 주며 "땅에 심으면 아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는 옥돌을 땅에 심었는데 옥돌이 다섯 덩어리로 늘어나 그것으로 아내를 얻었다는 이야기다.

주세붕이 이 고사를 인용한 것은 좋은 인연을 심는 절집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의상 대사와 선묘낭자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떠올린 것일 수도 있겠다. 어느 것이든 주세붕은 이 경련(頸聯)에서 의상대사의 고사를 통해 부석사의 아름다움과 사찰로서의 가치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풍경 속에 숨은 뜻

그러나 주세붕은 미련(尾聯)에서 유학자로서의 자신은 불교에 탐닉해서가 아니라 시원하여 혹은 풍경이 좋아 돌아갈 줄 모른다고 시의 매듭을 짓는다. 선비로서의 입장이 분명한 셈인데 그의 다른 시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십일수리궐(十日愁離闕)
삼산희입루(三山喜入樓)
건곤포만상(乾坤包萬象)
호해속고주(湖海屬孤舟)
빈안유지절(賓雁猶知節)
농부이실추(農夫已失秋)
자참분합로(自慙分陝老)
하이교서추(何以敎西 )

**열흘 동안 근심스런 대궐을 떠나**
**삼산에서 기쁘게 누각에 들었도다.**
**하늘과 땅은 만 가지 형상을 감사 안았고**
**호수와 바다는 외로운 배에 붙였도다.**
**오는 기러기는 오히려 절기를 알건마는**
**농부는 이미 가을을 잃어 버렸네.**
**스스로 두메산골 늙은이 신분을 부끄러워하니**
**어찌해서 서쪽마을을 가르치리오?**
–주세붕 '취원루, 하봉상의 시에 차운하다' 〈무릉잡고〉 별집 제4권

주세붕은 열흘 휴가를 얻어 부석사에 들렀던 것 같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쁘게 '삼산'의 누각에 들었다. 삼산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산(영주산 봉래산 방장산)이니 부석사가 있는 봉황산이 태백과 소백의 양백지간에 자리한 봉황산에 있다는 점을 그렇게 표현한 듯하다. 부석사를 찾은 주세붕은 가을의 정취를 설명하며 자신의 늙음을 성찰해 보는데, '어찌해서 불교(서쪽마을: 西 )를 가르치리오?' 라고 말한다.

이 마지막 구절은 성리학자인 자신이 이미 늙어 도학(道學)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함이 부끄러운데 어찌 불교를 가르치겠는가 하는 반문이다. 그렇다고 주세붕이 부석사를 풍경으로만 본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풍경 속에 진실이 있고 시를 통해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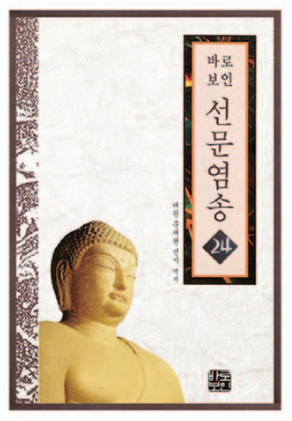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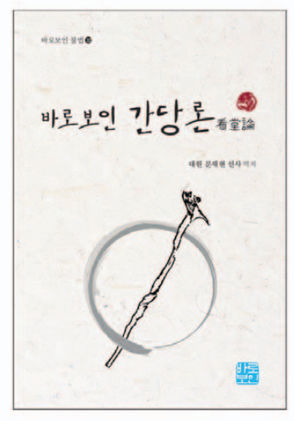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63,64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8 ~ 1/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인생수업 | 법륜 | 휴 |
| 2 | 알고 보면 괜찮은 | 마가 | 불광출판사 |
| 3 | 비울수록 가득하네 | 정목 | 쌤앤파커스 |
| 4 | 닦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용화 |
| 5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6 |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 청전 | 한겨레출판사 |
| 7 | 치유하는 유식 읽기 | 서광 | 공간 |
| 8 | 날마다 새롭게 | 일여 | 예담 |
| 9 | 붓다 수업 | 법상 | 민족사 |
| 10 | 능가경 강의 | 남회근 | 부키 |




## 스님 그리워서…



### 나홀로 가노라 만고의 진리를 향해

**성철스님문도회 편찬**
**1만6천원**

**"해만큼 크고 밝은 연꽃 한 송이**
**달만큼 크고 맑은 연꽃 한 송이**
**향기로이 향기로이 해인사에 피어나**
**이 나라와 온누리에 그 향기를 적시나니**
**열반드신 님의 향기 우리들을 적시나니**

**가야산같은 어지신 모습으로**
**백두산같은 신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우리에게로**
**또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로**
**바른 열반의 도리를 일깨우시며 오고 계시나니**

**배울지어다 배울지어다**
**영원히 변함없는 꽃다웁고 바른 목숨의 길**
**배워서 의젓한 사람들로 살지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지어다**
**이 어른께 삼천번의 마음의 절을 올릴지어다**
**이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치신**
**삼천번의 절을 올려 그 은혜를 갚을지어다**
**이님의 열반에 가즈런하도록**
**그 은혜를 두루 다 갚아 드릴지어다"**
**-미당 서정주- 성철 큰스님**

성철스님문도회가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추진해온 기념사업의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열반을 애도하는 글들을 모아 엮었다.

다시금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어 겨레의 정신을 곧추세움에 그 역할을 하자는 성철스님문도회의 뜻이 담겼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간행사를 통해 이 책을 출판하면서 "지난 세월, 스승님이 떠나신 이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또 앞으로는 큰스님이 가르쳐주신 깊은 뜻을 '어떻게 세상에 펼쳐가야 하는가' 라는 또 하나의 가파른 능선에 선 듯하다."고 말했다.

책은 불교인, 언론인 그리고 문화예술인 등 각계의 저명인사가 신문, 잡지에 기고했던 글들과 이후 제자, 신도들이 매년 열반 기일을 맞아 성철 스님을 추모하며 썼던 글 69편이 수록되어 있다.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의 제1장 '가야산의 호랑이' 는 법전, 일타, 지관 법정 스님 등 15명의 스님들이 성철 스님을 기억하는 글들을 모은 것으로 성철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제2장 '동구불출(洞口不出), 그 역사를 찾아서' 는 10년간 암자를 벗어나지 않은 동구불출 수행의 역사와 눕지 않고 수행하는 장좌불와의 신화를 증빙하는 서옹, 혜암, 법전, 도우, 일각 일타, 혜춘, 묘엄 스님과의 인터뷰이다. 두루 순방하며 참문(慘問)한 필자는 성철 스님의 시자 원택 스님이다.

제3장 '겨레의 스승' 편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헌시를 필두로 박완서, 고은 등의



그림 · 김호석

문인들과 이규태, 최일남 등의 언론인, 김지견, 이병주, 목정배 교수 등 학자 총 25명의 인사들이 그 당시 큰스님의 열반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가르침을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글 모음이다.

제4장 '삼천배' 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던 신도 20명이 어떻게 큰스님과의 인연을 맺고 어떻게 정진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의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책은 여러 사람의 여러 글을 모은 것이지만 역사가 된 한 선지식의 지나간 자국을 더욱 선명하게 보존하기 위한 뜻임에는 한 뜻이다. 흩어진 사진들을 한 권의 앨범에 모으듯 여러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들을 모아 한 시대가 의지했던 스승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을 좀 더 뚜렷하게 남겨놓기 위한 정성이다. **박재완 기자**

## 〈이뭣고 선지식 총서〉 1~4권

도서출판 비움과 소통에서 기획한 '이뭣고 선지식 총서' 시리즈 1권부터 4권, 〈콧구멍 없는 소〉, 〈세상선 산수도〉,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어디서 왔소?〉가 출간됐다.



### 콧구멍 없는 소-경허대사와 5대 제자

**김성우 엮음 | 1만천원**

**경허대사와 5대 제자의 선문답 해설서**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눈앞에 있느니라."
"눈앞에 있다면 왜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느니라."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하느니라."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선사가 말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어떤 학인과 만공선사의 문답이다.

한국선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鏡虛)선사와 그의 문하의 대표 선지식 5인의 선문답을 해설했다. 이 책은 조사선 그리고 간화선 수행법 중에서 진리를 묻고 깨달음을 답하는 선문답의 세계로 초대한다. 바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불법을 깨달음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경허선사의 세 달' 로 불리는 수월음관(水月音觀)선사, 혜월혜명(慧月慧明)선사, 만공월면(滿空 月面)선사뿐 아니라, 조계종을 대표하는 한암 스님, 용성 스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삶은 구도자들의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흔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선문답같다' 고 하지만 실상 선문답은 집착과 분별을 떠난 일상의 진리를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젊은 스님의 물음에, 경허 스님은 "그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착함이건 악함이건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하게. 망설임과 후회만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게. 바로 이것이 산다는 것일세"라고 답했다.

"불법은 애써 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상대로 아무 일 없는 것이다. 똥 싸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눕는 것"이라고 했던 임제선사의 말처럼 일상에서 대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펼치는 선사들의 삶은 그 자체가 법문이다. 경허 스님은 만년에 스님이나 선사의 굴레도 벗어버린 채 마을 훈장을 하며 '저잣거리 보살행' 을 실천했고, 제자인 수월 스님 또한 간도에서 고향을 떠난 동포들에게 짚신과 주먹밥을 보시하며 살았다.

본문에는 먼저 선화(禪話)를 보이고, 문답의 숨은 뜻을 드러내 독자들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했다.

### 세상선 산수도-성수대종사 선어록

**김성우 엮음 | 1만2천원**

**가섭의 웃음이 미소인지, 비소(非笑)인지 알아야**

한국적 선문답의 전형으로 알려진 성수 스님의 선법문집이다. 성수 스님의 '구도기' 와 '선문답' , '선법문'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흔히, 선문답은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불가에서 선문답은 당대 선사들이 수행자들을 깨닫게 하는 언행일 뿐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행지침 안내서다. 또한 그 자체에 진리와 지혜가 숨어 있어, 단박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긴 여운을 남기는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선문답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탐구하는 과정이며, 염화시중에서의 가섭 존자의 미소가 그 시작이었다.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범왕의 연꽃을 부처님이 들어보이자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이에 부처님은 가섭에게 정법안장 등의 진리를 전해주셨다. 즉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선수행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는 근본 화두가 염화시중인 것이다. 그 후로 여러 눈 밝은 종사들이 부처님의 교시 내용을 주제로 수 천 년 동안 서로 갑론을박을 하며 치열하게 점검해온 기록이 선문답이다.

1부에는 스님의 구도기가 실려 있고, 2부에는 스님이 생전에 선객들과 주고받은 선문답 34편이 실려 있다. 3부에는 사부대중에게 주셨던 15편의 선법문이 실려 있다.

스님은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염화시중 때 가섭의 웃음이 미소인지, 비소(非笑)인지 흑백을 가릴 줄 알아야만 안목 있는 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은 화두를 얻어 시작하는 것이고, 제방에서 화두를 주는 이도 많고, 또 화두를 타 온 이도 무수하게 많지만, 부처와 가섭 사이에 오고 간 것이 미소인지 비소인지 흑백을 가려볼 만한 안목이 있는 이는 매우 드문 것 같다."며 '내가 구도자다' 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속히 눈밝은 선각자를 찾아 생로병사가 두려우니 그 밖이 어디인지, 생사 해탈법을 배우는데 전심전력하여 생사장야(長夜)의 긴 꿈에서 깨어나라고 말한다.

###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정일선사 선어록**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원회 엮음 | 1만 1천원**

**선이란 무엇인가…**
**미세망념(微細妄念)도 없는 것**

"선(禪)이란 모든 번뇌가 쉬어 일체의 미세망념(微細妄念)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선이란 생사가 없는 경지를 터득한 용(用)을 말합니다. 즉 상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성인 그 자리에서 나오는 용심(用心)이 바로 선입니다. 선은 크게 보아 최상승선, 대승선, 소승선, 외도선이 있습니다."

책은 조계종의 대표적인 선사로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정일 스님이 간화선 수행법을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간화선 수행법의 수행지침서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선의 개념과 종류, 일구와 이구, 묵조선과 간화선, 조사선과 여래선, 인도선과 중국선에 대해 짚어주어 선이란 무엇인지를 일러준다.

제2장에서는 '화두' 에 대해 짚어주고 있는데, "화두는 본심자리를 그대로 드러낸 경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두라고 하면 옛날 선사들이 던져주신 언구(言句)를 일컫기도 합니다."고 말한다. 제3장에서는 정법과 외도를 말하는데, "외도라는 말은 부처님의 법 이외의 여러 가지 수행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해도 안으로 쉬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삿된 경계에 팔려 있으면 비록 염불을 하고 부처님의 경을 읽어도 외도가 되어 앉아 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가운데서 정법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고 말한다.

제4장에서는 '외도와 신통' , 제5장에서는 '업과 인과' , 제6장에서는 '참선기초 수행법' , 제7장에서는 천도재, 제8장에서는 '육바라밀' , 제9장에서는 '현대과학' , 제10장에서는 '영가장애와 신기' , 제11장에서는 '선어록' , 마지막 제12장엔 정일 스님의 행장이 실려 있다.

### 어디서 왔소?-활안큰스님의 선법어집

**김성우 엮음 | 1만2천원**

**이 마음 밖에서 또 다시 구할 것이 없다**

"대저 부처라, 법(法)이라, 천당이라, 극락이라, 지옥이라, 축생이라, 아귀라 하는 것을 어찌 다른 곳에 나아가서 찾기를 구하리오."

책은 평생 일체의 법문을 문자로 기록하지 않았던 활안 스님의 수행과 사상, 언행을 배울 수 있는 선법문집이다. 녹음해 두었던 활안 스님의 대중법문을 풀어쓴 책으로, "실천이 없는 불교, 이타행(利他行)이 없는 자리행(自利行)은 절름발이 수행일 뿐"이라는 평소 가르침이 글의 곳곳에 담겨 있다.

"어디서 왔소?"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은 천자암을 찾아오는 객들에게 출재가를 막론하고 이런 질문으로 첫 인사를 건넨다고 한다. 이 말에는 "그대의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란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수행자를 시험하는 노림수가 담겨져 있다. 여기서 여차 잘못 대답하거나 조금 아는 체를 한다든가 하면 친견은 고사하고 곧바로 쫓겨나기 일쑤다. 그래도 조금 싹수가 보이면 공양간에서 공양이나 들고 가라고 한다.

스님의 선 법문집인 책은 활안 선사의 수행과 사상, 언행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의 불립문자의 가풍을 엿볼 수 있는 책은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 없는 문의 관문이 될 것이다. 책은 1부 '활안 선사의 삶과 깨달음' , 제2부 '선이란 무엇인가' ,제3부 '세상을 향한 사자후' 세 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박재완 기자**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KBS 아침마당을 따듯한 미소로 물들인
마가 스님의 '인생을 건너가는 마음 수업'

가슴 시린 출가부터 중앙대 최고 인기 강사가 되기까지의 감동 스토리 전격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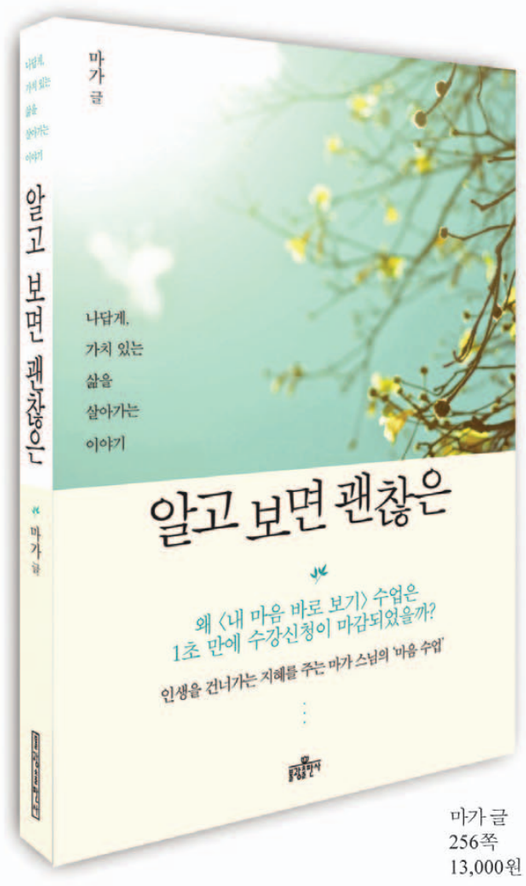


함께 넘어졌다 함께 일어나는 갈대처럼,
우리도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가 사람 덕분에 일어섭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도 분명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많이 아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알고 보면 괜찮은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언론에서 집중 조명한 화제의 책!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마가 글
256쪽
13,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 천년 '세월의 켜' 소리없이 쌓인 장중한 절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유영봉 지음**
**흐름 펴냄**
**2만3천원**

길이 끝났을 것 같은 곳에 또다른 길이 있어 호기심을 따라 가보면 만날 수 있는 곳, 어떻게 이런 곳에 사찰이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 위치한 곳 등등 바로 이런 곳이 암자가 있는 데다. 특히 천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암자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긴 세월동안, 심산유곡과 어우러져 빼어난 풍광을 자아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전율을 경험했고 암자의 숨은 역사를 들으며 새 시선으로 호흡을 고르게 된다.

어쩌면 천년암자는 탐방객들이 오르길 기다리느라 숨 죽여 속절없이 버텨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천년암자들에 오르면 그곳서 마주한 석탑에 저절로 볼 부비고 이름 없는 풀 한포기 조차 가슴에 오롯히 담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

의연히 산중을 지켜온 천년암자는 부박하거나 살풍경한 모습이 전혀 아니다. 오랜 세월의 켜가 소리 없이 쌓인 만큼 더욱 장중하고 경건해졌기에, 천년암자는 도리어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선정삼매에 든 스님의 고결한 뒷모습처럼 생동감이 넘쳐난다.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혼탁한 세상을 감내할 수 있는 뭉클한 감동과 진실 하나씩을 얻어오기 마련이다. 암자기행의 묘미는 바로 이런데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성한 암자를 둘러보며 지나온 역사를 공유한다면, 우리를 에워싼 풍광은 더욱 의미 있게 유기체로 다가올 것 같다. 바로 오솔길서 만나는 하찮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의미를 부여해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전국 천년 암자 14곳 기행기**
**풍광, 역사 거쳐간 고승업적 담아**
**세밀한 묘사로 현장감 돋보여**

이 책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14곳 암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암자로 향하는 길목의 경관, 해당 암자들의 구조적인 아름다움과 역사, 전설, 설화 그리고 그곳을 거쳐 간 사람들에 대한 자취와 업적 등을 기행문 형식으로 담았다.

강원도 설악산 봉정암에서 경남 김해 무척산 모은암까지, 온몸으로 역사의 질곡을 버텨 온 암자의 사연들이 현장감 있게 묘사돼 있다. 깊고 울창한 숲을 지켜온 암자들은 세상과 등 돌린 것이 아니라, 천년 역사의 중심에 올곧게 서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려한 시도인 것이다. 특히 감수성 넘치는



깎아지른 절벽에 걸쳐놓은 듯한 전각이 주변 자연과 어우러져 수려한 풍광을 자아낸다. 사진은 구례 사성암.

글의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면, 낯설기만 하던 천년암자들이 오랜 벗처럼 살갑게 다가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

7개 사찰씩 총 2부에 걸쳐 소개하는 이 책에서 우선 1부에서는 설악산 봉정암과 오세암을 필두로, 소요산 자재암, 설봉산 영월암, 속리산 상고암, 계룡산 고왕암, 성수산 상이암 등을 이야기 한다.

봉정암에서는 설악산과 백담사 및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자취, 백담계곡의 수려한 경관, 대청봉을, 오세암 편에서는 암자의 창건 설화와 함께 이곳을 거쳐 간 매월당 김시습의 자취, 오세암이 지닌 자연경관과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자재암도 암자의 창건 설화와 함께 원효스님의 성스러운 삶, 암자가 지닌 특유의 멋스러움을 담았다. 영월암 편에서는 역사에 남은 설봉산의 의의와 서희 장군 이야기 및 창건 설화 등을 소개했고, 고왕암 편에서는 패망의 역사로 남은 백제의 한을 가슴 아프게 들여다보았다.

2부에는 제법 흥미로운 사찰들을 소개했다. 7개 암자는 오산 사성암, 수청산 백장암, 금오산(전남 여수) 향일암, 사불산 윤필암과 묘적암, 금오산(경북 구미) 약사암, 팔공산 중암암, 무척산 모은암 등이다. 사성암 편에서는 사성암이 지닌 미적 가치와 더불어 각각의 부속 시설들이 지닌 의의와 전설, 설화를 담았다. 백장암 편에서는 실상사의 철불과 장승을 소개하는 한편, 백장암 소재의 오층석탑이 내포하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음미했다. 향일암에서는 절의 유래와 아름다움을, 윤필암과 묘적암 편에서는 삼국유사에 남은 자료를 통해 윤필암의 창건 설화를 살펴보고, 오늘날 비구니 암자로서의 의의를 되짚었다. **김주일 기자**

# 경전속 식물들 의미 살피면 불교적 교리 쉽게 이해돼

## 마음을 밝히는 붓다의 식물 108가지

**민태영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8천원**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이름도 생경한 아주 많은 식물들과 만나게 된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 경전에 왜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부처님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경전에 등장하는 식물들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꽃과 나무들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경전에 등장하는 식물들도 당연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고유의 역할, 즉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불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것이 이 책이 주목하는 두 가지 지점이다.

따라서 이 책을 펴낸 목적은, 우선, 경전 속에 나오는 식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밝혀 경전의 의미와 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음으로, 경전 속의 식물들을 현대 학문으로 접근하여 바른 식물명과 학명을 밝혀냄으로써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열대식물 자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마지막으로, 인도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한 인도의 전통 사상과 불교 간의 연관성을 저자의 전공 분야인 '종교 식물학' 이라는 키워드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이다. 이 책은 붓다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즉 불교의 태동과 완성, 전법과 수행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경전 속의 식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때문에 단순한 식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의 역사와 교리의 대변자로서의 식물' 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전체 2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 1부에서는 불교 교리와 부처님의 탄생과 수행, 득도의 과정과 관련된 식물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부처님 8대 성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수록하였는데, 이는 식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에 앞서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득도와 입멸의 과정을 통해 불교 식물에 다소 생소한 독자들이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다. 제 2부에서는 식물을 성상별 · 특징별 · 용도별로 나누어, 경관이 화려한 식물, 향기가 있는 식물, 먹을 수 있는 식물, 아픈 사람들을 살펴주는 식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식물, 독이 있는 식물군 등으로 분류해 정리했다.

아울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책에 소개된 108가지 식물들에 대해 전문 일러스트가 직접 식물의 특징을 살려 세밀하고도 아름다운 칼라로 일일이 그림을 그려 넣어, 그 자체만으로도 독자들의 심미안을 자극할 뿐 아니라 해당 식물에 대해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배경 지식과 관련된 유적지나 유물을 지도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해 더욱 흥미롭게 접근하도록 배려했다.

다음으로, 식물명 표기에 있어서 불교의 역사성은 물론 식물 분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스크리트명과 불교 경전에서 사용된 한자명, 국명과 학명, 영어명을 최대한 자세히 명기하였다. 국내에서 불교식물이라는 영역은 저자가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체로 붓다가 태어나고 수행하고 전법하고 열반한 성지의 식물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한역 대장경에 수록된 식물을 그 범위로 하였다. 또한 이번 책에서는 108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불교적 의미에 천착하여 대상 식물을 108가지로 한정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자원 식물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다분히 인문학적,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식물들을 분류해 놓았다.

**부처님 탄생과 득도관련 식물 정리**
**식물 등장하는 경전 출처 밝혀**

즉 경전에 나오는 식물들 중의 상당수는 귀중한 열대자원 식물로서 각광받을 뿐만 아니라 웰빙 식물들로 익히 알려진 것들인데, 이 식물들을 현대인들도 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아울러 이 책에 수록된 식물이 등장하는 경전의 출처를 일일이 명시해 놓았는데, 이는 독자들이 해당 식물이 등장하는 경전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물 이야기와 함께 하는 또 다른 불교 이야기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누군가의 첫 시도 뒤에 많은 논의와 연구가 거듭되면서 그 분야는 다듬어지고 성숙한다. 그런 점에서 불교 경전 속에 담긴 식물들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그 첫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민태영**은 … 건국대 대학원에서 생명자원식품공학을 전공했다. 플로리스트로서 원예치료사와 가든플래너,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실내정원과정 강사로 활동했으며, 한국식물원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불교식물연구원 원장, 한국불교식물컨텐츠연구소 소장, 불교식물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이며, (사)한국자원식물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경전 속 불교식물〉이 있다.

# 대장경 재조한 고려인 혼 조명

## 붓다의 십자가 1, 2

**김종록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2천원**





불교와 기독교가 결합한 도발적인 제목의 이 책은 "예수세존은 깨달은 자다. 깨달은 자가 곧 붓다이므로 예수는 붓다다" 라는 작가의 파격적이고도 열린 종교관에서 출발한다. 십자가는 예수가 처형된 뒤 기독교 상징으로 굳어졌으나, 불가에도 갈고리형 십자가(卍)가 존재한다. 불교적 가치관을 넘어 세상 모든 경전을 목판에 새겨 후세에 전하려 했던 고려인의 혼을 재조명한 이 소설의 제목은 그런 상징성을 표출하고 있다. 밖으로 몽골군의 침략을 받고 안으로 무신정권의 폭압과 타락한 불교계가 전횡하던 13세기 고려를 배경으로 진정한 구원의 가치와 이상세계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동과 서를 넘나드는 폭넓은 철학적 사유, 유려하고 명철한 언어 감각, 탄탄한 서사의 힘을 바탕으로 독자를 압도한다. 13세기 몽골 침략기, 고려 무신정권의 지배층은 백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 국난을 극복할 종교 이벤트로 몽골군이 불태워버린 대장경을 재조하는 판각불사가 펼쳐진다. 팔만대장경을 둘러싼 정치계와 종교계의 추악한 음모, 시대가 금기시한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는 각수장이 김승과 대장도감 승정 지밀의 목숨을 건 추적,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숨 가쁘게 펼쳐진다. 고려 최대 국책 프로젝트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예수' 의 정체는 무엇인가?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초조대장경의 숨겨진 진실과 새로운 경판사업 이면의 감춰진 이야기를 추적하는 역사 추리소설 〈붓다의 십자가〉는 천년의 통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설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김주일 기자**

# 동의보감 속에 나타난 마음공부

## 마음 동의보감

**김경철 지음 | 소동 펴냄 | 1만5천원**



수행자와 한의과대학 교수로서 두 분야를 탐구해 온 저자는, 〈동의보감〉의 '신형'편에서 소개된 마음과 몸의 합일 철학을 중심으로 마음공부와 명상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현실을 이겨 나가는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책에는 마음공부 · 명상수행의 길라잡이가 될 글, 마음공부의 실제 방법, 〈동의보감〉에 나오는 마음공부 · 명상수행에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훈련 방법과, 함께 기술된 의학적인 건강 양생의 내용은 바쁜 현대인들이 마음과 몸을 두루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된다. 먼저 제 1부는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공부와 명상수행의 의미와 방법을 알기 쉽도록 안내한다. 이어 제 2부는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마음공부 및 명상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마음공부의 이치와 철학을 알고 싶은 독자를 위해 〈동의보감〉에 나타난 마음에 관한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음공부와 명상수행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고 지적한다. 예를들면 △마음공부 · 명상수행을 하면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한다 △마음공부 · 명상수행을 하면 신통력이 생긴다 △마음공부 · 명상수행하는 이는 화를 내지 않는다 등등이다. 저자는 이런 오해를 이 책에서 하나씩 설명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은 마음공부 · 명상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이 물질, 사건 사고, 현상 등의 '모습' 과 이런 '모습에 대한 생각' 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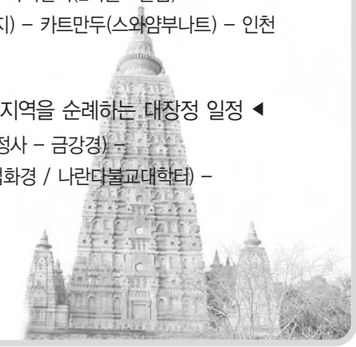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 義를 실천해 경지에 이르는 길을 담다

불교로 읽는 古典 - ②맹자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유교 발전의 시금석 역할을 한 맹자의 진영〈사진 왼쪽〉과 중국 산둥성의 맹자의 마을과 맹자의 묘가 있는 곳.〈사진 오른쪽〉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곧 선비요 군자라고 말했다.

〈맹자(孟子)〉는 〈논어〉, 〈대학〉, 〈중용〉과 더불어 '사서(四書)'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책이다. 본디 사서라는 것은 한대나 당대에는 따로 묶어서 불리지 않았었다. 〈중용〉과 〈대학〉은 〈예기〉에 속해 있었고 독립적인 저작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던 것이 당대 말기에 새로운 유학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특히 주목을 받아 사서로 묶어지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연유가 있다. 중국에 불교가 융성하면서 중국인, 특히 중국 유학계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중국에 오랑캐라 할 수 있는 인도의 종교가 들어와서 큰 세력을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학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유학에서 좀 부족하였던 인간의 마음과 수양 문제를 깊이 다룬 책을 찾았고, 그 결과 사서라는 이름의 네 책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맹자〉는 불교의 영향 아래 그 가치성이 돋보이게 된 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맹자〉라는 책의 내용을 그 저자로 알려지는 맹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식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맹자를 말하면 바로 '성선설'이 떠오른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로 순자의 성악설과 맹자의 성선설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맹자의 성선설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얼마쯤 알고 있을까? 사람의 본성은 선하니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혹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이해라 할 것이다.

맹자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매우 적다"고 말한다. 즉 사람에게도 동물적인 성향이 지배적이고, 아주 적게나마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지향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적인 성향이 지배적인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작은 요소, 선한 지향성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 짓는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찾고 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食色)은 동물과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기에 그 힘이 크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사람의 본성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동물적인 성향의 세력이 더 크기에 자칫하면 그 쪽으로 쏠려서 사람다운 길을 포기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그 도덕적 성향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서, 애써 그것을 보존하고 길러야 한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다운 길을 찾아 나가는 사명감을 지닌 이가 바로 '선비'요 '군자'이다. 그 사람다운 본성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일반인은 어떠할까? 자기 생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적인 생계수단이 위협을 받으면 삿되고 악한 짓을 가지지 않게 된다.

**善의 지향성이 인간 · 동물 차이점**
**사람다운 길을 가려는 것이 '군자'**
**왕도정치의 배경엔 '성선설' 존재**
**불교와 맹자 사상은 같으면서 달라**

**한국불교, 구체적 규범 부족 이유는**
**종교에 머물고 현실 참여 없기 때문**
**구호로만 '불국토 건설'… 실천은 無**

그렇지만 세력으로는 약하다 할지라도 선으로 나가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여기에 위정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된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적절한 생활 여건을 제공해주면 모든 백성이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정자도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 백성이 참혹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지니고 있다. 그 마음을 잘 발휘하여 백성이 생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적절한 교육을 베풀면, 백성의 선한 마음이 거기에 호응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맹자의 왕도정치 사상이다.

여기서 한번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자. 불교에서 보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일까, 아니면 선악이 결정되지 않은 존재일까? 악한 존재라고 보는 관점은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일단 배제하기로 하자.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불교도 인간을 선한 본성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불성이라는 것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맹자와 뚜렷하게 다르다. 그리고 맹자가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도덕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맹자가 말하는 선한 본성에서는 인간의 윤리가 바로 이끌어져 나온다. '네 가지 단서가 되는 마음'(四端之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달려가서 구하게 마련이다. 자신의 이익이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조건 구하러 달려가는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인(仁)의 실마리이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실마리이다.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실마리요,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마음의 지(智)의 실마리이다. 이렇듯 맹자의 인성론에서는 유가에서 대표적인 덕목으로 일컬어지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바로 이끌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성에서는 어떤 덕목이 이끌어져 나오는 것일까? 불성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완성된 모습이 지혜와 자비로 드러난다면 결국 불성은 지혜와 자비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성을 바탕으로 지혜와 자비를 말하면서도 정작 불교는 구체적인 윤리의 규범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데로 나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있다. 팔정도(八正道)를 말하면서 '바른' 생각이나 업이나 생계수단 등을 말하지만, 추상적인 '바름'만을 말할 뿐이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윤리 규범의 형태로 제시하는 점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맹자와 다르고, 나아가 유교와 크게 다르다. 그것이 인도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로 변명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정착 하면서도 창조적 변화를 통해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불교 역사의 큰 결함 아니었을까? 종교와 수행의 측면에 머물러 현실에 필요한 규범의 제시에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측면은 유교에 맡겨버린 반쪽 종교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정이(程?;송대의 유학자, 호는 伊川?程子라 불림)는 차갑고 투명한 물을 보면 마치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손을 넣어 보면 차가운 기운이 있듯이, 인간의 본성도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강상의 원리가 이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교는 그것을 보지 못하여 허무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이 올바른 것은 아닐 것이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 일상을 이끌어갈 윤리가 없을 것인가? 단지 우리 불자들이 창조적인 재해석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규범들을 끌어내지 못하였을 뿐이라 생각한다.

맹자의 수양에 관한 이론을 보면 불교와 유교의 대비가 더더욱 분명해진다. 맹자의 수양론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양성론이다. 맹자는 이 호연지기를 바르게 기르면 그 기운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대장부의 인격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호연지기은 어떻게 기르는 것일까? 높은 산이나 바다에 나가 그 자연의 기상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맹자는 이 호연지기는 '올바른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함'(集義)에 의해 생긴다고 말한다. 억지로 하루아침에 키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마음에 항상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지속하여 생기는 마음의 큰 기상이 바로 호연지기이다. 여기서 마음의 기상이라고 한 것은 바로 호연지기의 뿌리가 마음의 기운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사람의 몸에는 '큰 몸'(大體)과 '작은 몸'(小體)가 있다 한다. 작은 몸은 육체와 그에 속하는 감관들을 말한다. 큰 몸은 바로 마음을 가리킨다. 작은 몸을 잘 기르면 '작은 사람'(小人)이 되고 큰 몸을 잘 기르면 큰 사람(大人)이 된다.

대장부란 바로 그 큰 몸을 잘 기른 사람이요, 그렇게 잘 길러진 큰 몸에서 드러나는 큰 기상이 바로 호연지기이다. 그렇다면 큰 몸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작은 몸을 기르는 방법과 마찬가지이다. 작은 몸은 그에 따르는 좋아함이 있다. 먹는 것과 성적인 것 등이다. 이 작은 몸을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면 작은 몸이 기운차게 된다.

마찬가지로 큰 몸도 그 고유의 좋아함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것이다. 이 큰 몸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요, 하늘이 내린 귀한 몸이다. 그 몸의 도덕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이며, 맹자 성선설의 핵심인 것이다. 작은 몸을 기르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큰 몸이 좋아하는 것을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면 큰 몸이 기운차게 된다. 바로 그렇게 기운차게 된 큰 기상이 바로 호연지기이다.

'올바른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이라는 호연지기 양성의 방법에서 우리는 맹자 수양론의 특징, 나아가 유가 수양론의 특징을 보게 된다. 공자는 자신의 학문을 ' 비근한 곳에서 배워 높은 원리에 이른다 '(下學而上達)이라는 말로 표현하였고, 맹자에서는 이것이 의로운 행위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인격완성의 이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다산 정약용이 "불교의 마음 닦는 법은 마음 닦는 것을 일로 삼지만, 우리 유학의 마음 닦는 법은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방법이 불교에는 왜 없겠는가?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모두 선(禪)이라는 말에도 이런 정신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좀 부족한 것은 구체적인 윤리적 실천을 들기 보다는, 추상적인 마음챙김으로 나가는 것이 불교의 경향이라는 점이다. 왜 좀 현실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그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는 수양법이 제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지면의 한계로 맹자의 왕도사상 등은 다루지 못하지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개인의 완성과 더불어 이상적인 사회의 실현이라는 두 측면은 언제나 함께 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도 불국토 건설이라는 구호는 있지만, 그 모습과 실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과연 있는 것일까? 있는데 우리가 애써 눈 돌리고 있는 것일까?

개인적인 수양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것도 마음을 세상과 떼어 들여다보는 병폐에 빠져 있고, 이상적인 세계의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움직임에는 등한한 우리 불교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를 찾는 눈으로 〈맹자〉를 보았다. 자연 불교와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독자의 이해를 구한다.


##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 (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2014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6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5기**까지 전국에서 **7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4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4년 3월 4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성 지 관 음 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
전화 : 031)768-8414~6 팩스 : 031)768-8413

## 제12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실전의식 포교 전문과정 완성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사용법, 도량석, 종송, 사시마지 및 각단예불, 제반송주, 행선축원

**중급과정 (6개월)**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49재의식, 지장청, 관음시식, 각종 기도법회 의식

**특 별 반 (1년)**
점안의식, 다비식(시다림), 낙성(상량)의식, 각종행사, 장엄 부문연구, 방생법회(수륙대재), 생전예수재 등

**작 법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무) 등

◆ **개강일시** : 매주 화요일 개강
◆ **초 급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
◆ **중 급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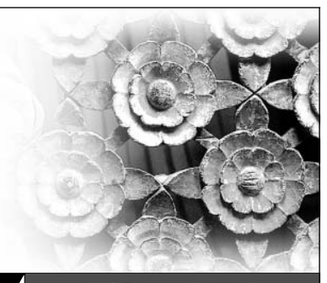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염불원), 사진 2장(반명함판)
◆ **염불원 주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신을길 98-20 (구, 덕천리 618)
◆ **손 전 화** : 010-8612-6914

**대 승 불 교 염 불 원 (대승범패원)**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치 달리는 마차의 속도를 솜씨 있게 조절하는 마부처럼,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실한 마부라 부른다.
다른 마부는 그저 고삐만 쥐고 있을 뿐이다..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구합니다
(50대)
054)782-0659
011-9571-6559

##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 법문과 염불해 드립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불공, 시달림, 고사
010-8396-4338
무유스님

## 획기적인 생약개발
관절염 비염 각종통증
옻 안타는 사람
(옻나무+장수버섯)
옻 타는 사람 (함초.우슬 환)
35~40일분 8만원
황보건강 amesil.kr
010-5556-1526

##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법화경 금강경 탑다라니
범어 외.. 등 경전)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10-3677-3845 보성 합장

##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 인도 다람살라에 계시는 달라이라마 (성하님) 친견 및 수계 받으실 분을 모십니다
(스님 3명, 재가불자 5명)
010-6267-3435 일법스님

## 구합니다 산속에 있는 암자나 토굴 구함
(경상남북도 소백산지역)
051)632-5539

## 미니 굴삭기부터 대형 장비까지
전국 어디서나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성심성의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010-3177-3627

##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 주지 소임을 원하는 (비구승) 후계자를 초대합니다
(상주지역)
010-5459-4434

## 성명학 최초!!
- 주역 64괘로 한글 한문 이름속에 들어있는 평생운을 밝혀 불행을 행복의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
- 개인지도 : 수시모집(1개월)
- 2014년 신수 : 오행과 주역
효도역학 010-4007-9057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3-5호 2층

##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 특수한 기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가족세우기 지도자과정 모집
대 상 : 가족세우기, 조직세우기, 지도자 원하신 분
자신의 가족관계 치유를 원하신 분 (조상,부모, 부부, 자녀)
성공, 번영, 풍요, 건강 관계치유를 원하신 분
명 상 : 깨어남코스와 인도명상 여행안내
네이버 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참조하세요
신청 및 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길음동)
010-3774-4099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 행자 인연 찾습니다
(남녀불문, 서울지역)
010-4586-4525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거제도)
010-5579-0404

##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 학 인 모 집
치문반,사집반 매주 화,목 오후2시
서예, 선화 특강 매주 일요일 오후2시
대 상 : 종단관계없음, 누구나
개 강 : 2월 11일(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520호(토월복합상가)
055)262-2045. 010-3749-4553
유점사 불교전문강원 강주 세운 합장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길상사 염불선원
● 주 지 : 원경 (이옥채)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878-64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 스님께 알려드립니다 *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사리구)를 중창불사에 뜻을 두신 스님들께 보시하고자 하오니 인연맺을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장 구룡 합장
[010-5367-1340]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 스님 신발 및 불자용 신발
스님, 불자여러분 신발 고르기 힘드셨죠?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좋은 품질과
편안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시중의 거품은 빼고, 우수한 품질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15년 신발 산업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발이 편안합니다.
법복과 더욱 어울려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연출 할 것입니다.
※ 제품의 사이즈 교환, A/S까지 가능합니다.


<여명>


<자비>


<온누리>

판매가격 : ₩ 35,000원
(※ 5만원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입금계좌 : 부산은행 061-01-040795-8 (예금주 : 박선영)
♣ 판매문의 : 경도상사 051) 338-5408 / 018-556-8911

## 新 영성(정신성) 향상법
수련회원 모집 (제2기)
- 회원대상 영성(정신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와 무주처 열반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스님, 재가자 특히 재발을 두려워하는 암환자 분들
- 수련기간 2014년 2월 5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하루 2시간씩
(14시~16시 반 혹은 18시~20시 반)
3개월간 선착순 10명, 회비 30만원
(10만원 * 3개월). 수료증 수여.
- 수련내용 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실습
영성의 중심 기둥 세우기 실습 등
- 학습내용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행복)론
캔 윌버의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회전생과 카르마 (자기동일성)의 법칙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 걷기법 등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레이키(氣치료법)」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 단체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2)720-5682. 010-8392-2557
www.reiki.co.kr / e-mail : reiki@reiki.co.kr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그 누군들 산 속에 들어가 도를 딱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산 속에 들어가 도를 닦지 못하는 것은 세속의 애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산 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부지런히 선행을 버리지 말자.
- 발심수행장 -

## 사찰(급)안내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창원시 진해구
- 바닷가 전망일품 입구 아파트 대단지
- 부지: 240평 주지실, 공양간
- 목조 법당: 24평, 목조 산신각 3평
- 가액: 5억 3천만원 ※홈페이지 사진열람

(급)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대전 계족산 황토길 마을
- 대지 200평 건물 60평
- 가액: 3억 6천만원

※홈페이지 사진열람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연산공인 중개사 사무소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 법당50㎡, 요사채85㎡
- 스님실 삼성각있음
- 토지1,100m2
- 원주ic부근사찰임
- 스님 입적하시여양도함
- 양도금액2억9천만원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사찰전문)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010-2503-3899

##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영도 남항시장 옆 대로변
- 총 38평 법당 사무실 주방 및 거실 욕실
-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소불 108불 에어컨 2대, 인테리어 새로 단장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500만원(법사, 보살님도 가능)

010-4880-1533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 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하실때는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암자.토굴.포교원양도 급히 구함!!!

##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동고성 IC 5분거리)
- 벽방산 인근 • 산세 수려한 부지
- 면적 : 5,500평
- 시설 : 미륵불상(전라도 화강암, 7M, 20톤)좌대(자연바위 약20평), 유실주 약 150그루• 건강상 급 안내 주택1동(약30평),창고1동(약40평)
- 양도가격 : 3억5천만원(시세7억) (미륵불상포함), 융자 1억6천만원

010-9056-2451
010-6354-3800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내이동
- 평수 50평
  법당 25평, 방3개
- 보증금 1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시설완벽

010-2914-3534

##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지하철 5분거리에 산속 암자
- 대지:300평
- 법당,요사체,산신각,기타등등.
- 가액: 12억

010-3867-4747

## 사찰부지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360번지
- 평수: 3,500평(오래된 금강송 소나무가 많음)
- 특징: 노적봉이 있는 좌청룡 우백호에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곳
- 교통 : 동해바다 및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 1억 5천만원 (소나무 가격만 수억이 넘는 가치있는 땅)

010-3531-5562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 암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학장동
- 독채건물, 인법당, 석가, 관음, 지장, 산신각, 거실, 주방, 창고, 마당, 세면장, 화장실2개
- 육십년 된 암자
- 버스정류소 40m 아파트 밀집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011-768-1355

##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 평수: 대지 90평, 3층 건물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 별장같은 사찰(급)안내

- 위치 : 충청도청 10분 도립공원 등산로
- 총평수 1020평 (대지 : 190평, 전 830평)
- 황토건물 50평(1,2층)
- 마당에는 450년된 큰나무. 오래된 돌담. 연못조경
- 옆 큰저수지, 자연경관최고,8대명당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9805-5528

##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목조단청 법당
- 삼성각, 종각, 요사채, 공양간
- 전망최고
- 990㎡
- 가액: 15억

(주 금호부동산종합회사부동산중개법인)
051)861-2233(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 사찰(급)안내

- 도심속에 산사의 맛을 풍기는 사찰
- 위치 : 부산 사하구 관내
- 대지 215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은행융자 3억원 (절충가능)

010-6237-5964

## 토 굴 안 내

- 중부 곤지암 IC 에서 10km
- 대지150평
  (건물 2층 60평 - 조립식)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양도가 1억 9천

010-9305-6715

## 사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 주차장 100평,
- 산세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2억 3천만원

054)782-0659
011-9571-6559

## 사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 접 해발 700m)
- 대지 : 1815평 부지조성 완료 ,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 사용
- 노인복지, 요양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소재 임야
- 낮은 구릉 3만평
- 3천여평 절터흔적 산재
- 약초재배 최적지
- 진입로 구비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345-9666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4층 5층
- 보증금 : 2000만원
  시설비 : 2000만원
  월세 : 50만원
- 온천장 요지, 시설완비, 주인직

010-3836-6566

## 포교원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아파트 상가 3층 중 2층
- 약 60평
- 시설환경 A급
- 가액: 보증금 1천 월 45만원
- 시설비 2천 500만원

010-5173-3355

##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기장 시장
- 평수 20평
- 법당, 방, 거실, 화장실
- 주차시설
- 보증금 1천, 월 3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10-4870-8359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등기 법정보장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설비 포함)

010-7295-1259

##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8억 8천만원

010-3858-8335

## 사찰 기도터(급)안내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 있고, 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소쿠리터임
- 논3,000평내 60평가옥1동 화장실 2칸짜리 1동
- 집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대지조성 완료
- 가액: 6억(상방 협의가
- 잘되면 5억까지도 가능)

011-9583-3107(철호스님)

##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 + 토지 3천여평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양도가액: 2억 7천만원 (융자1억포함)
- 인수금 부족시 5년간 분할납부가능

010-9647-0723

## 암자 안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 건평 138㎡
- 실 사용평수 약 500평
- 심야전기, 편의시설완비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6천만원

010-4542-0902

##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오금동
- 평수 : 45평(5층 중 4층)
- 삼존불, 칠성, 산신
- 방2, 학업상 급 안내 (꼭 방문후 결정)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8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문의 010-4138-5523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삶의 힌트

이츠키 히로유키 (일본 소설가)

〈3〉 사랑하다

# "사랑에 대한 보답 없다고 화내지 마세요"

지금은 사어(死語)가 된 말 중에 '효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도라니 또 고리타분한 화제를 끄집어낸다고 쓴웃음을 짓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도덕이나 인의(人義)같은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어느 젊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것을 문득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30대 후반에 막 접어든 그녀는 명랑하고 건강한, 결혼하기 전에는 스키선수로 활약한 스포츠우먼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출산한 것은 1년쯤 전의 일입니다. 남편은 학교 선생님으로 상냥하고 힘이 센 타입인데, 결혼 초기에는 두 사람 모두 "아이는 갖고 싶지 않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효도 같은 거, 난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어째서?" 의외라는 표정으로 남편이 묻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죽을만큼 힘들었지만, 기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 앞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더 행복한 기분이 들지도 몰라. 당신도 평소에는 신경질적인 얼굴을 하다가도, 아이 얼굴만 보면 흐리멍덩해지는 자식 바보가 다 됐잖아. 면허증 넣는 데다 아이 사진을 넣어 갖고 다닐 정도면서. 이 아이 덕분에 얼마나 삶의 보람을 느꼈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야. 생각해보면 부모들의 인생의 한때에 이렇게 반짝이는 충실한 시간을 줬으니까, 더 이상 이런저런 바람을 갖는 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아이는 태어나서 4~5년 동안은 부모에게 멋진 선물이 되어주는 것 같아. 어차피 중학생 정도가 되면 우리 같은 건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커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내 욕심인 것 같아. 사람은 어린 시절에 120퍼센트 부모에게 삶의 기쁨을 선사해주니까 나중에 효도 같은 건 안 해도 돼. 이상한가, 이런 생각?" "기쁨도 있지만, 고생도 많이 하잖아." 남편이 말하자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거봐."

두 사람은 그 후로 토론을 계속했는데, 저는 그녀의 말이 어떤 의미에서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라고 고개를 젓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론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약간의 육아 경험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패전을 맞이한 직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열세 살이었던 제가 남동생과 여동생을 보살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어른의 수갑이자 족쇄일 뿐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굶주림 앞에서는 사라져 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굶주린 어른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진저리를 칠 만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때 '이기적 유전자' 라는 테마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구하려고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차에 뛰어드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지키려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유전자야말로 생명의 주인공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탈 것에 불과하다는 유니크한 설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아무리 그래도, 이를 뛰어넘기 위해 사상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을 통해, 불교는 '자비' 라는 사고방식을 통해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의 탈것에서, 한 차원 다른 존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생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든가 사상, 지성과 같은 것은 모두 탈것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반항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유전자가 인간의 주역이라면 그 유전자를 주고받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타인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훨씬 무거울 것입니다.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는 것이죠.

그러나 피로 연결된 부모나 자식보다 타인이었던 남편과 아내, 애인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사상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 라는 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듯합니다.

고대의 부족들은 피로 연결된 이들끼리 군락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한 마을의 일원은 모두가 친척이라고 해도 좋을 관계였습니다.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라는 새로운 거대 공동체가 나타나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인종도 언어도 풍습도 유전자도 제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피로 연결된 그룹이 다른 그룹과 공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연히 새로운 공생의 사상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이 '사랑' , 혹은 '자' 의 사상이었던 게 아닐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불교에서 말하는 '자=메타' 라는 말은 '우정=프렌드 십' 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요컨대 피로 연결되지 않은 상대방과 어떻게 공존하며 사이좋게 지낼까, 라는 발상입니다.

여기에 바로 종교의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에는 본래 반지성적인 것과 동시에 지성적인 것도 크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적인 것을 과학, 반지성적인 것을 종교라고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종교도 과학도 원래는 지금보다는 훨씬 조악하고 수상쩍은 것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세련되어지고, 형태가 갖춰지고, 순수화되고, 그리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이 벗겨지고, 고급화된 만큼 가난해진다. 모든 문화는 그런 운명을 더듬어가는 듯합니다. 연극도 음악도 차도 문예도 모두 그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체적 행위**
**자기 멋대로 한 행동임을 마음에 새겨야**
**효도 역시 자식에게 요구하는게 아니듯**

일전에 폴란드로 향하던 도중 아주 짧은 시간, 빈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마침 토요일이라 빈 중심가에 곳곳에서 거리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온 그룹도 있고, 블루스 연주나 플루트 독주자, 코러스 3인조, 백파이프를 불고 있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집시 남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음악이 거리의 소음과 혼연일체가 된 길을 걸으면서 저는 '아아, 음악이 살아 있다는 건 이런 상태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콘서트홀에서 듣는 연주도 멋지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전차 소리, 바람 소리, 교회의 종소리 같은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음악에는 어쩐지 인간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십우도(十牛圖)라는 그림으로 종교 사상을 설파한 오래된 에마키(이야기나 전설 등을 그림으로 그린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십우도의 마지막 그림에는 명경지수(明鏡止水)의 경지를 깨우친 이가 시중의 혼잡한 거리를 술병을 들고 휘청휘청 걷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입전수수(入鄽垂手)' 라는 글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전' 이라는 것은 시정을 가리키는 말로, 속세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수행 끝에 종교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산중에 홀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깨달은 후에는 속세에 뒤섞여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사랑한다' 는 것 역시 혈연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는 그다지 멋진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멀리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인간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때로는 이구아나, 비단뱀을 사랑해 마지않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동차나 총기를 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술 애호가 중에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애정을 쏟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성끼리의 사랑을 연상하기 쉬운데, 사랑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라 동성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전자의 교환을 의도한 사랑이 아닌 만큼 이쪽이 한결 '자' 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인류애'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자기애와 본능적인 사랑을 '에로스' 라 칭하고, 인류애와 적마저 사랑하는 신과 같은 사랑을 '아가페' 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사랑한다' 는 것은 자신의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상의 사랑'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굳이 큰 소리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보시행' 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좋은 보시를 한 쪽에 좋은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쪽이 이득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를 할 때는 보시를 한 쪽이 합장하고 예를 표해야 합니다. 공덕을 쌓는 수행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보시를 받은 쪽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도에서 관광객이 거지에게 돈을 건네고, 문득 위화감을 느끼곤 하는 게 그런 때입니다. 돈을 받고서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가는 상대에게 당혹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합장하고 머리를 숙이는 게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 는 것도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사랑 역시 이쪽이 멋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응할까, 하는 것은 일단 처음부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게 인정(人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사랑받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진지하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라는 사고방식은 언젠가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지 않을까요.

상대가 거기에 충분히 응해주지 않는다, 또 성의를 표하지 않는다, 배신당했다는 식으로 우리는 멋대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자신들이 멋대로 결정한 일입니다. 아이가 간절히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는 다양한 기쁨과 감동, 그리고 삶의 보람을 부모에게 선물합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시치고산을 하는 것도 부모의 만족감 때문입니다. 8미리 비디오카메라를 돌리고 있는 아버지의, 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멋대로 저지른 행위에 보답을 바라는 건 이상하다는 게 앞서 소개한 젊은 엄마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합장하고, 그 이상의 효도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는 것은 내가 멋대로 한 행동이라고 반복해서 스스로를 타이르면, 사랑의 보답이 없을 때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역시 좀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이라고 하지만, 사랑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도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쁜 쪽으로 변하는가, 좋은 쪽으로 변하는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만일 기적적으로 사랑하는 상대에게서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인간이 늙어가는 것처럼 사랑 또한 변해갑니다. 한쪽이 변하지 않아도 다른 한쪽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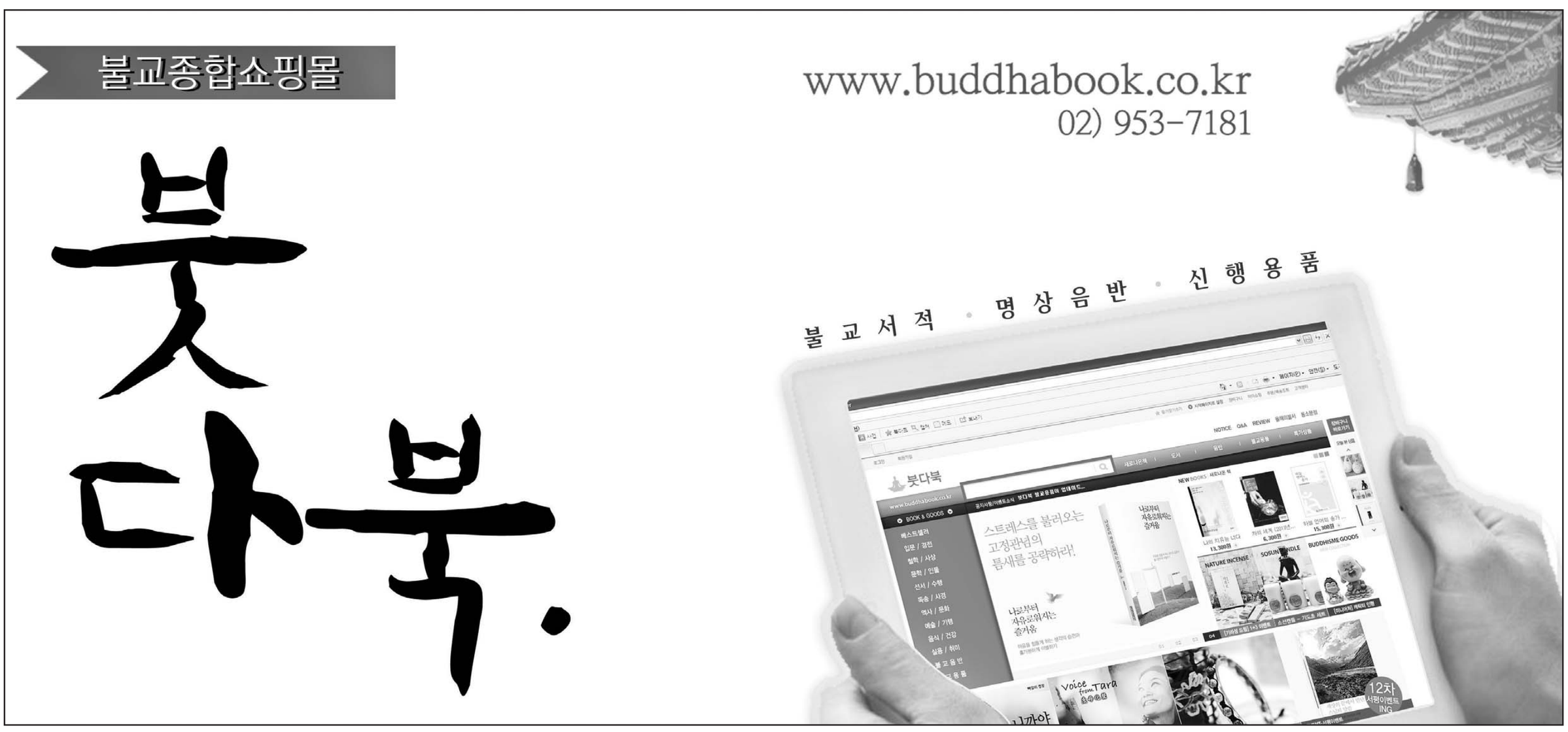
'효도' 역시 자식을 통해 한순간이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이상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의 사랑, 결혼 초기의 사랑, 10년이 지났을 때의 사랑, 25년이 지난 후의 사랑, 또 50년 이상이나 함께 살아온 사랑의 모습은 결코 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것이 있고, 깊어지는 것이 있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한다' 는 것은 자기가 멋대로 하는 것임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는 겸허함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도' 역시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듯 말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이츠키 히로유키가 쓴 〈삶의 힌트〉(지식여행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갤러리 색즉시공



### 눈 오는 날

무슨 생각을 한단 말인가
눈 내리는데
무슨 욕심을 품는단 말인가
눈 내리는데
무슨 노여움이란 말인가
눈 내리는데
이 무슨 어리석은 생각인가
눈 내리는데

일초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자
천년의 시간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눈송이만큼이라도 원하지 말자
몇 겁을 살고도 부족한데
누구의 마음도 기대하지 말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글자 한 자도 안다고 하지 말자
팔만법문도 보이지 않는데

사진 · 글=박재완 기자

# 우리의 일용한 양식은 어디에서 왔는가

Buddha in Comic & Ani

### 아라카와 히로무의 '은수저'


TV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은수저' 오프닝 장면. 도시 학생의 농업고교 적응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도시 학생의 농업고교 적응기**
**소년만화로는 파격 소재 평가**
**가축과 애완동물의 차이부터**
**농업 자본화까지 사유케 해**

다음 중 소년만화 이야기 소재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①초능력 히어로 ②판타지 용자 ③학교 일진 ④예비 농부 · 낙농인. 누가 봐도 정답은 4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비관심 직종인 농부, 낙농인을 청소년들이 보는 만화의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이런 상식을 과감히 부순 만화가 있다. '강철의 연금술사' 라는 21세기 가장 핫한 히트작을 냈던 아라카와 히로무(荒川弘)의 신작인 '은수저-Sliver Spoon' 다. 작가의 4번재 장편작이자 첫 주간 연재인 이 작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다. 단행본 8권까지 누적 발행부수는 1000만 부로, 이는 연재지인 '소년 선데이' 의 역대 만화 4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지난해에 TV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실사 영화로도 개봉된다.

만화 '은수저' 는 기본적으로 '농 · 축산업 전문 고교' 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학원물이지만, '도전과 성장' 이라는 소년만화의 공식은 충실히 지키고 있다.

입시 명문 신 삿포르 중학교에서 좌절한 주인공 하치켄 유고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홋카이도 시골의 오오에조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한다. 통칭 '에조노' 로 불리는 이 고교에서는 농업과 낙농업을 가업으로 삼는 아이들이 대부분. 농사의 '농' 자도 모르는 주인공은 얼떨결에 농부의 길을 가게 된다. 농부의 길 속에서 주인공은 고민하고 좌절하고 도전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농업이라는 꽤나 전문적(?)인 소재를 전문적이라는 느낌 없이 개그와 진지함을 잘 섞어 깔끔한 작화로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작가의 능숙함은 이 만화의 백미다. 이런 디테일은 작가 자신이 농업고교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 만화의 배경인 '에조노' 의 모델은 작가의 모교인 '오비히로 농업고등학교' 이기도 하다.

'도시 입시생의 농업고교 적응기' 라는 발랄함 속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모든 음식들이 수 많은 생명들의 희생을 통해 식탁에 올라온다' 라는 진중한 성찰이 존재한다. 또한 영화 '워낭소리' 와 같은 소규모 낙농부터 현대의 대규모 기업화 낙농을 에피소드로 소개하며 현재 일본 농 · 낙농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이는 아기돼지 에피소드를 통해 알 수 있다. 주인공 하치켄은 양돈장에서 유독 적응하지 못하는 아기돼지를 발견한다. 약하면 도태되는 생태계. 제대로 된 어미 젖을 찾아가지 못하는 돼지의 모습에서 입시 경쟁에서 좌절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하치켄은 아기 돼지에게 '부타동(돼지덮밥)'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돌본다.

하지만 그런 주인공의 모습에 학우와 선생은 반대한다. 정이 들면 도축장으로 보낼 때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다. 주인공은 낙담하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부타동' 을 돌본다. 그런 모습에서 다른 학우들은 생각한다. "내가 가축과 애완을 나눠서 생각한 것은 언제부터였던가?"

시간이 지나고 '부타동' 도 식육업자에게 출하돼 고기로 변해 돌아오고, 주인공은 여름방학 농장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으로 이 고기를 전량 구매하고 이를 베이컨으로 가공한다. 그러면서 하치켄은 말한다. 생명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다고.


아라카와 히토무의 '은수저' 1권

"생명체를 먹는다는 것은 다 그런 것이라고 달관하면 편해요. 하지만 이 아이(돼지)들을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고민에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해도 좋아요. 중학교 입시 노이로제보다 훨씬 보람있는 고민입니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농가의 삶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자연의 삶은 탄생과 죽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굴레를 이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같은 불교의 공양게송은 연기적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관게(五觀偈)라고도 하는 공양게는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에 담긴 다섯 가지 의미를 관찰하는 것이다.

하나의 곡물을 수확하기 까지 태양은 자신을 태워 빛과 열을 내고, 대지는 이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자리와 양분을 내놓는다. 흔히 만날 수 있는 고기 역시 이 같은 공덕과 더불어 가축의 자기희생을 빌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그래서 공양게는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여기에 투여된 은혜와 노고를 상기시키는 연기적인 통찰이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서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식사를 하는 것을 '공양한다' 고 하고 식사시간을 공양시간이라 한다. 여기서의 공양은 누군가가 공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시은(施恩)을 잊지 않게 하려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생명들을 짊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채식주의자가 됐던 육식주의자가 됐던 마찬가지이다. '나를 위해 희생된 생명붙이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는 삶의 명제가 이 작품에는 담겨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 크 기 | 가 로 | 세 로 | 높 이 | 재 질 |
|---|---|---|---|---|
| 50개꽂이 | 90cm | 60cm | 150cm | 스테인레스 |
| 100개꽂이 | 150cm | 90cm | 150cm | 폴리카보네이트 |
| 대초기준 |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 | | |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TEL 031)466-3356
H · P 011-269-3356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대행 스님



# 이 핵심적인 나라는 것부터 돌아다볼 줄 알아야

**질문자1(남):** 큰스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불법의 공부 과정을 삼단계로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참나의 발견, 즉 자아(自我)의 발견과 완성, 둘째는 모두와 하나가 되는 것, 즉 전체 속에 자기가 있음을, 셋째는 이런 수행을 거쳐 보살도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둔한 저희들은 평소 큰스님의 법문을 통하여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아 왔지만 아직까지 미혹한 가운데 있습니다. 차제에 이 삼 단계의 공부 과정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얼른 와 닿지 않나 봐요. 닿는 분들도 계시고 안 닿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것을 이름해서 '삼정지각 불이법' 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니 잘 참작해서 들으세요. 육위법(六位法)도 있고, 팔정법(八正法)도 있고, 십이지법(十二支法)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떠나서, 그것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다 모두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키기를 이렇게 했죠. 처음에 일차적으로도 죽어야 나를 볼 수가 있고, 이차도 죽어야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님을 알고, 셋째도 죽어야 나하고 둘이 아닌, 바로 나툼을 알 수 있어서 구경경지(究竟境地)를 이룬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랬죠? 내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바로 나로 인해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벌어진 거니까 나를 다스리면서 '바깥의 경계도 내면에 놓고 내면의 경계도 바로 그 안에 놔라.'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용광로에다 헌쇠 넣듯 놓아라. 나를 이끌고 가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곳은 거기니까 모든 것은 거기서 하게끔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 놔라.'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발견해서 보는 단계가 되고, 나를 보는 단계에서는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또 놓고 가되, 안에서 어떠한 뜻이 오더라도, 무엇을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할 거는 하되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맹종하지는 말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발견한 뒤에 나를 넓혀서 생사윤회에도 끄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안의 경계가 있습니다. 안의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맹종하지 말고 누가 되지 않는 일은 듣고 누가 되는 일은 듣지 말고 버려라. 아니, 버린다기보다 듣지 말고 하여튼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해서 거기 또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의 경계에 맹종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안으로 기울어지고, 밖에서 끄달리고 또 밖으로 떨어진다면 밖의 경계에 기울어지는 것이니까 안으로나 밖으로나 맹종하지 말고, 모든 이치를 눈으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해서 결정을 짓는데, 그 양면은 다 거기에 총괄이 돼서 그대로 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경계나 망상이나 이런 것에 끄달리지 않고, 그대로 생각하면서도 걸림이 없이 그대로 자기가 주장자를 올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공부라고 보겠습니다.

셋째번에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둘이 아닌 나툼을 나툰다고 했습니다. 그 나툼이라는 것은 열반계를 말하죠. 즉 말하자면 '열반각지(涅槃覺地)', '구경각지(究竟覺地)'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경각지는 어떠한 것이 구경각지냐. 여러분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이름이 많으시죠?" 이럽니다. 여러분 이름이 많으시죠? 남편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위라는 이름도 있고, 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또는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 형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우라는 이름도 있고, 할아버지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이름이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서, 예를 들어 아들과 만나면 아버지의 생각과 행과 말이 아주 선연하게 선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뜻도 '모든 게 내가 없고 남이 없다.' 하는 것은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일체가 내 도량 아님이 없고, 일체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고 중생 아님이 없이 모두가 한자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도 없는 것이 부처다.' 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릇 따라서, 예를 들어 종지에 응해 달라면 종지가 돼 버리고 사발에 응해 달라면 사발이 돼 버립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마 대사가 구렁이가 됐다가 금방 달마 대사가 됐던 겁니다. 그처럼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는 아무 병도 없다는데 나는 죽겠습니다." 또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고 합니다." 또는 "어디가 아픈데, 몸져눕지도 않고 이렇게 아픕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부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바깥으로 끄달리며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천차만별로, 그릇대로 주어지듯이 그렇게 많죠. 그럼 사생(四生)의 그 인연된 것을 볼 때 인간 사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체가 바로 한데 합쳐진 게 일체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구렁이가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마음이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모든 문을 활짝 여시고선 그거를 안아 들인다면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자기 모습이 바로 그게 돼 버려요. 구렁이가 돼 버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건져 달라고 할 땐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이 건져 달라고 할 땐 저 사람이 되고, 또 돼지가 살려 달라고 할 땐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소 속으로 들어갔다 말 속으로 들어갔다 또 하다못해 풀 속으로도 들어갔다, 나무 속으로도 들어갔다 목신도 되고, 구더기 속으로 들어가서 구더기도 되고 이러니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열반구경지', '구경지각'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삼계(三界)를 통달했다 이 얘깁니다, 삼계를. 나의 삼심(三心)을 통달해서 삼계를 통달했다. 과거심(過去心)이나 현재심(現在心) 미래심(未來心)을 다 통달해서 과거세계, 현재세계, 미래세계를 다 통달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다. 그래서 어느 사람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벌레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목신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고, 어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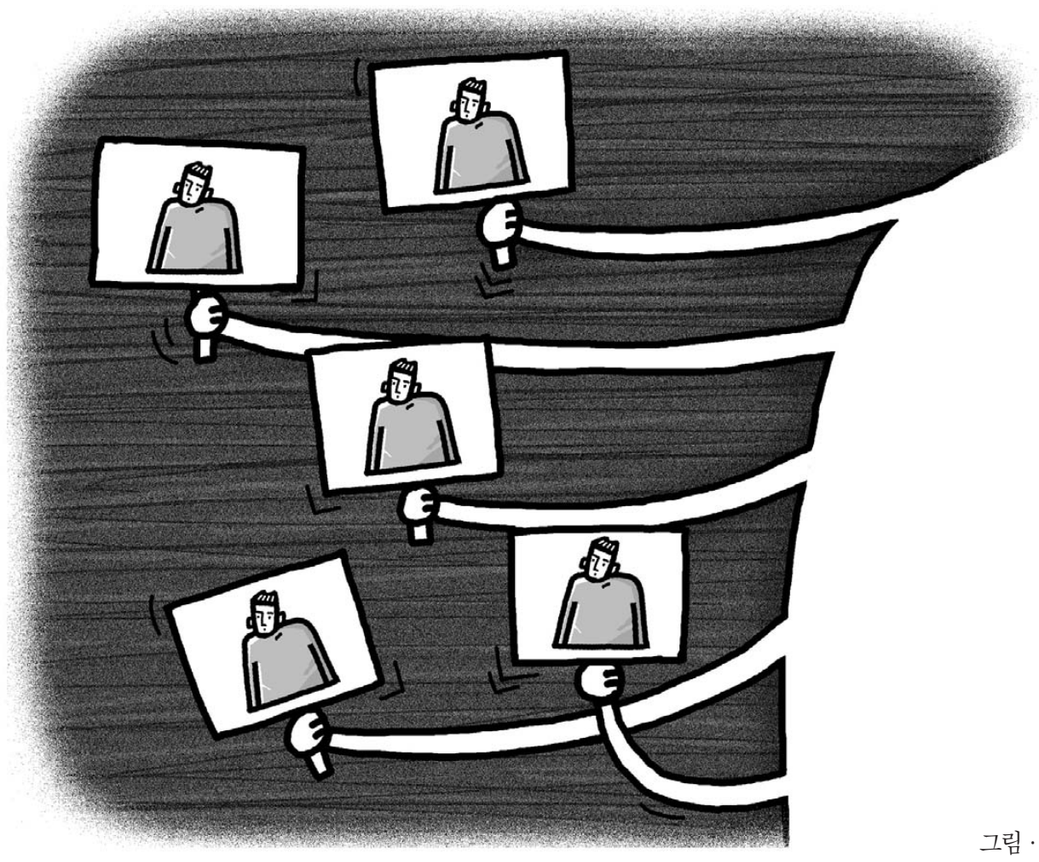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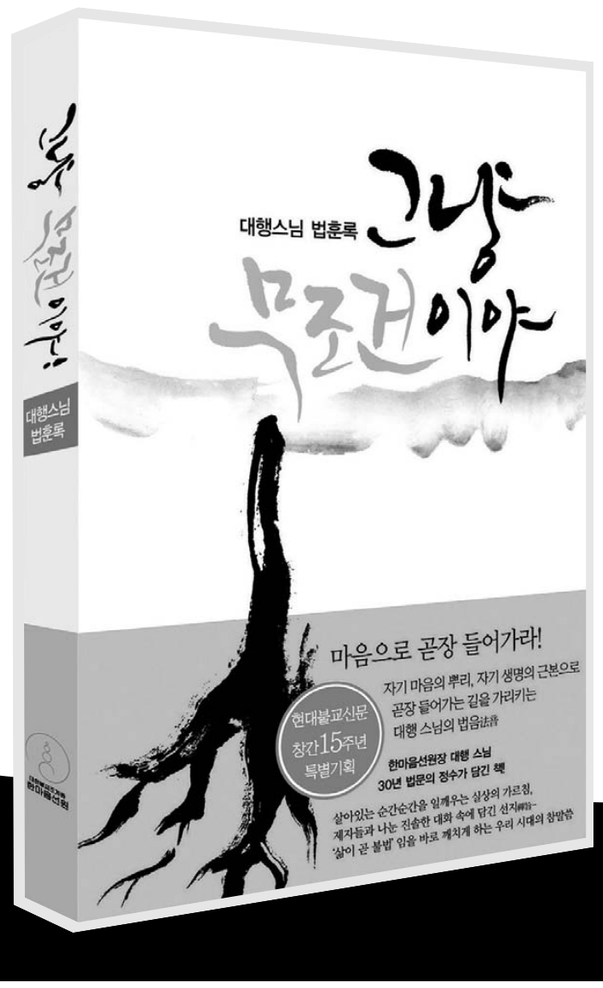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 바깥경계도 내면에 놓고 내면 경계도 바로 그 안에 놔라

☞ 29면에서 계속

느 지신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용신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만물만생 어떠한 것이든 그 가지각색으로 헤아릴 수 없이 내가 됐다가 또 이게 됐다가, 화(化)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경지라고 할 수 있는 각(覺)을 이루어서, 그 마음이 무심(無心)의 도리인 중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유인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삼정지각'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삼 단계가 통달돼야죠. 그것은 내 마음에서 십이인연법이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론적으로 하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은 체가 없어서 저 바깥에 나가는 것도, 문지방 넘어가는 것도 한 찰나죠. 앞뒤 뚫린 텅 빈 그 불바퀴 속을 서슴없이 들고 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그대로 자유스럽게 들고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경을 많이 읽었거나 또는 경의 용어를 쓴다거나 이럴 줄을 몰라서 좀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우주 천하가 그대로 큰 불바퀴, 작은 불바퀴, 둘이 아닌 그 불바퀴가 그대로 극명하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보니,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말씀하셨어도 지금 현재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말씀했더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법이 돼서 끊임없이, 끝간 데 없이 여러분과 더불어 언제나 함이 없이 하고 계신 그 사실을 여러분도 증명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당신, 즉 말하자면 자기로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오셨으니까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있으니까 상대성 원리로서의 일체 만법을, 독불장군이 아니라 공심(共心)으로서 공용(共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공용을 할 때 찰나찰나 변하면서 찰나찰나 화하면서, 찰나찰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끊어짐이 없이, 그렇게 우리는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을 충만히 두루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학적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세 단계의 문제가 사람에게는 아주 극치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내가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없고, 미래는 가지 않았으니까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고정됨이 없고 몸뚱이도 돌아가는 게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으니 어떤 것을 먹을 때, 어떤 것을 만날 때, 어떤 것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을 볼 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렇게 변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찰나로 변해서,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수많은 입자가 화해서 바로 분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모습, 마음, 말, 뜻으로 응해 주시는 그 천백억화신의 뜻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그 주인은 바로 몸뚱이 속의 중생들 의식을 다 끌고 다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삼 단계의 자유인이 되는 길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 단계의 그 모든 이치를 생각할 때, 지금 놓으란 말은 재차 하는 소리지, 여러분이 지금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모르니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꾸자꾸. 착을 두고 욕심내고 아집이나 아상으로 모든 일을 '내가 했다' 하고 돌아가니까 이거는 어렵게 부딪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났다가,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람을 만났다가, 금방 저 사람을 만나고…,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뚜렷하다 이 소립니다. 전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어느 불이나 불은 똑같지만 전구는 각각이듯이.

그럼으로써 그 도리를 삼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나눴어도 나중에 결국 삼계를 통달한다면 모두 그대로 요리할 수 있어서 삼 단계가 삼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서 삼 단계가 삼 단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삼 단계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너도 아니요, 모두가 아닐 때에, 나 아님이 없다는 도리가 거기에서 선명하게 나올 수 있고 그때에는 바로 말없이 이거냐 저거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내면세계로 둬야 옳으냐 바깥세계로 둬야 옳으냐, 이론이 맞느냐 마음이냐, 이런 것도 다 통달하게 되어 그런 것도 말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이법은, 예를 들어서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할 때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스위치를 누를 때에 "불을 켜야 옳겠습니까, 안 켜야 옳겠습니까?" 그러고 불을 켭니까? 안 그러시겠죠?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벌써 전등이 모두 가설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불만 켤 뿐입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물이 떨어졌으면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걸레 갖다가 훔치는 것뿐입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아무 소리 없이, 목마르니까 급하니까 그저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먹거나 "나, 물 좀 줘." 이래서 그냥 물을 먹을 뿐이지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데 이유가 뭐가 붙느냐 이겁니다. 내가 먹어야 옳으냐, 안 먹어야 옳으냐 하고 누구더러 물어보고 합니까? 그리고 물더러 또 물어봅니까? 내가 너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러고 물어보고 먹습니까? 목마르면 그냥 먹는 것입니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붙지 않는 데서, 나라는 걸 세우지 않는 데서, 바로 구경경지를 이루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습에 의해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목석이지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서 그대로 참선이 돼야죠. 좌선을 한다고 앉았다, 몇 시간을 좌선을 한다, 이건 좌선이 아닙니다. 또 좌선을 하고 일어나서 "아휴, 오늘은 하루 종일 좌선을 여덟 시간이나 했어." 이렇게 아주 제일 잘한 것처럼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일분일초도, 하지 않았다 했다 하는 소리 없이 일상 생활에서 그대로 참선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말 그대로 그것이 좌선이요, 참선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서 이리 왈 저리 왈 끄달림이 없어야죠. 아무리 마음이 망상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관여함이 없이 '응, 그래?' 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그 마음이 참선이죠. 여러 마음들이 나오더라도 '아, 이 마음. 그래 그래, 그럴 테지.' 하면서, 수많은 의식이 다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저 여기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는데, 지켜보면서 옳은 거는 옳은 것대로 그른 거는 그른 것대로 다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다 몰아서 넣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올바른 지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 지금 보십시오! 모두가 이 마음 핵심이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치라든가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 모두가 그저 누구 말마따나 마음 일어나는 대로 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나라는 것부터 돌아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할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강도질은 누가 시켰으며 선행은 누가 시켰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거기 놓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한마디 묻는 것을 길게 말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핵심을 뚫어서 수행하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젊은층들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핵심적인 문제를 수행하고 가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학 문도 넓히지 못하죠. 나오는 문은 좁히고 들어가는 문은 넓혀야 하고, 또 기술계의 고등학생들도 기술방면에서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월급 주는 것도 학력보다는 기술이나 능력대로 지급이 된다면 대학을 들어가려고 기를 쓰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되느냐? 이게 다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넓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흔들리고 저렇게 듣고 흔들리고, 바깥으로만 끄달리는 관습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처리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달픈 역사를 가져온 것도 그 탓입니다, 바로. 불교를 등한시하고 유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관습에 얽매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한 역사를 짊어진 채 앞으로 재정 문제라든가, 공업 문제라든가, 의학 문제라든가, 또는 과학 문제라든가, 천체물리학 문제라든가 천문학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근본을 돌워 주고 근본의 수행을 시켜서 앞으로 해 나가는 일들이 분야마다 한마음 속에서 나투어지게끔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의학 분야라면 유 · 무를 한데 합쳐서 해 나간다면 그거는 제일 가는 의사일 것입니다. 법신(法身)이자 의사죠.

그러니 모든 분야가 하나하나 정신노동, 정신의학, 정신과학…, 모두 정신으로 돌아가야죠. 마음으로부터, 정신계로부터 하단계로 하달이 돼서 우리가 출중하게 해 나갈 수 있다면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질없는 싸움들은 안 할 겁니다, 아마. 일체를 자기로 보게 된다면 싸워 봤자 자기를 죽이는 건데…. 남을 물에다 끌어 놓으려면 자기도 물에 들어가야만이 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죽이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과학이 발전이 되어 기계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로보트로 한다 하더라도 자기와 남을 더불어 살릴 수 있고 이익하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이는 기계만 만들고 핵무기나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보존할 수 있는,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한마디만 더 하고 가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에이, 뭘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그대로, 생각에 의해서 그냥 입력이 되면서 그냥 곧바로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차가 손을 대지 않고도 그냥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한다면 차 사고도 그렇게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인력을 적게 쓰고도 많이 쓴 것보다도 몇 곱절 더 이익을 볼 수 있고, 경제난에 허덕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에 앉아서 세계를 전부 탐험할 수도 있고, 방에 앉아서 우주 법계를 다 탐험하고 결정지어서 마음으로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까 삼 단계의 문제, 바로 삼 단계가 삼 단계가 아닌 도리로 삼 단계도 없고 일 단계도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대로 여러분이 자기 탄생을 한다면, 삼계를 모두 통달할 수 있으며, 바로 삼계를 통달했다는 이름도 없는 그런 통달이 된다면 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그 구경경지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가슴에 닿게 말씀을 해 드렸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당최 그것이 말로 해서 되지 않는 거니까 그걸 잘 다듬어서 여러분이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십시오.

**대중 일동:**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 목마르면 그냥 물 마시는 것,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붙지 않는 데서, 나라는 걸 세우지 않는 데서
> 바로 구경경지를 이루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91년 2월 0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동참 가능한 성지순례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2014년 2월 19일, 2월 22일, 2월 24일, 2월 26일 등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고 시리암 5일).....요금문의
  2014년 2월26일
* 운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2014년 2월14일, 2월18일, 2월20일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패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 가이드 + 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불자 세상보기

# 당신 마음의 사랑의 온도 몇 도입니까



진명 스님
前 조계종 문화부장

계속된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 여파로 전국이 며칠째 희뿌연 오염물질로 뒤덮혀 건강한 이들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요즘이다. 이웃 나라 중국의 환경오염의 결과를 우리가 재앙수준의 체험으로 공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적인 우환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심각해진 가계경제 사정으로 우울해진 마음은 아무리 매스컴에서 새해가 갑오(甲午)년이고 푸른 말의 해라고 힘과 생동감에 대해 떠들어도 도통 즐겁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 며칠 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에서 모금액이 1995년 시작된 이후 최고 모금액이라는 방송을 접하고 보니 내외적인 우울감이 삽시간에 해소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지난해 11월20일 모금이 시작 된지 55일 만에 100도를 넘어 112도를 넘어 사랑의 온도탑은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 중이다.

특히 모금의 내용적인 면은 더욱 감동적이다. 올해 목표액이 3100억 원 이었고 31억 1천만원이 모금되었을 때 마다 100도에서 1도씩 올라가는데 무려 112도로 목표액을 초과했으며 개인기부자들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개인기부자가 구두 수선공, 폐지를 파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부부 등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임에도 도리어 기부에 동참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의 기부는 교육과 소득의 심각한 양극화와 물질이 인생의 모두가 되어 버린 듯 한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피폐해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흡사한 얘기가 전해진다.

이는 '빈자일등(貧者一燈)' 의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우경〉 '빈녀난타품' 을 보면, 난타라는 여인이 등장한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걸식하면서 살던 난타는 어느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구걸을 거듭하다 기름을 사서 등 공양을 올렸다. 난타 여인은 "저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작은 등불 하나만을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그러나 이 등불은 저의 큰 재산을 바치는 것이오며, 따라서 저의 마음까지도 모두 바치는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이 인연 공덕으로 저도 내생에 지혜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없애게 하여 지이다"라고 간절한 발원을 하고 도량을 떠났다.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난타 여인이 공양한 등만이 홀로 불을 밝혔다.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가 날이 밝아 불을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사해(四海)의 물과 산바람으로도 끌 수 없다"며 "일체 중생을 두루 건지려고 큰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물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절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 객승이 한사람 더 오게 되면 각자 발우에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밥을 덜어내 한 사람 분량의 밥이 더 생겨지도록 하는 가반(加飯)제도가 있었는데 이 또한 고통을 분담하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는 아직도 연말 연시만 되면 거리에 걸리는 '구세군 냄비' 속으로 모여드는 온정의 손길과 사회 지도층인 대기업 총수들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도덕적 의무 이행만을 바라고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여인 난타처럼 마음을 담은 작은 보시로 세상의 어떤 등보다 밝고 아름다운 온정의 등을 밝힐 수 있고 한 숟가락의 밥을 덜어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데 말이다.

오늘도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은 무명씨들의 크고 작은 손길들이 관세음보살의 천수로 화현하여 큰 기쁨을 쌓아 가고 있어 아무리 환경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가도 마음 한 구석 봄바람처럼 기분 좋은 공존공생의 희망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의 온도탑을 외면하지 않았던 이웃들,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세음의 가피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천수가 되고 천안이 되어보자.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언대

**주요 종단 신년기자회견**

한국 제2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주요 종단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에 사찰을 건립하고 총무원 분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도 대전 유성구 광수사 옆 부지에 천태문화전승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요 종단들의 세종시 진출에 대한 의견을 모아봤다. 〈편집자 주〉

### 세종시 분소는 시대 흐름



**허운 스님**
조계종 신도시 종책특보

세종시에 건립될 사찰은 신도시 포교가 첫 번째 목적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교회가 40여 곳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중심지인 세종시에도 여법한 종단의 공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조계종이 세종시에 지어질 사찰에 총무원 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층 포교 △대정부 종무행정 원할화 등의 이유가 있다. 세종시가 정부 행정수도라는 특수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종단 총무원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고, 지역 교구본사인 마곡사에게 일임을 했을 것이다.

물론 그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충청지역권의 포교는 지금처럼 교구본사인 마곡사가 맡고, 세종시에 건립될 사찰은 공무원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밝힌 것처럼 세종시와 정부기관을 찾는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종단적인 신도시 포교의 롤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에 건립될 사찰은 신도시 포교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세종시 사찰 면밀한 준비를



**법응 스님**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세종시에 사찰을 건립해 총무원 분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전략적 포교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세종시로 가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모두 36곳이다. 총리실을 물론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부처와 기관 12곳이 전한다.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곳이 둥지를 옮겼으며, 2014년에는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6곳이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업무처를 이동한다. 서울시에는 입법부, 사법부, 외교부 등 5개 부처만 남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규모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종시를 2030년까지 인구 50만이 사는 자족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에 사찰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종교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충청 권역에 존재하는 만큼 대정부 종무행정을 위한 창구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면밀한 준비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전에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폭 넓게 듣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도시 포교, 미룰 일 아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세종시는 행정 수도이며 서울의 행정 기관 대부분이 내려간다. 대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 밀접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런 세종시에 새로운 포교 도량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리어 하나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요소 요소에 사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도심형 사찰을 건립해 대전-유성-계룡시-세종 행정신도시-청주시로 이어지는 충남권 포교 라인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 교구 본사인 마곡사 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

일부에서 지적한 대로 이와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 인근 신도시에 대한 포교의 고삐도 놓쳐서는 안되며 더욱 강화돼야한다.

특히 직할교구 세분화는 시급하다. 수도권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직할 교구 본사라고 볼 수 있는 조계사는 단위 사찰로의 역할은 해도 본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세분화를 통한 역할 분배와 집중으로 수도권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포교는 한국불교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社說

# 한국불교, 신도시 포교에 진력 하자

한국불교 주요 종단인 조계종과 천태종이 세종시에 사찰과 전승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신도시에 조계종 사찰을 건립하고 총무원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1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천태종 사찰인 대전 유성 광수사 옆에 천태문화전승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조계종이 준비하고 있는 사찰은 2012년 서울 일선 사찰이 소유한 세종시 종교 용지를 양도 받은 것으로 부지 선정에 있어 1순위를 배정받은 것이다.

직장직능단체 중 가장 주요한 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행정 수도인 만큼 중앙종무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조계종은 향후 지역 '랜드마크' 로 자라매김할 수 있는 사찰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천태종은 2018년까지 대전 유성 광수사 옆에 천태문화전승관을 건립하고 국제포교 등 종무 행정 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실제 도정 스님은 조계종과 태고종, 진각종 등의 전승관을 견찰하기도 했다.

사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 권역은 향후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중 세종시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곳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만큼 범불교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신도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야 한다.

서울 · 경기나 신도시 개발 지역 종교용지에 불교는 거의 없다.

대부분 공개입찰로 진행돼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개신교계에서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신도시 포교,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 성년 수계법회는 대학생 포교 새 전기

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올해부터 대학생들에게 성년 수계법회를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신들의 신행활동과 학술교류 등을 주축으로 활동하던 교수불자들이 이제 제자들의 신행활동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교불련에서 추진하는 성년의날 수계식은 발렌타인데이와 같이 현재 대학가의 기념일로 자리잡은 성년의날을 맞아 신세대들을 포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중이다.

2009년부터 제13~15대 교불련 회장을 맡고 있는 최용춘 회장의 이같은 신년 계획은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대학생 포교의 숨통을 트여줄 새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불교가 노쇠해 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래서 불교가 젊어지려면 이제 법회도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재미있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들면 선시낭송회, 명상기도회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대불련 50주년 세미나에서도 밝혔듯 결국 대학생 불자들이 사회에 나가 교불련, 병불련, 공불련 등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학생 불자조직 활성화는 한국불교 포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계층 포교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불자 대학생들의 신행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불자 교수들이 선배로서 학생들 앞에 적극적인 신행활동도 모범적으로 전개하고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때 우리 불교의 위상도 저절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렇게 된다면 바로 지성인들인 대학생들이 불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문턱이 훨씬 낮아질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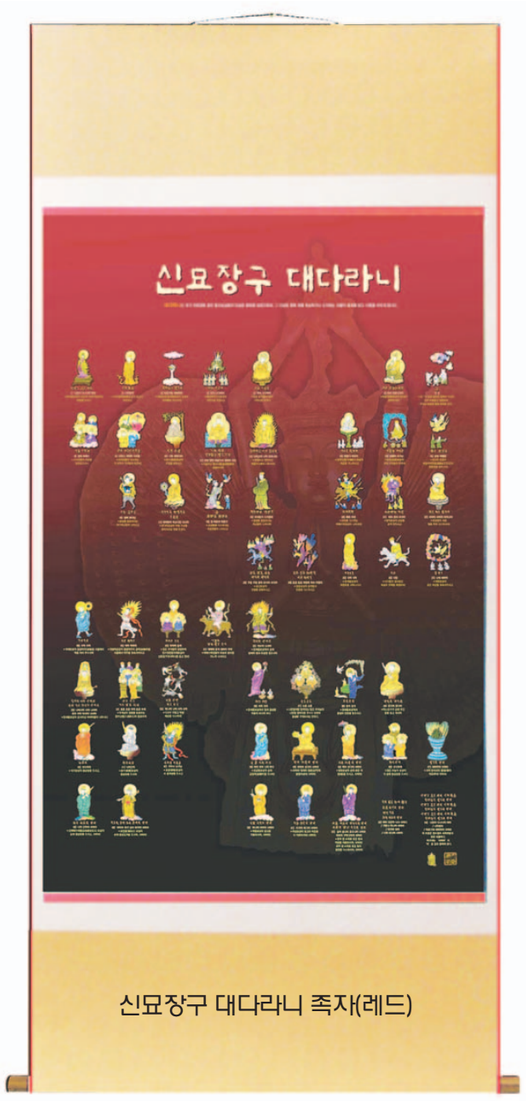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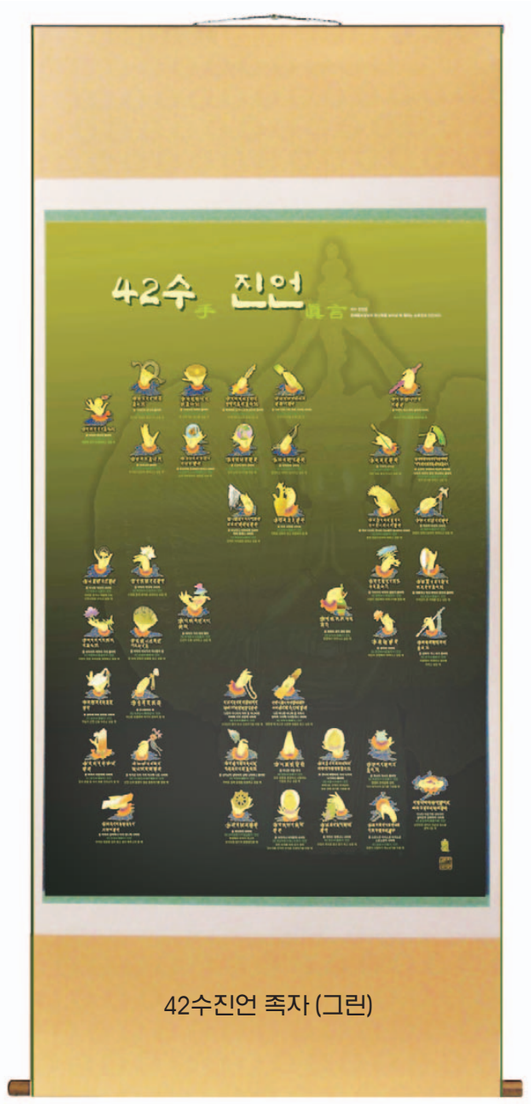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권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 제품명 | 신묘장구대다라니 | 42수진언 |
|---|---|---|
| 크기 및 가격 | 사찰용 100,000원<br>가정용 70,000원 | |
| | 사찰용 65×145㎝<br>가정용 45×110㎝ | |
| 색상 | 그린 · 레드 | 그린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3년여 만에 출간한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화제의 신간

# 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



출간되자마자 커다란 호응을 일으키며 재판




# 붓다 수업

웰빙, 힐링, 뉴에이지, 영성, 치유, 명상, 시크릿, 마인드풀니스 등의 원천인 붓다!

진지한 깨침의 글들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법상 스님이 3년 만에 『붓다 수업-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를 출간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대중과 소통해 온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붓다 시대, 이제 붓다 수업은 불교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들어야 할 인생 수업이다. 이 책은 진리를 표방하는 단체며 가르침이 많아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시대, '힐링'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의 원천'인 붓다의 가르침을 담아놓았다.

■ 법상 스님 지음 | 신국판 372쪽 | 15,000원

무아(無我)와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당신은 실재하는가?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마음공부로 이끄는 신개념 불교교리서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




#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 성법 스님 지음 | 신국판 304쪽 | 13,500원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혼과 순수성을 담보로 '거래' 해서는 안 된다" 콕콕 정곡을 찌르듯 불편한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성법 스님의 까칠한 불교 이야기.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불교를 세우고 있는 저자의 경책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무지와 탐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라고 말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

Tel. 02)732-2403~4 민족사

---

올바른 종교생활을 위한 촌철살인

#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천국을 탐(貪)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탐착의대상이 아니며, 탐착은 그대로 지옥이다"

■ 김진태 지음 | 신국판 184쪽 | 12,000원

세상 사람들이 종교계를 걱정하는 시대, 위험하고도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 올바른 종교생활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촌철살인. 불교계를 정화하는 최고의 처방이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호법신장 김진태 교수의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책의 향기가 있다면 이런 글이 아닐까? 절제된 문장에 담겨 있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자의 깊었던 고뇌를 엿볼 수 있다. 붓다와 예수께서 이 시대에 계시다면 분명히 이 한마디를 하셨을 것 같다. "선재 선재(善哉 善哉)로다!"라고.

– 동화사 연수국장 혜문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

도서출판 동승동 Tel. 02)732-2403~4